

文學碩士 學位論文

嶺南地域 住居址 出土 磨製石鏃의 編年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 化 財 學 科

李 錫 凡

2005年 12月

嶺南地域 住居址 出土 磨製石鏃의 編年

指導教授 金 昌 鎬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5年 12月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 化 財 學 科

李 錫 凡

李錫凡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慶州大學校 大學院

2005年 12月

# 목 차

I. 머리말.....	1
1. 先行研究와 問題提起.....	2
2. 研究의 目的과 時·空間的 範圍.....	4
3. 南韓地域 青銅器時代 編年案 檢討.....	6
II. 石鏃 出土 遺蹟 紹介.....	15
1. 嶺南內陸地域.....	15
2. 嶺南東南端地域.....	17
3. 嶺南西南端地域.....	23
III. 製作과 用途.....	27
1. 製作.....	27
1) 石質.....	27
2) 製作方法.....	28
2. 用途.....	30
IV. 型式分類.....	32
1. 名稱.....	32
2. 型式分類.....	33
1) I 類石鏃.....	34
2) II 類石鏃.....	40
3) III 類石鏃.....	41
V. 段階設定 및 編年.....	55
VI. 맺음말.....	76
• 참고문헌.....	79
• Abstract.....	83

## <표 목 차>

<표 1> 마제석층의 형식분류안.....	4
<표 2> 청동기시대 문화유형과 편년안.....	13
<표 3> 영남지역 마제석층 출토유적 일람표.....	26
<표 4> 석층의 암질비율.....	27
<표 5> I A식석층 세부속성표.....	35
<표 6> I A식석층 총길이:총길이/축신폭 상관관계.....	36
<표 7> I A식석층 총길이:축신폭 상관관계.....	36
<표 8> I A식석층총길이/축신폭:축신폭 상관관계.....	36
<표 9> I A식석층 속성조합의 상관관계.....	36
<표 10> I A식석층의 형식조열.....	36
<표 11> 영남지역 I A식석층 순서배열.....	39
<표 12> II류석층 속성표.....	40
<표 13> II류석층 경부단면형태와 축신폭하단형태의 상관관계.....	40
<표 14> 영남지역 II류석층 순서배열.....	41
<표 15> IIIA식의 경부단면형태와 축신폭하단형태의 상관관계.....	42
<표 16> III류석층 속성표.....	43
<표 17> 영남내륙지역 IIIA식석층 순서배열.....	46
<표 18> 영남동남단지역 IIIA식석층 순서배열.....	47
<표 19> 영남서남단지역 IIIA식석층 순서배열.....	52
<표 20> 주거지의 계통과 평면형태.....	56
<표 21> I 류-노지의 형태.....	56
<표 22> 주거지평면형태와 노지구조의 상관관계.....	57
<표 23> II류-가운데 수혈과 주혈배치에 의한 분류.....	58
<표 24> 심발형토기의 문양분류.....	59
<표 25> 주거지 및 심발형토기 속성표.....	60
<표 26> 영남내륙지역 마제석층의 단계설정.....	62
<표 27> 영남동남단지역 마제석층의 단계설정.....	65
<표 28> 영남서남단지역 마제석층의 단계설정.....	66
<표 29> 영남지역 주거지 절대연대 현황(반감기 : 5568).....	67
<표 30> 영남지역 마제석층 편년표.....	70

<표 31> 영남지역 청동기시대 편년안.....	70
----------------------------	----

## <도면 목차>

<도 1> 마제석촉 출토유적의 분포.....	5
<도 2> 마제석촉의 제작과정.....	28
<도 3> 석촉명칭도.....	32
<도 4> I A식석촉 총길이의 도수분포도.....	34
<도 5> I A식석촉 총길이/촉싹의 도수분포도.....	34
<도 6> I A식석촉 촉싹부형태 분류.....	34
<도 7> I A식석촉의 형식변화.....	37
<도 8> 영남지역 I A식석촉(1/2).....	38
<도 9> II식석촉의 형태적 속성분류.....	40
<도 10> II류석촉(1/2).....	41
<도 11> IIIA식석촉의 경부 단면형태에 의한 분류.....	42
<도 12> IIIA식석촉의 촉싹부 형태에 의한 분류.....	42
<도 13> 영남동내륙지역 IIIA식석촉(1/2).....	47
<도 14> 영남동남단지역 IIIA식석촉(1/2).....	50
<도 15> 영남동남단지역 IIIA식석촉(1/2).....	51
<도 16> 영남서남단지역 IIIA식석촉(1/2).....	53
<도 17> 영남지역 I期 주거지 및 출토유물(석촉:1/4, 토기:1/8).....	73
<도 18> 영남지역 II·III期 주거지 및 출토유물(석촉:1/4, 토기:1/8).....	74
<도 19> 영남지역 IV期 주거지 및 출토유물(석촉:1/4, 토기:1/8).....	75

## I. 머리말

지금까지 靑銅器時代<sup>1)</sup> 문화연구는 유적과 유물의 분석을 통한 편년 및 계통과악에 기초한 지역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無文土器 및 주거지 분석을 통한 취락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石器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하다. 최근 폭발적인 자료의 증가와 農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石器에 대한 다양한 연구 성과가 발표되어 청동기시대 생활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石鏃과 같은 석제공구는 石劍과 함께 당시의 주요한 生業道具이면서 支石墓와 石棺墓의 부장품으로 널리 사용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생활상복원에 주요한 자료라 생각된다. 石鏃은 제작기술의 발달과 함께 打製石鏃에서 磨製石鏃으로 발달하면서 다양한 종류와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原三國時代가 되면 骨鏃과 鐵鏃으로 대체된다.

磨製石鏃의 研究는 時期編年을 위한 보조자료로 이용되어 왔으나 그 자체에 대한 제작과정과 形態的 屬性 등의 종합적인 연구는 부진하였다. 型式分類에 있어서도 莖部와 鏃身部の 단면 또는 평면의 形態的 屬性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나, 계층적속성에 의한 분류는 전무하다<sup>2)</sup>.

본고에서는 영남지역의 주거지에서 출토된 마제석촉을 대상으로 鏃身部와 莖部の 形態的(計測的)屬性을 검출하여 型式分類를 시도하고 그 형식변화를 통한 편년작업을 시도하고자 한다<sup>3)</sup>. 아울러 영남지역의 磨製石鏃의 형성과정

1) 청동기시대는 요즘 무문토기시대라 부르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 무문토기시대란 무문토기만을 사용하는 시대가 아니라 무문토기문화를 가진 시대개념으로 정의 되고 있다. 즉 신석기시대의 빗살문토기와 다른 무문토기의 출현, 마제석기의 보편적사용, 농경의 보편화, 지식묘, 석관묘 등의 새로운 묘제의 출현, 청동기의 제작사용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필자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성과의 보편적 인식과 도구의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한 톱센의 삼시대법에 따라 청동기시대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朴淳發, 「漢江流域의 靑銅器·初期鐵器文化」, 『한강유역사』, 민음사, 1993.

2) 赤掘英三은 石鏃의 鏃身部の 길이, 축신폭, 축신투께를 계측 분석한 결과, 석촉의 길이는 시간적 차이 보다는 지역적 차이로 인식하였다. 하지만 당시는 극히 한정된 자료에 의한 분류였으므로 보다 많은 자료가 축적된 만큼 재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赤掘英三, 「石器研究の一方法」, 『人類學雜誌』 44-3, 1931, p.p. 87~105.

崔盛洛, 「韓半島 磨製石鏃의 考察」 『韓國史研究』 12, 韓國考古學會, 1982. p. 72에서 재인용).

3) 필자는 영남지역 마제석촉을 대상으로 축신폭과 경부의 형태적(계층적)속성으로 형식분류를 시도한 바 있으나, 계층적인 속성검출에 있어서 축신폭의 재가공 가능성을 간과하여 상당부분 오류를 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고에서 이를 수정보완 하고자 한다. 비교적 형태가 양호한 무경식석촉의 분류에는 계층치를 이용한 속성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李錫凡, 「嶺南地域 磨製石鏃의 型式分類」, 『嶺南文化財研究』 제 17집, 2004.

과 지역성을 살펴보겠다.

### 1. 先行研究와 問題提起

磨製石鏃의 研究는 藤田亮策에 의해 처음 시도되었다. 藤田亮策<sup>4)</sup>은 莖部の 유무와 형태에 따라 無莖三角式, 柳葉式, 有柄式으로 분류하였으며, 磨製石鏃의 기원을 靑銅鏃에서 모방했다는 입장이다.

李白圭<sup>5)</sup>는 경기도지역의 무문토기편년을 시도하면서 磨製石鏃을 크게 長陵形石鏃, 有莖石鏃, 三角灣入石鏃, 三角形石鏃 등으로 분류하고 유적 간 공반유물을 통해 長陵形石鏃, 有莖石鏃, 三角灣入石鏃을 A군으로, 三角形石鏃을 B군으로 분류하였으며 A군이 B군보다 선행한다고 보았다.

任世權<sup>6)</sup>은 뿌리(莖部)의 유무에 따라 마름모촉과 납작촉으로 나누고, 마름모촉은 莖部の 형태에 따라 뾰족뿌리(1단 뾰족뿌리, 2단 뾰족뿌리), 납작뿌리(날개 없는 형식, 날개 있는 형식), 버들입형으로, 납작촉은 底邊의 형태에 따라 곧은밑형, 굽은밑형, 홈밑형, 제비날개형으로 분류하였다. 한 시기에 여러 형식이 공존하고 있어 각 형식 간 선후관계가 있다기 보다는 기능적 또는 지역적 특징으로 이해하고 있다.

崔盛洛<sup>7)</sup>은 型式分類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형식을 구성하는 屬性 중 形態的 屬性에 따라 無莖式(A식), 中間式(B식), 有莖式(C식)의 크게 3가지로 분류하였다. A식은 底邊의 형태에 따라 雙脚鏃, 長葉鏃, 三角灣入鏃, 三角形鏃으로 세분하고, B식은 촉신의 형태에 따라 柳葉形鏃, 葉形鏃, 長葉形鏃, C식은 莖部の 형태를 기준으로 一段莖鏃, 二段莖鏃, 細長有莖鏃으로 모두 10형식으로 세분하였다. 그는 石鏃 출토 양상을 기준으로 한반도 전역을 중부지방, 충청지방, 서남부지방, 동남부지방, 동북지방, 북서지방, 대동강유역 및 황해도지방 등 7개 지역군으로 나누고 그 분포 양상을 살폈다.

全榮來<sup>8)</sup>는 石劍과의 공반관계를 통해 石劍의 형식편년에 맞추어 磨製石鏃을 有莖尖根(제 I 형식), 有莖平根(제 II 형식), 扁平無莖三角(제 III 형식)의 3가지

4) 藤田亮策, 『朝鮮考古學研究』, 東京, 1948.

5) 李白圭, 「京畿道 無文土器·磨製石器」, 『考古學』 3, 1974, p.p. 55~111.

6) 任世權, 「우리나라의 마제석촉의 연구」, 『韓國史研究』, 17집, 1977, p.p. 3~34.

7) 崔盛洛, 「韓半島 磨製石鏃의 考察」, 『韓國史研究』 12, 韓國考古學會, 1982.

8) 全榮來, 「韓國 磨製石劍·石鏃 編年에 대한 研究」, 『馬韓·百濟文化』, 4·5합집, 馬韓百濟文化研究所, 1982.

로 분류하였다.

安在皓<sup>9)</sup>는 남한 전기무문토기 편년작업의 보조자료로 石鏃과 石劍을 활용했다. 石鏃製作時, 역점을 두어 제작되는 莖部形態에 따라 無莖式을 I類, 二段莖式을 II類(a, b), 一段莖式이면서 莖部の 단면형태가 장방형인 것을 III類(a, b, c, d, e), 一段莖式이면서 莖部の 단면형태가 육각형인 것을 IV類로 총 10類型으로 분류하였는데 재가공의 가능성을 염두하여 분묘부장품 석촉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嶺南地域에서는 安在皓의 編年案을 대부분 따르고 있으며 유적 상대편년의 기준이 되고 있다.

朴垞範<sup>10)</sup>은 한강유역에서 출토된 石鏃을 대상으로 莖部の 유무와 莖部の 단면형태에 따라 無莖式 打製石鏃을 A식, 有莖式 打製石鏃을 B식, 無莖式 磨製石鏃을 C식(I:홈밀형, II:버들잎형), 有莖式 磨製石鏃을 D식(I:一段莖式, II:二段莖式, III:一體形)으로 분류하였다. 다시 CI식은 저변의 형태에 따라 6가지, DI식과 DII식은 莖部の 단면형태에 따라 각 3가지로 세분하였다. 박준범의 분류는 신석기시대의 打製石鏃까지 분류대상에 포함시켰으나 磨製石鏃의 분류는 안재호와 임세권의 분류와 유사하다.

董眞淑<sup>11)</sup>은 磨製石鏃을 영남지역의 청동기시대 문화의 변천을 설명하기 위한 보조자료로 활용했다. 石鏃의 莖部형태에 따라 無莖式(I), 二段莖式(II), 一段莖式(III)으로 크게 분류하고, 축신하단의 형태에 의해서 수평형인 것을 a(1, 2), 둔각으로 연결된 것을 b, 축약형인 것을 c, 축신이 莖部보다 4배 이상인 것을 d(1, 2)로 세분하였다.

黃昌漢<sup>12)</sup>은 無莖式石鏃과 有莖式石鏃을 계통적 차이로 인식하여 무경식석촉은 新石器時代의 타제석촉에서 繼承되었으며, 유경식석촉은 청동촉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형식분류에 있어서 矢柄과 莖部の 결구방법에 따라 I류착장방법, II류착장방법으로 1차분류하고 세부분류는 안재호의 분류를 착장방법에 따라 재배열하였다. 황창한의 분류는 기존의 일차원적인 형태분석에서 계통과 관련한 技術的 屬性에 의해 분류가 이루어진 점에서 주목되지만, 2차

9) 安在皓, 『南韓 前期無文土器의 編年』, 慶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1, p.p. 2~4.

10) 朴垞範, 『한강유역 출토 돌화살촉에 대한 연구』, 弘益大學校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8.

11) 董眞淑, 『嶺南地方 青銅器時代 文化의 變遷』, 慶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3, p.p. 56~57.

12) 황창한은 석촉의 경부와 시병의 결구방법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I類 착장방법-시병의 끝을 일자로 가른 후, 그 사이에 축을 삽입하는 방식

II類 착장방법-경부를 시병에 꽂아서 착장하는 방식

黃昌漢, 「無文土器時代 磨製石鏃의 製作方法 研究」, 『湖南考古學報』 20집, 2004, p.p. 35~37.

분류에 의한 형식변화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위의 마제석축의 형식 분류에 대한 연구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마제석축의 형식분류안

분류자 \ 분류	1차분류속성	2차분류속성	無莖式	有莖式
藤田亮策	경부의 유무와 형태		無莖三角式	柳葉式, 有柄式
李白圭	축신부형태		三角形灣入, 三角形	長陵形, 有莖
任世權	축신부단면과 형태	경부형태, 저변형태	납작축	마름모축(뾰족뿌리, 납작뿌리, 버들입형)
崔盛洛	전체형태	저변형태, 축신단면, 경부형태	A식(無莖式)	CII식(有莖式), B식(中間式) CI·III식(有莖式)
全榮來	축신부와 경부의 형태		扁平無莖三角	有莖平根, 有莖尖根
安在晔	경부형태와 단면형태		無莖式(I류)	二段莖式(II류), 一段莖式(III, IV류)
朴堉範	경부의 유무와 형태	저변형태, 경부단면형태	無莖式(C식)	二段莖式(DII식), 一段莖式(DI식)
董眞淑	경부형태	축신하단형태, 축신부와 경부의 비율	無莖式(I)	二段莖式(II), 一段莖式(III)
黃昌漢	시병과 축의 착장방법	경부의 형태 (안재호의 분류)	I류착장방법 Ia	I류착장방법(Ib~If) II류의 착장방법(IIa, IIb, IIc)

석축에 대한 연구는 형식분류에 의한 석축 자체의 편년이나 시기편년의 보조자료로 이용되어 왔다. 석축은 제작기술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종류와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어 그 형식변화가 지역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石鏃의 研究는 지역별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하겠다. 본고는 그 일환으로 영남지역의 마제석축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한다.

## 2. 研究의 目的과 時·空間的 範圍

본고의 I 장에서는 남한지역 청동기시대의 편년안을 기존의 연구성과와 절대연대자료로 편년안을 제시하고 영남지역의 청동기시대에 있어서 시간적인 위치를 살펴본다. II 장에서는 영남지역을 수계를 따라 형성된 청동기시대 취락을 영남내륙지역, 영남동남단지역, 영남서남단지역 등 3개의 지역군으로 나누고 석축이 출토된 45개 유적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한다.



Ⅲ장에서는 마제석촉의 製作方法과 用途를 살펴보고, Ⅳ장에서는 마제석촉의 선행연구에서 이용된 분류 속성과 새로운 形態的屬性을 검출하여 型式分類를 시도하고 각 형식간의 변화과정을 통하여 순서배열을 시도한다.

V장에서는 石鏃編年の 검증자료로 주거지의 형태와 공반 출토된 심발형토기의 변화와 비교하여 磨製石鏃이 출토된 주거지의 상대서열과 편년을 시도한다. 여기서는 유물 간 형식조합을 우선으로 하면서 절대연대의 활용을 병행하는 방식을 취한다. 아울러 영남지역 磨製石鏃의 전개와 지역적 분포를 통한 지역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시기구분을 前期·中期·後期로 구분한 3시기법을 따르는 입장이며,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청동기시대 전기에서 송국리유형이 확인되는 청동기시대 중기까지 해당되는 주거지출토 석촉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발굴자료의 한계로 청동기시대 전기에서 중기에 걸친 全期間에 걸친 자료를 다루진 못 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행정구역상 영남지역에 해당한다. 분석대상은 45개소 유적의 주거지(160棟)에서 출토된 磨製石鏃 중, 형식분석이 가능한 272점<sup>13)</sup>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청동기시대 취락은 수계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영남지역도 마찬가지로 수계와 연결된 구조곡 지형을 따라 취락이 분포하고 있다.

영남지역 聚落의 분포를 살펴보면, 낙동강 중류의 대구를 중심으로 한 영남내륙지역, 낙동강동안·태화강·형산강유역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영남동남단지역, 낙동강서안·남강, 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영남서남단지역으로 크게 3개의 지역군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영남의 북부내륙지역과 북부동해안지역은 유적의 조사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연구대상범위에서 제외되었지만, 앞으로 자료의 축적이 기대된다.

### 3. 南韓地域 靑銅器時代 編年案 檢討

청동기시대의 시기구분은 無文土器에 의한 구분, 靑銅器에 의한 구분, 無文土器와 靑銅器를 함께 고려한 구분이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청동기시대의 시기구분은 前期·後期로 구분한 2시기(임병태 1969; 後藤直 1973; 이백규 1974)와 前期·中期·後期로 구분한 3시기(藤口健二 1986; 하인수 1989), 早期·前

13) 각 주거지에서 출토된 석촉수량은 많았으나 완형이나 형태를 어느정도 남아 있는 272점의 석촉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期·中期·後期로 구분한 4시기(안재호 2000)로 분류되고 있으며 각 시기별로 文化類型을 형성하고 있다. 類型이란 이청규에 의해 최근까지 특정한 유물의 복합체를 한정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안재호는 청동기문화의 편년이 이백규의 전기무문토기의 한강유역형성설을 시작으로 가락리유형, 역삼동유형, 혼암리유형, 송국리유형으로 나뉘었으며, 시기와 구별 없이 사용된 점을 지적하고, 類型的 개념을 특정시기와 특정지역에 국한된 유물과 유구의 복합체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시기구분에 있어서 段階 또는 時期에 類型이 포함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sup>14)</sup>. 박순발은 동질적 문화전통을 가지면서 고고학적으로 동 시간대로 포괄될 수 있는 제작·사용집단에 의해 제작·사용된 유구 및 유물 군으로 정의하고 있다<sup>15)</sup>. 양자 모두 時空的으로 동일한 유구와 유물의 복합체로 보고 있다.

최근 청동기시대 문화유형과 시기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남한지역의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유형을 정리하고 방사성탄소연대를 활용하여 편년안을 제시한다.

#### (1) 羨沙里類型

미사리유형<sup>16)</sup>은 한강과 남강유역의 평면형태 방형·장방형에 石床圍石式爐址를 갖춘 주거지구조에 刻目突帶文이 시문된 미사리식토기와 三角灣入鏃, 半月形石刀, 扁平石斧 등의 유물을 표지로 한다. 安在皓는 미사리의 刻目突帶文土器의 형성을 압록강, 요동반도의 농경민이 남하하여 재지의 신석기문화와 융합된 농경문화로 靑銅器時代 早期로 설정하였으며, 압록강유역의 심귀리, 공귀리유적을 같은 계통으로 보고 있다. 李相吉은 刻目突帶文土器 주거지를 櫛文土器에서 無文土器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시기로 보고 방사성탄소연대를 바탕으로 B.C. 10세기를 상회하는 정도로 편년하였다. 그 외 상촌리 2호·10호주거지는 각각 B.C. 1,410~B.C. 1,120과 B.C. 1,400~B.C. 1,100으로 옥방 5

14) 安在皓, 「無文土器時代 聚落研究의 問題點」, 『釜考研』 74, 부산고고학연구회, 2005.

15) 朴淳發, 「欣岩里類型 形成過程 再檢討」, 『湖西考古學』 創刊號, 1999.

16) 李弘鐘, 「日本 초기수전농경기의 덧띠새김무늬토기-한반도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史叢』, 33, 1988.

安在皓, 「韓國 農耕社會의 成立」, 『韓國考古學報』 43, 韓國考古學會, 2000.

李亨源, 「韓國 靑銅器時代 前期 中部地域 無文土器 編年 研究」, 忠南大學校大學院 文學碩士學位論文, 2002, p.p. 7~40.

이상길, 「晉州 大坪 漁隱1地區 發掘調查概要」, 『남강선사문화 세미나 요지』, 東亞大學校博物館, 1999.

최무장, 『晉州 上村里 8호 支石墓 및 先史遺蹟』, 건국대학교박물관, 2001.

李亨求, 『晉州 大坪 玉房5地區 先史遺蹟』, 鮮文大學校, 2001.

지구 D-2호주거지는 B.C. 1,590~B.C. 1,310과 B.C. 1,620~B.C. 1,400의 방사성탄소연대치가 도출되어 유적간의 편차가 큰 연대치를 보이지만 즐문토기와 공반되는 점에서 청동기시대의 이른 시점으로 보고 있다. 그 중심연대는 위에서 제시한 방사성탄소연대치를 신뢰하면 B.C. 16세기~B.C. 13세기까지 올라가게 된다<sup>17)</sup>.

### (2) 可樂洞類型

가락동유형<sup>18)</sup>은 대동강유역의 팽이형토기문화와 관련성을 찾는 설(이백규 1974; 한영희 1983; 이청규 1998)과 압록강유역과 관련성을 찾고자 하는 설(大貫靜夫 1996; 박순발 1999)로 나뉜다. 가락리유형의 특징은 평면장방형에 土壙圍石式爐址와 초석, 주공, 저장공이 설치된 주거지구조에 二重口緣에 短斜線이 시문된 가락동식토기와 有段式石劍, 三角灣入鏃, 二段莖鏃, 兩刃石斧 등을 표지로 한다. 이형원은 가락동유형을 I기~III기로 설정하고, I기에서 II기의 변화는 주거지의 구조면에서 장단비의 증가, 면적과 노지 수의 증가, 저장공의 감소 등을 들었으며, 토기문양에 있어서는 二重口緣+短斜線文 조합의 감소와 短斜線文, 口脣刻目文의 증가를 들고 있다. 가락동유형III기는 가락동II기의 주거지구조에 송국리유형의 문화요소가 접촉된 시기로 보고 있다.

가락동유형의 편년 연대는 방사성탄소연대치를 기준으로 B.C. 10세기~B.C. 8세기(이청규 1988; 박순발 1999, 85p)로 보아 왔으며, 비파형동검 유입 이전의 시기로 보고 있다(; 박순발, 1999, p. 85). 이형원은 증가된 방사성탄소연대 자료를 이용하여 가락동유형의 상한을 B.C. 13세기까지 올려보고 하한을 B.C. 9세기로 설정하였다. 송국리형문화요소가 등장하는 가락동유형III기를 B.C. 11세기 후반~B.C. 8세기 전반(중심연대 9세기 초)으로 잡았다.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락동유형의 상한을 B.C. 13세기로 하한을 B.C. 8세기로 폭 넓게 설정된다<sup>19)</sup>.

### (3) 驛三洞類型<sup>20)</sup>과 欣岩里類型

17) 최성락은 방사성탄소연대에 신뢰성을 부여하여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상한을 B.C. 1,300년 정도로 상향될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위의 미사리유형의 방사성탄소연대는 B.C. 16세기까지 올라가고 있다. 최성락, 「방사성탄소측정 연대문제의 검토」, 『한국고고학보』 13, 1982.

18) 李亨源, 앞의 논문, 2001. pp. 7~52.

19) 영남지역은 가락동유형의 주거지가 드물게 확인되고 있는데, 청도 진라리8호·10호주거지, 대구 팔달동 14호주거지, 상동 1-9호주거지, 밀양 금천리의 다수의 주거지가 여기에 속한다. 이중 진라리 8호주거지는 이형원의 가락동유형II기로 볼 수 있으며, B.P.3,000±40(B.C.1260)의 방사성탄소연대가 도출되어 약간 이른 시점이긴 하지만 위의 가락동유형의 편년에 부합된다.

20) 李清圭, 앞의 논문, 1988.

역삼동유형은 동북한지방의 토기문화로 보는 견해(이백규 1974·1986; 이청규 1988·1995; 안재호 1991·2000; 박순발 1993) 즉, 두만강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한지역의 평면형태 장방형·세장방형에 土壙式爐址, 柱孔이 설치된 주거지구조에 孔列文, 口脣刻目文의 鉢形土器와 有血溝磨製石劍, 魚形, 長舟形石刀, 有莖式石鏃, 三角灣入鏃 등의 유물을 표지로 하는 주거유형으로 인식되고 왔다. 최근 이진민은 역삼동유형을 면적 중대형의 장방형·세장방형에 土壙形爐址와 柱孔을 갖춘 전형적인 역삼동유형을 I기, 면적 중소형의 장방형·(말각)방형 주거지가 중심을 이루는 단계를 II기로 나누고 각 시기에 해당하는 유적들의 방사성탄소연대치와 보정연대를 이용하여 역삼동유형 I기의 상한을 B.C. 15~B.C. 14세기, 하한을 B.C. 10~B.C. 9세기로 보았으며, 역삼동유형 II기의 상한을 B.C. 10~B.C. 9세기, 하한을 B.C. 6~5세기로 보았다. 그리고 중부지역 송국리유형에 속하는 유적의 방사성탄소연대 자료로 송국리유형을 B.C. 9~5세기에 집중되는 점에서 역삼동유형 II기의 상·하한과 송국리유형의 상·하한이 시기상 유사한 것으로 보았다. 역삼동유형을 I기·II기로 구분하고 I기는 전형적인 역삼동식주거지단계로 II기는 소형의 장방형, (말각)방형주거지가 중심이 되는 단계로 인식하고 역삼동유형 II기가 송국리유형과의 공존가능성을 지적하였다<sup>21)</sup>.

혼암리유형은 일반적으로 서북한과 동북한의 양 지역에 계보를 둔 가락동유형과 역삼동유형이 공존하는 시기와 한강유역에서 서로 융합하여 혼암리식토기를 형성한 문화유형으로 인식된다. 박순발은 혼암리유형의 형성은 압록강의 제2문화층의 이중구연요소와 두만강유역의 반관통공열문 및 적색마연토기 요소가 복합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고 그 형성 장소를 원산만일대로 보았다.

최근에는 혼암리유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金壯錫<sup>22)</sup>은 역삼동유형과 혼암리유형의 분포권이 한반도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점과 혼암리식 유물 복합체간의 상이성이 크다는 점에서 집단을 반영하는 □□類型 □□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이다. 이형원(2002)은 기존의 혼암리유형과 역삼동유형의 토기, 석기,

21) 역삼동유형과 송국리유형의 관련성은 이청규에 의해 먼저 제기되었다. 역삼동유형의 흉도 D군 즉 나팔형 莖部로 특징지워지는 흉도와 유구석부의 공반출토로 설명하고 있다.

李清圭, 앞의 논문, 1988.

이진민의 역삼동유형은 혼암리유형을 포함하고 있어 김장석, 이형원의 의견과 같다고 볼 수 있다.

李眞旻, 「중부지역 역삼동 유형과 송국리유형의 관계에 대한 일고찰-역삼동유형의 하한에 주목하여」, 『韓國考古學報』 54, 2004.

22) 金壯錫, 「혼암리 유형 재고 : 기원과 연대」, 『嶺南考古學』 28, 2001.

주거구조가 동일하고 전국적으로 분포권을 공유하고 있는 점에서 서로 문화적 전통을 달리하는 집단으로 분리하기 어렵다는 김장식의 견해를 적극 지지하면서 양 유형을 하나의 유형으로 묶어서 □□역삼동·혼암리유형□□<sup>23)</sup>을 설정하였다. 유형의 단계는 주거지의 평면형태와 토기문양의 屬性組合이 아닌 시간성을 반영하는 개별속성에 의해 I기~IV기로 나누고, IV기는 토기문양구성에 있어서 二重口緣 및 短斜線文이 소멸되고 孔列土器, 口脣刻目文土器, 孔列+口脣刻目土器 등 순수 역삼동토기로만 이루어지는 단계로 설정하였다. 또 이 단계에서 三角形石刀, 有溝石斧, 短莖有溝式石劍, 일단경납작석촉 등 송국리형 문화요소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송국리유형의 시작과 관련짓고 있다<sup>24)</sup>. 이형원은 방사성탄소연대치에 의해 역삼동·혼암리유형의 상한을 B.C 13세기, 하한을 B.C 9세기로 보고 있으며, 송국리유형과 관련된 IV기는 B.C. 10세기~B.C. 9세기에 편년하였다. 위의 두 연구자의 편년안을 종합하면 역삼동유형의 상한은 B.C. 15세기~B.C. 14세기로, 하한은 한강유역과 강원도지역에서 孔列土器나 口脣刻目土器가 점토대토기와 공반된 예와 口脣刻目文이 시문된 점토대토기가 확인되는 점에서 이진민의 하한보다 100년 늦춰서 B.C. 4세기로 추정해 본다.

#### (5) 松菊里類型<sup>25)</sup>

- 23) 金壯錫, 李亨源, 李眞晄의 역삼동유형과 혼암리유형에 대한 공통된 견해는 중부지역에 대한 연구성과로 유형의 설정에 있어서 제연구자들의 의견이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필자도 여기에 따르고자 한다. 하지만 嶺南地域과는 時期的 差異 또는 地域的 差異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되며 영남권내에서의 단계설정 조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형원의 역삼동유형·혼암리유형IV의 경우, 중부지역에서는 송국리형문화요소가 확인되지만, 영남지역에서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영남동남단지역에서는 지역성이 강한 검단리유형 형성으로 송국리문화요소를 찾기 힘들다.  
최근 안재호는 평면 방향의 주거지에 단사선문과 횡선문이 시문된 검단리식토기, 1단경식尖根式석촉, 단주형석도를 표지로 하는 유구·유물의 복합체를 검단리유형으로 설정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安在皓, 「無文土器時代 聚落研究의 問題點」, 『釜考研』 74, 부산고고학연구회, 2005.
- 24) 이형원의 역삼동·혼암리유형IV기는 송국리유형 즉, 청동기시대 중기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이진민의 역삼동유형 II기와 비슷한 시기로 이해된다.
- 25) 河仁秀, 『嶺南地方 丹塗磨研土器에 대한 新考察』, 釜山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9.  
宋滿榮, 『中期無文土器時代 文化的 編年과 性格-西南韓地方을 中心으로』, 崇實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5.  
安在皓, 「松菊里類型的 檢討」, 『嶺南考古學』 11, 영남고고학회, 1992.  
宋滿榮, 「嶺南地方 農耕文化形成期 聚落的 構造와 變化」, 『한국농경문화의 형성』, 제25회 한국고고학대회, 韓國考古學會, 2001, p. 102.  
李弘鐘, 「松菊里文化的 時空間的展開」, 『湖西考古學』 第 6·7合輯, 호서고고학, 2002, p. 81.  
李健茂, 「松菊里類型住居址分類試論」, 『擇窩許先生停年記念韓國史學論叢』, 1992  
金壯錫, 「충청지역 송국리유형 형성과정」, 『韓國考古學報』 51, 2003.  
董眞淑, 「嶺南地方 青銅器時代 文化的 變遷」, 慶北大學校文學院 碩士學位論文, 2003.

송국리유형은 청동기시대 중기를 대표하는 문화유형으로 인식된다. 송국리 문화의 특징은 주거지의 내부 중앙에 가운데 수혈<sup>26)</sup>이 있는 圓形住居址가 등장하고 주거시설을 방어하기 위한 시설물(환호, 목책)의 축조, 농경의 정착과 함께 다양한 농경구의 등장, 묘제에 있어서 (石蓋)토광묘, 석관묘, 옹관묘의 채용, 생활용기로써 플라스크형과 발형의 홍도 제작, 遼寧式銅劍文化의 남부지방으로 확산되면서 지석묘에 부장, 남부지방의 농경문화가 일본에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다.

송국리유형의 시작은 선송국리유형의 긍정설과 부정설로 대비된다. 안재호는 송국리유형 형성과정에서 기존의 무문토기문화의 계승을 잇고 있지만, 석기와 주거구조는 송국리유형을 포함한 E군, F군을 선송국리유형으로 설정하였다. 김장석은 충청지역의 송국리유형을 역삼동유형→선송국리유형→송국리유형으로 변화를 상정하고 있는 반면에 이진민은 송국리유형은 외부유입에 의해 중서해안지역에 등장하여 중서내륙으로 확산 되었으며 역삼동유형과는 배타적인 권역을 지니며 공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만영은 송국리유형의 출현을 전기후반으로 보고 있으며, 중기는 전·후반으로 나뉘어 전반기는 송국리문화가 중서부, 서남부남단, 영남 동남내륙 등의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어 孔列土器文化와 문화적 접변을 이루면서 休岩里類型이 발생하는 단계이며, 후반기는 위의 지역에 송국리문화의 영향력이 증가되면서 동남내륙지역의 송국리문화가 영남동남단지역으로 재확산되는 단계로 보았다. 이러한 송국리유형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대립하고 있지만 遼寧式銅劍文化와 농경의 정착, 새로운 주거형태, 묘제의 등장은 문화적변화의 획기점은 분명하다.

송국리유형의 편년연대를 살펴보면,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형원의 가락동유형Ⅲ기와, 역삼동·혼암리유형Ⅳ기, 그리고 이진민의 역삼동유형Ⅱ기는 송국리유형의 발생시점과 관련성을 짓고 있다. 이형원은 가락동유형Ⅲ기는 B.C. 11세기 후반~B.C. 8세기 전반(중심연대 9세기 초), 역삼동·혼암리유형Ⅳ기는 B.C. 10세기~B.C. 9세기로 설정하였으며, 이진민은 역삼동유형Ⅱ기의 상한을 B.C. 10세기~B.C. 9세기, 하한을 B.C. 6세기~B.C. 5세기, 송국리유형을 B.C. 9세기~B.C. 5세기로 보고 있다.

26) 기존의 연구성과에서는 송국리형주거지내에 있는 수혈을 □□타원형구덩이□□라고 불러 왔으나, 유병록은 타원형구덩이의 위치와 여러 가지의 기능을 배제한 현상만을 인정하여 □□가운데 수혈□□이라 칭하고 있다. 필자도 유병록의 생각에 동감하며 타원형구덩이의 평면형태가 타원형에 국한되지 않는 점에서 이를 따른다.

嶺南文化財研究院, 『大邱東川洞聚落遺蹟』, 2002, 考察.

위의 절대연대를 신뢰하면 송국리유형의 상한<sup>27)</sup>은 B.C. 9세기까지 올려 볼 수 있으며, 하한은 점토대토기문화의 시작과 관련하여 B.C. 4세기로 설정할 수 있다. 이 편년안은 기존의 이청규(1998)·송만영(1995)의 B.C. 6세기~4세기, 안재호(1992)의 B.C. 5세기~4세기에 비해 300년이나 상향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동기시대 후기에 나타나는 점토대토기문화는 한국식동검문화의 성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점토대토기문화의 상한과 하한에 대한 異見이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우선 원형 점토대토기문화의 상한은 연나라 장수 윤의 요동 침공을 전후한 B.C. 4세기 말~3세기초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한국식동검문화의 형성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sup>28)</sup>. 철기문화의 배경속에서 형성된 삼각형점토대토기문화는 낙랑군설치기의 철기문화보다 이전의 위만조선기의 철기문화와 관련성을 짓는 견해<sup>29)</sup>, 요령지방의 第 4期文化와 연결지어 요령지방 또는 청청간 이북지역에서 남해안으로 직접유입설<sup>30)</sup>, 고조선계의 한국식동검문화와 전국-전한초기의 철기문화 그리고 고조선의 철기문화의 2차파급 등의 배경속에서 원형점토대토기형에 명사리식도기요소가 결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견해<sup>31)</sup>등이 있다.

이들의 삼각형점토대토기문화의 상한은 각각 B.C. 2세기중엽, B.C. 3세기말, B.C. 2세기말~B.C. 1세기 전엽 등 견해차가 크다. B.C. 3세기가 되면 고고학적으로 원형점토대토기문화, 한국식동검의 등장과 확산, 각종 이형동기의 출현 등 다양한 변화가 시작되며, 문헌에서는 고조선의 준왕이 위만에 쫓겨 韓地에 이르러 왕이 되었다는 삼국지위서동위전의 기사를 보더라도 위만조선의 성립 시점인 B.C. 195년, 즉 B.C. 2세기초에 이미 한반도 남부에는 한으로 지칭되는 사회가 있었다. 그렇다면 B.C. 3세기 무렵부터 한의 존재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청동기시대 후기는 B.C. 4세기~B.C. 3세기로 비정할 수 있다. B.C. 3

27) 고찰에서 박달석은 진라리 III단계의 송국리형주거지의 중심연대를 B.C. 9세기로 보았으며, 그 상한을 B.C. 10세기로 하한을 B.C. 8세기로 편년하였다. 이는 중부지역의 송국리유형의 연대에 부합된다. 嶺南文化財研究院, 『清道陳羅里遺蹟』, 2005, 考察.

28) 尹武炳, 『韓國青銅器文化研究』, 藝耕産業社, 1991.  
朴辰一, 『圓形粘土帶土器文化研究-湖西 및 湖南地方을 中心으로-』, 釜山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0.

29) 鄭澄元·申敬澈, 「終末期無文土器에 관한 研究-南部地方을 중심으로 한 예비적 고찰」, 『韓國考古學報』 20, 1987, p. 129.

30) 釜山大學校博物館, 『勒島住居址』, 1989, p. 145.

31) 李在賢, 『弁·辰韓社會의 考古學的 研究』, 釜山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3.

세기가 되면 고고학적으로 원형점토대토기문화, 한국식동검의 등장과 확산, 각종 이형동기의 출현 등 다양한 변화가 시작되며, 문헌에서는 고조선의 준왕이 위만에 쫓겨 韓地에 이르러 왕이 되었다는 三國志魏書東夷傳의 기사를 보더라도 B.C. 3세기 무렵부터 한의 존재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청동기시대 후기는 B.C. 4세기~B.C. 3세기로 비정할 수 있다.

위의 각 주거지유형과 編年案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 청동기시대 문화유형과 편년안

유형 분류자	전 기			중 기	후기
이백규 (1974, 1986)	A-Ⅲ군(서북), A-I군, A-Ⅱ군(동북)		B군, C군, D군		점토대토기문화
이청규(1988)	가락동유형 A군·B군, 역삼동유형 A군·B군·C군 비파형동검 유입이전			역삼동유형 D군	
안재호(1991)	미사리유형 早期	역삼동유형, 가락동유형 I 단계(A군, B군)	혼암리유형 II 단계(C군, D군, E군, F군)		연암산유형 세형동검기
박순발(1993)	가락동유형 (압록강, 청천강)	역삼동유형 두만강	혼암리유형 원산만	송국리유형	
정한덕(1999)	선동검기			비파형동검기	세형동검기
大貫靜夫 (1996)	가락동유형 (대동강)	역삼동유형 (압록강, 청천강)	혼암리유형	송국리유형	
이형원(2002)	미사리유형 I기		미사리유형 II기		
	가락동유형 I기 (서북 압록강, 청천)		가락동유형 II기		가락동유형 III기
李眞旻(2004)	역삼동·혼암리유형 I기	역삼동·혼암리유형 II기	역삼동·혼암리유형 III기	역삼동·혼암리유형 IV기	
	역삼동유형 1기			송국리유형	
이석범	미사리유형, 가락동유형 역삼동유형, 혼암리유형			역삼동유형 II기	송국리유형
	B.C. 16세기 ~ B.C. 9세기			B.C. 9세기~B.C. 4세기	B.C. 4세기 ~B.C. 3세기

현재까지의 청동기시대 편년연구는 유물의 형식분류에 의한 상대편년에 의해 편년이 이루어 졌으며, 절대연대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낮았다. 하지만 최근들어 C-14연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송국리유형 뿐만 아니라 전기를 대표하는 미사리유형, 가락동유형, 역삼동유형(혼암리유형)의 상한이 올려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들문토기와 공반되거나 들문토기요소를 보이는 미사리유형이 남한에서 가장 이른 시기로 보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따르며, 방사성탄소연대를 신뢰하여 남한지역 청동기시대의 상한을 B.C. 16세기, 하한을 B.C. 3세기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 상한연대는 현재까지의 C-14연대만으로 설정되었으므로 앞으로의 면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

영남지역에서 청동기시대 전기로 편년되는 미사리유형과 가락동유형은 위

에서 살펴보았듯이 몇몇의 유적이 확인된다. 미사리유형으로는 사촌 본촌리 나-3호주거지, 산청 소남리 85호·142호, 진주 상촌리 2호·10호주거지, 옥방 5지구 D-2호·D-9호, 어은 1지구 77호·107호·118호, 김천 송죽리 30호 등에서 확인되었으며, 가락동유형으로는 청도 진라리 8호·10호주거지, 상동 I-9호주거지, 밀양 금천리 11호 등 다수의 주거지가 여기에 속하며, 이들 주거지는 영남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청동기시대 주거지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역삼동유형과 혼암리유형은 어떻게 분포하는가?

이형원은 역삼동·혼암리유형 IV기(B.C. 10세기~B.C. 9세기)와 송국리유형과 연결시키고 있지만, 이 단계의 영남지역에서는 아직 송국리문화와 역삼동·혼암리유형의 문화적접변을 보이진 않는다. 그 다음단계에 비로써 영남서남단지역과 대구를 중심으로 한 영남내륙지역에서 공열토기문화와 송국리토기문화의 접변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울산-경주-포항을 중심으로 한 영남동남단 지역까지는 송국리토기문화의 영향이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sup>32)</sup>. 이는 지형적인 영향도 있지만, 재지문화의 保守性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

그로 인하여 이 지역에 대한 시기의 하한이 중기초로 편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지만 최근 이 문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기존의 전기말, 중기초로 편년되던 유적의 하한이 중기 후반까지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부각되고 있으며<sup>33)</sup>, 이 지역을 중심으로 檢丹里類型<sup>34)</sup>의 설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32) 안재호는 송국리문화 유형의 유적은 남한 전역을 범위로 천안-대구-경주를 연결한 경계선을 경계로 남쪽에만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필자도 여기에 동감하지만, 이는 편년된 발굴조사로 기인했을 가능성도 있다. 최근 상주 봉룡동유적에서 송국리형주거지가 확인되는 등 영남북부내륙지역과 대구와 인접한 영남동남단지역으로 자료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安在皓, 「松菊里類型的 檢討」, 『嶺南考古學』 11, 영남고고학회, 1992, p.p. 2~7.

박달석, 2004, 「상주 봉룡동유적 발굴조사」, 『통일신라시대의 고고학』, 제28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한국고고학회.

33) 金榮珉, 「蔚山 蓮岩洞型 住居址 檢討」, 『蔚山研究』, 2, 2000.

송만영, 앞의 논문, 2001.

董眞淑, 앞의 논문, 2003.

黃炫眞, 『嶺南地域의 無文土器時代 地域性研究』, 釜山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4.

李秀鴻, 「檢丹里式土器의 時空間的 位置와 性格에 대한 一考察」, 『嶺南考古學』, 36, 2005.

34) 安在皓, 앞의 논문, 2005.

## II. 石鏃 出土 遺蹟 紹介

### 1. 嶺南內陸地域

#### 1) 대구 팔달동유적<sup>35)</sup>

유적은 대구분지를 북쪽에서 감싸 도는 금호강과 그 한 지류인 팔계천이 합류하는 지점의 구릉에 위치한다. 이 구릉은 칠곡분지를 동쪽에서 감싸 안은 함지산의 남쪽 말단부에 해당하며 남쪽으로 금호강과 대구분지가 한 눈에 조망되는 곳이기도 하다. 유적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주거지는 구릉정상부에 3동, 남사면에 12동, 동사면에 4동으로 총 19동이다. 이 중 石鏃이 출토된 주거지는 2호·10호·13호·14호, 15호 등 총 10점이 출토되었으며, 분석대상에 포함된 石鏃의 수량은 5점이다.

#### 2) 대구 동천동유적<sup>36)</sup>

유적은 대구분지 북쪽을 흐르고 있는 팔계천과 팔공산 지맥에 의해 형성된 칠곡분지의 한지점으로 팔계천 동쪽의 범람원지대에 위치한다. 하천이 인접한 까닭에 청동기시대층은 계속적인 침식으로 상당부분의 유적이 훼손되었으며, 동쪽으로는 삼국시대 하도가 흐르며, 남서쪽으로는 청동기시대의 하도가 흐르고 있다. 청동기시대층은 남북으로 300m, 동서로 150m의 폭을 가진 섬처럼 남아 있다. 청동기시대 유구는 유적 전체에 확인되는데, 주거지, 고상건물지, 수혈, 우물 등은 중간에서 북쪽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남쪽으로는 경작지로 추정되는 구와 집수지가 위치한다. 석관묘는 주거지역 외곽에 원형상으로 분포한다. 주거지는 전체 60동 중, 송국리형의 원형, 말각방형이 47동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외에 爐址를 가진 장방형, 방형주거지들이 있다. 이 중 石鏃이 출토된 주거지는 3호, 12호, 13호, 26호, 27호, 30호, 32호, 33호, 36호, 37호, 53호 등 총 17점이 출토되었으며, 분석대상에 포함된 石鏃의 수량은 14점이다.

#### 3) 대구 상동유적<sup>37)</sup>

유적은 대구분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신천 주변 평지에 위치한다. 상동

35) 유병록, 「대구 팔달동 청동기시대 주거유적에 대하여」, 『제 8회 영남문화재연구원조사연구발표회』, 1998.

36) 嶺南文化財研究院, 『大邱 東川同聚落遺蹟』, 2002.

37)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大邱 上洞遺蹟發掘調査報告書』, 2002

\_\_\_\_\_, 『대구 수성초등학교 부지내 上洞유적발굴조사보고서』, 2004.

우방아파트 건축부지내(구. 정화여중고부지)에서 2000년도 조사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15동, 2001년 조사에서 5동이 조사되었다. 이외 청동기시대 유구로는 수혈 6기, 매장유구 6기가 조사되었다. 石鏃은 2001년도에 조사된 1호주거지에서 1점이 출토되었으며, 분석대상은 1점이다.

4) 대구 서변동유적<sup>38)</sup>

대구분지를 관통하는 금호강과 그 지류인 동화천이 합류하는 지점의 서편 평야지대에 입지한다. 주거지 49동, 고상건물지 3동이 조사되었다. 石鏃은 6호, 18호, 29호, 41호, 46호주거지 등 총 7점이 출토되었으며, 분석대상에 포함된 石鏃의 수량은 6점이다.

5) 대구 송현동유적<sup>39)</sup>

금호강과 낙동강이 합류하는 대부분지 사이에 위치하는 곳으로 동쪽으로 넓게 펼쳐진 달서평야의 중앙에 형성된 해발 140m 가무내산의 남쪽으로 뻗어 나온 소구릉에 위치한다. 주거지 14동이 조사되었다. 石鏃은 1호, 2호, 3호, 4호, 5호주거지 등 총 14점이 출토되었으며, 분석대상에 포함된 石鏃의 수량은 6점이다.

6) 청도 진라리유적<sup>40)</sup>

유적은 다로천의 지류인 덕암천과 안인천이 합류하는 협곡평야의 중앙부에 해당한다. 수혈주거지 93동, 고상건물지 4동, 지석묘 5기, 지석묘 상석 4기, 수혈유구 22기, 야외노지 5기, 구상유구 3기가 조사되었다. 石鏃은 1호, 3호, 10호, 71호, 93호주거지 등 총 5점이 출토되었으며, 분석대상에 포함된 石鏃의 수량은 2점이다.

7) 합천 저포E지구유적<sup>41)</sup>

유적은 합천군 봉산면에 소재하며, 해발 160m의 능선상에 위치한다. 주거지 7동, 지석묘 8기와 토광 1기 등 모두 9기의 무덤이 조사되었다. 石鏃은 2호, 3호, 4호 주거지 등 총 5점이 출토되었으며, 분석대상에 포함된 石鏃의 수량은 4점이다.

8) 합천 봉계리유적<sup>42)</sup>

---

38) 嶺南文化財研究院, 『大邱 西邊洞聚落遺蹟』, 2002.

39)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 博物館, 『大邱 松峴洞 先史遺蹟』, 2002.

40) 嶺南文化財研究院, 『淸道 陳羅里遺蹟』, 2005.

41) 釜山大學校博物館, 『陝川 苧浦里 E地區遺蹟』, 1987.

42) 東亞大學校博物館, 『陝川 鳳溪里遺蹟』, 1989.

유적은 합천군 봉산면에 소재하며, 유적이 위치한 대지는 북서쪽 거창지방에 흘러 남동쪽 낙동강으로 들어가는 황강의 중류지역에 형성된 사구이다. 신석기시대 주거지 13동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3동, 통일신라시대, 조선시대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石鏃은 13호주거지에서 1점이 출토되었으며, 분석대상에 포함된 石鏃의 수량은 1점이다.

9) 거창 대야리유적<sup>43)</sup>

유적은 경남 거창군 남하면에 소재하며, 합천댐 수몰지역 내 유적이다. 청동기시대 주거지 20동이 조사되었다. 石鏃은 1호, 9호, 11호, 15호주거지 등 총 11점이 출토되었으며, 분석대상에 포함된 石鏃의 수량은 6점이다.

2. 嶺南東南端地域

1) 영천 청정리유적<sup>44)</sup>

유적은 경북 영천시 고경면에 소재하며, 영천에서 포항과 경주 분기점의 동쪽 오류골 마을과 그 남쪽에 위치한 셋터 마을 사이의 구릉지 일대에 해당한다. 청동기시대 주거지 6동이 조사되었다. 石鏃은 2호, 3호, 4호주거지 등 총 5점이 출토되었으며, 분석대상에 포함된 石鏃의 수량은 4점이다.

2) 포항 초곡리유적<sup>45)</sup>

유적은 포항시 흥해읍에 소재하며, 흥해 평야와 영일만의 바닷가를 끼고 있는 지리적 위치와 동해안을 따라 경주지역으로 들어서는 교통로상의 구릉 정상부와 사면에 위치한다.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 17동, 구상유구 3기, 굴립주 건물지 1동이 조사되었다. 石鏃은 2호, 3호, 5호, 12호, 15호, 16호주거지 등 총 9점이 출토되었으며, 분석대상에 포함된 石鏃의 수량은 6점이다.

3) 포항 대련리유적<sup>46)</sup>

유적은 포항시 흥해읍에 소재하며, 포항과 흥해읍 사이를 가르는 산지에서 북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의 말단부에 해당하는 구릉성 사면의 말단에 형성되어 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 16동, 구상유구 3기가 조사되었다. 石鏃은 4-1호, 4-2호, 10호, 11호, 14호, 15호주거지 등 총 15점이 출토되었으며, 분석대상에

43) 東義大學校博物館, 『大也里住居址Ⅰ』, 1988.  
\_\_\_\_\_, 『大也里住居址Ⅱ』, 1987.

44) 嶺南文化財研究院, 『永川 淸亭里遺蹟』, 2001.

45) 嶺南文化財研究院, 『浦項 草谷里遺蹟』, 2000.

46) 嶺南大學校博物館, 『浦項 大蓮里遺蹟』, 2001.

포함된 石鏃의 수량은 3점이다.

4) 포항 원동 제3지구유적<sup>47)</sup>

유적은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소재하며, 대송면 운제산에서부터 북동쪽 영일만으로 길게 이어지는 구릉지대에서 다시 냉천쪽으로 사이사이에 협곡평야를 만들며 비교적 짧게 여러 갈래로 뻗어 내리는 해발 38-40m의 구릉상의 비교적 평탄한 대지에 위치한다. 토지구획정리지구내 3지구 4구역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14동, 구 1기가 조사되었다. 石鏃은 3호, 9호, 10호주거지 등 총 6점이 출토되었으며, 분석대상에 포함된 石鏃의 수량은 6점이다.

5) 경주 송선리유적<sup>48)</sup>

유적은 건천읍을 남서쪽에서 둘러싸고 단석산에서 동쪽으로 뻗어 내린 사면 말단부의 사면에 위치한다. 유적 북서쪽은 건천천이 남에서 북으로 흘러 대천과 합류하면서 형성된 충적평야가 펼쳐져 있다. 주거지는 유적내에서도 비교적 완만한곳에 분포하며 모두 12동이 조사되었다. 이 중 石鏃은 1호, 9호주거지 등 총 29점이 출토되었으며, 분석대상에 포함된 石鏃의 수량은 19점이다.

6) 경주 인동리유적<sup>49)</sup>

유적은 경주시 강동면에 소재하며, 대미산에서 남쪽으로 뻗은 능선의 서쪽 사면에 해당한다. 청동기시대 주거지 6동이 조사되었다. 분석대상에 포함된 石鏃은 5호주거지 출토품 1점이다.

7) 경주 충효동유적<sup>50)</sup>

유적은 경주분지 서편의 경주시 충효동에 소재하며, 선도산과 송화산 사이에 형성된 곡저평야에 위치한다. 유적의 동쪽으로는 형산강이 남에서 북으로 흘러간다. 石鏃은 1호, 2호, 4호주거지 등 총 6점이 출토되었으며, 분석대상에 포함된 石鏃의 수량은 6점이다.

8) 경주 황성동유적<sup>51)</sup>

유적은 형산강과 경주분지를 동에서 서로 관통하는 북천이 만나는 삼각점의

47) 韓國文化財保護財團, 『浦項 院洞 第3地區遺蹟-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2003.

48) 嶺南文化財研究院, 『慶州 松仙里遺蹟』, 2005.

49) 中央文化財研究院, 『慶州 仁東里遺蹟』, 2004.

50) 韓國文化財保護財團, 『慶州 忠孝洞 44-3番地 共同住宅 新築敷地內 文化遺蹟 試·發掘調査 報告書』, 2005.

51) 國立慶州博物館, 『慶州 隍城洞遺蹟 I, II』, 2000.

慶北大學校博物館, 『慶州 隍城洞遺蹟III, IV』, 2000.

啓明大學校博物館, 『慶州 隍城洞遺蹟V』, 2000.

북동편 강변가 충적지대상에 위치한다. 대지는 평탄하나 남쪽과 서쪽으로 약간씩 경사진다. 주거지는 대체로 장방형계통의 것으로 장축방향이 강의 흐름과 일치한다. 조사된 주거지는 모두 28동이며, 이 중 石鏃이 출토된 주거지는 1호, I-다-13호·14호, II-다-1호·2호·3호·8호·9호, II-라-1호·8호·9호 등 총 24점이 출토되었으며, 분석대상에 포함된 石鏃의 수량은 11점이다.

9) 경주 황성동 강변로 유적<sup>52)</sup>

유적은 위의 황성동유적 서쪽에 인접하고 있어 동일시기의 취락으로 보일 것이다. 조사된 주거지는 모두 9동이며, 이 중 石鏃이 출토된 주거지는 6호, 8호 등 총 2점이 출토되었으며, 분석대상에 포함된 石鏃의 수량은 2점이다.

10) 경주 석장동유적<sup>53)</sup>

유적은 경주분지의 북서쪽에 위치하며 현재 경주분지의 북쪽과 서쪽을 흐르는 북천과 서천이 합류하는 지점의 서쪽 대안에 형성된 얇은 구릉의 남사면에 소재한다. 조사된 주거지는 모두 11동이며, 이 중 석축은 3호, 6호주거지 등 총 2점이 출토되었으며, 분석대상에 포함된 石鏃의 수량은 2점이다.

11) 경주 천군동 피막유적<sup>54)</sup>

유적은 경주분지 동쪽의 명활산과 그 남쪽의 형제봉 사이의 구릉사면과 곡간평지에 위치한다. 주거지는 나지역에 1동, 라지역에 4동이 조사되었다. 石鏃은 □□라□□지역 1호주거지 등 총 1점이 출토되었으며, 분석대상에 포함된 石鏃의 수량은 1점이다.

12) 경주 손곡동·물천리유적<sup>55)</sup>

유적은 경주시 천북면 손곡동·물천리에 소재하며, 이 일대는 경주분지 동쪽의 해발 100여m의 완만한 구릉지대에 해당한다. 주거지가 확인되는 곳은 구릉의 정상부에 가까운 평탄지와 완경사면에 위치한다. 주거지는 모두 11동이며 대개 장방형계로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조되어 있다. 이 중 石鏃이 출토된 주거지는 2호, 8호 등 총 3점이 출토되었으며, 분석대상에 포함된 石鏃의 수량은 3점이다.

52) 韓國文化財保護財團, 『慶州 隍城洞遺蹟-강변로 개설구간 발굴조사 보고서-』, 2003.

53)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 博物館, 『錫杖洞遺蹟』, 1996.

\_\_\_\_\_ , 『錫杖洞遺蹟Ⅱ』, 1998.

\_\_\_\_\_ , 『錫杖洞遺蹟Ⅲ·王京遺蹟Ⅰ』, 2002.

54) 國立慶州博物館·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慶州 千軍洞 避幕遺蹟』, 1996.

55)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慶州 蓀谷洞·勿川里遺蹟-慶州競馬場豫定敷地 A地區-』, 2004.

13) 경주 봉길리유적<sup>56)</sup>

유적은 경주시 양북면에 소재하며, 동해바다를 마주보는 구릉의 동쪽사면에 위치한다. 주거지는 모두 14동으로 주로 구릉 능선부를 중심으로 상하로 분포한다. 이 중 石鏃이 출토된 주거지는 10호이며, 石鏃은 2점 출토되었다.

14) 경주 봉길리유적<sup>57)</sup>

유적은 경주시 양북면에 소재하며, 동해안을 마주보는 해발 384m의 우산 동쪽 말단부에 해당한다. 청동기시대 주거지 2동이 조사되었다. 石鏃은 2호주거지에서 1점 출토되었다.

15) 경주 월산리유적<sup>58)</sup>

유적은 경주분지에서 울산방향으로 가는 좁은 곡간평지 서쪽의 해발 354m의 주사산의 동사면 말단 경사면에 위치한다. 청동기시대 주거지 46동, 수혈유구 2기가 조사되었다. 이 중 石鏃이 출토된 주거지는 A-6호, B-2호·4호·11호, 12호·13호, 17호·19호·27호·32호·34호·35호·37호 등 총 18점이 출토되었으며, 분석대상에 포함된 石鏃의 수량은 6점이다.

16) 경주 월산리유적Ⅱ<sup>59)</sup>

유적은 (14)번 유적이 위치한 구릉사면과 평지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다. 유적 동쪽에는 형산강의 범람에 의한 넓은 충적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주거지는 3동이 조사되었으며, 石鏃은 1호주거지에서 1점 출토되었으며 분석대상에 포함된다.

17) 울산 봉계리유적<sup>60)</sup>

유적은 형산강의 상류유역으로 경주에서 언양으로 통하는 울산광역시 두동면 봉계리의 동쪽구릉사면에 위치한다. 유적 서쪽으로는 형산강이 북으로 흘러 동쪽으로 굽이쳐 흐른다. 주거지는 모두 19동으로 구릉의 비교적 완경사면에 입지한다. 이 중 石鏃이 출토된 주거지는 I-1호·4호, 7호·8호, II-1호·3호·4호, 6호·8호 등 총 28점이 출토되었으며, 분석대상에 포함된 石鏃의 수량은 13점이다.

18) 울산 신현동 황토전유적<sup>61)</sup>

56) 嶺南文化財研究院, 『慶州 奉吉里遺蹟』, 2005.

57) 蔚山大學校博物館, 『경주봉길리고분군 I』, 2000.

58)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慶州月山里遺蹟』, 2003.

59) 蔚山大學校博物館, 『蔚山 大安里遺蹟 부록:慶州 月山里Ⅱ遺蹟』, 2002.

60) 嶺南大學校博物館, 『蔚山 鳳溪里遺蹟』, 2000.

유적은 울산 북구에 소재하며, 무룡산에서 동쪽으로 뻗은 여러 갈래의 구릉 가운데 적은물용산에서 북동쪽으로 뻗어 내린 구릉에 위치한다. 청동기시대 주거지 34동, 석관묘 2기, 구 2기가 조사되었다. 石鏃은 2호 8호, 10호, 15호, 17호, 18호, 20호, 27호, 31호, 33호주거지 등 총 14점이 출토되었으며, 분석대상에 포함된 石鏃의 수량은 11점이다.

#### 19) 울산 연암동유적<sup>62)</sup>

유적은 울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하며, 울산에서 35번 국도를 따라 경주로 이어지는 도로변상의 저평한 충적대지가 형성된 곳이다. 청동기시대 주거지 6동이 조사되었다. 石鏃은 1호, 2호, 3호주거지 등 총 3점이 출토되었으며, 분석대상에 포함된 石鏃의 수량은 3점이다.

#### 20) 울산 화정동유적<sup>63)</sup>

유적은 울산만 북쪽의 소구릉 남사면에 위치하며, 바다와는 직선거리로 4km 정도 떨어져 있다. 유적은 배후산지에서 발원한 소하천이 바다와 접하는 중간 지점에 해당한다. 주거지는 모두 14동(울산대 9동, 울문연 5동), 수혈1기, 구1기가 조사되었다. 石鏃은 1호, 15호주거지 등 총 2점이 출토되었으며, 분석대상에 포함된 石鏃의 수량은 2점이다.

#### 21) 울산 대안리유적<sup>64)</sup>

유적은 울산의 온양지역에 위치하며 울산의 남쪽경계로 부산의 기장면과 접한다. 용곡산의 북서쪽 사면에 형성되어 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 7동, 구 2기가 조사되었다. 石鏃은 1호, 4호, 5호주거지 등 총 4점이 출토되었으며, 분석대상에 포함된 石鏃의 수량은 3점이다.

#### 22) 울산 두왕동유적<sup>65)</sup>

유적은 남쪽에 울산과 부산을 잇는 국도14호선이 지나가고, 북쪽에는 田畵으로 경작되고 있는 ‘서쪽골’이 위치하며, 동쪽에는 작은 도랑과 두왕천이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흐르고 있고, 서쪽에는 낮으막한 능선이 뻗어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 4동이 조사되었다. 石鏃은 3호주거지에서 2점이 출토되었으며, 분석대상에 포함된 石鏃의 수량은 1점이다.

61) 蔚山文化財研究院, 『蔚山 新峴洞 黃土田遺蹟』, 2003.

62) 蔚山大學校博物館, 『울산 연암동유적 부록:울산 화정동유적』, 2001.

63) 蔚山文化財研究院, 『蔚山 華亭洞遺蹟』, 2004.

64) 蔚山大學校博物館, 『蔚山 大安里遺蹟 부록:慶州 月山里Ⅱ遺蹟』, 2002.

58) 中央文化財研究院, 『蔚山 斗旺-無去間 道路擴裝區間內 遺蹟 發掘調查報告書』, 2004.

23) 울산 다운동유적 마구역<sup>66)</sup>

유적은 다운동에서 경주 외동으로 연결되는 구조곡의 입구에 위치한다. 청동기시대 주거지 4동이 조사되었다. 石鏃은 1호, 4호주거지에서 총 2점이 출토되었으며, 분석대상에 포함된 石鏃의 수량은 2점이다.

24) 울산 구수리유적<sup>67)</sup>

유적은 울주군 언양읍의 동단에 위치하며, 행정구역상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에 소재한다. 대천 동편의 해발 136m 구릉 북사면에 위치한다. 청동기시대주거지 28동이 조사되었다. 石鏃은 B-4호주거지에서 1점이 출토되었으며 분석대상에 포함된다.

25) 울산 구수리유적<sup>68)</sup>

유적은 가지산에서 발원하여 언양을 지나 울산으로 흘러드는 태화강을 배경으로 형성되었으며 울산과 언양의 중간지점에 위치한다. 청동기시대주거지 6동, 구 1기가 조사되었다. 石鏃은 2호, 4호주거지에서 총 4점이 출토되었으며, 분석대상에 포함된 石鏃의 수량은 1점이다.

26) 울산 구영리유적<sup>69)</sup>

유적은 태화강을 따라 형성된 충적대지상으로 뺨어 내려오는 소구릉에 위치한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에 소재한다. 청동기시대 주거지 13동이 조사되었다. 石鏃은 2호, 7호주거지에서 총 2점이 출토되었으며, 분석대상에 포함된 石鏃의 수량은 2점이다.

27) 울산 천상리유적<sup>70)</sup>

유적은 행정구역상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면 천상리에 위치한 해발 30-55m의 나지막한 소구릉의 정상부와 사면에 걸쳐 분포한다. 청동기시대 유구는 주거지 43동, 환호 1기, 구상유구 2기 등 총 46기이다. 石鏃은 2호, 22호, 28호, 30호, 33호, 35호 주거지 등 총 9점이 출토되었으며, 분석대상에 포함된 石鏃의 수량은 7점이다.

28) 울산 검단리유적<sup>71)</sup>

66)蔚山發展研究院,『蔚山 茶雲洞마區域遺蹟』,2003.

67)蔚山發展研究院,『蔚山 九秀里 遺蹟』,2003.

68)蔚山大學校博物館,『국도24호선(울산-언양)확·포장구간내유적-蔚山 屈火里·栢川·九秀里遺蹟』,2005.

69)慶南大學校博物館,『蔚山 九英里遺蹟』,2004.

70)嶺南文化財研究院,『蔚山 川上里遺蹟』,2002.

71)釜山大學校博物館,『蔚山 檢丹里마을遺蹟』,1995.

유적은 울산시 웅촌과 양산군 용당 사이에, 동-서로는 회야강과 곡천천 사이에 북동-남서향으로 길게 연결되는 독립된 산 능선의 중앙부에 있는 해발 206.4m 고지의 서쪽구릉에 위치한다. 확인된 청동기시대 유구는 주거지 92동, 환호 1기, 지석묘 3기, 구 13기, 수혈 3기 등이다. 石鏃은 3호, 8호, 9호, 10호, 11호, 13호, 18호, 21호, 22호, 26호, 29호, 36호, 39호, 45호, 47호, 49호, 50호, 69호, 77호, 89호주거지 등 총 45점이 출토되었으며, 분석대상에 포함된 石鏃의 수량은 37점이다.

#### 29). 울산 방기리유적<sup>72)</sup>

유적은 울산시 삼남면의 해발 1,059m의 영취산에서 동향으로 뺏어내린 구릉말단부에 해당한다. 조사된 청동기시대유구는 주거지 49동 환호 1기가 조사되었다. 石鏃은 10호, 12호, 14호, 15호, 18호, 30호, 31호, 38호, 46호주거지 등 총 12점이 출토되었으며, 분석대상에 포함된 石鏃의 수량은 8점이다.

#### 30) 양산 신평유적<sup>73)</sup>

유적은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지내리 일대의 영취산 동쪽자락에 해당하는 야트막한 구릉에 넓게 조성되어 있는 대규모의 청동기시대 취락이다. 주거지는 A지구에 20동, B지구에 1동, 석관묘 1기가 확인되었다. 石鏃은 A-2호, 4호, 15호, B-1호주거지 등 총 5점이 출토되었으며, 분석대상에 포함된 石鏃의 수량은 4점이다.

#### 31) 부산 노포동유적<sup>74)</sup>

유적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금정산 정상부와 동쪽의 수영강 상류사이에 강쪽에 접해 있는 해발 125m의 낮은 야산의 북쪽 끝 부분에 위치한다. 주거지는 2동이 확인되었으며, 2호주거지에서 石鏃이 1점 출토되었으며 분석대상에 포함된다.

### 3. 嶺南西南端地域

#### 1) 진주 대평리 옥방1지구유적<sup>75)</sup>

유적은 남강댐 수몰지구내에 위치하며 국립진주박물관과 경남고고학연구소

72) 國立昌原大學校博物館, 『蔚山 芳基里 青銅器時代聚落』, 2003.

73) 釜山大學校博物館, 『梁山 新平遺蹟』, 2000.

74) 釜山大學校博物館, 『釜山 老圃洞遺蹟』, 1988.

75) 慶南考古學研究所, 『晉州 大坪 玉房1·9地區無文時代聚落』, 2002.

國立晉州博物館·慶尙南道, 『晉州 大坪里 玉房1地區遺蹟』, 2001.

에 의해 연차적으로 조사된 지역으로 남강수계가 곡류하는 東岸에 장기간 퇴적된 충적지대에 위치한다. 유구는 경남고고고학연구소에서 청동기시대주거지 70동, 지석묘 및 석관묘 41기, 환호 4기, 야외노지 35기, 요지 5기, 고상건물 5동, 작업장 3기, 석열유구 및 집석유구 3기, 수혈유구 361기, 구상유구 112기 등 총 640기가 조사되었으며, 국립진주박물관에서 주거지 15동, 밭 2개소, 노지 18기, 유물폐기장 4개소, 구 28기, 주혈군 3기, 수혈유구 94기, 석관묘 169기 등이 조사되었다. 石鏃은 1호, 3호, 4호, 9호, 13호, 14호, 15호, 18호, 21호, 33호주거지(경남고고고학연구소) 1호, 4호, 5호, 7호, 8호, 10호, 13호, 15호주거지(진주박물관) 등 총 55점이 출토되었으며, 분석대상에 포함된 石鏃의 수량은 24점이다.

2) 진주 대평리 옥방2지구유적<sup>76)</sup>

유적은 남강의 지류인 경호강이 크게 굽이치면서 형성된 반월대지의 남쪽 하옥방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 20동, 수혈, 집석, 구 99기의 생활유구와 석관묘, 토광묘 등의 매장유구 31기와 함께 경작지가 확인되었다. 石鏃은 12호, 13호, 16호, 21호, 22호주거지 등 총 12점이 출토되었으며, 분석대상에 포함된 石鏃의 수량은 4점이다.

3) 진주 대평리 옥방3지구유적<sup>77)</sup>

유적은 남강의 지류인 경호강이 크게 굽이치면서 형성된 반월대지의 서쪽 하옥방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청동기시대주거지 10동, 수혈, 구의 생활유구와 경작지가 조사되었다. 石鏃은 20호, 24호, 27호, 30호주거지 등 총 6점이 출토되었으며, 분석대상에 포함된 石鏃의 수량은 4점이다.

4) 진주 대평리 옥방9지구유적<sup>78)</sup>

유적은 남강의 지류인 경호강이 크게 굽이치면서 형성된 반월대지의 남쪽 하옥방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청동기시대주거지 10동, 구 1기, 수혈 33기, 수전 1개소가 조사되었다. 石鏃은 16호, 26호, 32호, 33호주거지 등 총 6점이 출토되었으며, 분석대상에 포함된 石鏃의 수량은 5점이다.

5) 진주 상촌리유적<sup>79)</sup>

유적은 남강의 지류에 의해 형성된 충적지대에 위치한다. 상촌리유적은 여

76) 慶尙大學校博物館·慶尙南道, 『晉州 大坪里 玉房2地區 先史遺蹟』, 1999.

77) 慶尙大學校博物館·慶尙南道, 『晉州 大坪里 玉房3地區 先史遺蹟』, 2001.

78) 慶南考古學研究所, 『晉州 大坪 玉房1·9地區無文時代聚落』, 2002.

79) 漢陽大學校博物館·慶尙南道, 『晉州 上村里 2號 支石墓 및 先史遺蹟』, 1999.

러 기관에 의해 발굴조사가 진행되었지만 보고서가 발간된 유적C의 자료만 다루었다. 청동기시대 유구는 주거지 11동, 지식묘 1기, 석관묘 3기이다. 石鏃은 1호, 2호, 4호, 7호, 8호, 9호, 11호주거지 등 총 13점이 출토되었으며, 분석 대상에 포함된 石鏃의 수량은 8점이다.

6) 진주 귀곡동 대촌유적<sup>80)</sup>

유적은 남강댐 수몰지구 유적내에 위치하며, 진양호로 인해 독립된 지역으로 서북방향으로 길게 뻗은 해발 95m 야산에서 갈라진 저구릉상의 사면에 입지한다. 청동기시대 주거지 12동, 지식묘 3기, 석관묘 9기가 조사되었다. 石鏃은 1호, 3호, 9호, 12호주거지 등 총 7점이 출토되었으며, 분석대상에 포함된 石鏃의 수량은 2점이다.

7) 산청 사월리유적<sup>81)</sup>

유적은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에 속하며, 지리산에 속한 석대산 자락과 산청에서 진주를 향해 흐르는 남강을 사이에 두고 형성된 충적지대에 솟아 있는 해발 58.6m의 나지막한 구릉상에 입지한다. 청동기시대유구로는 주거지 19동, 수혈 11기, 구상유구 2기, 지식묘 11기가 조사되었다. 石鏃은 3호, 5호, 6호, 7호, 9호, 10호, 11호, 15호, 18호주거지 등 총 19점이 출토되었으며, 분석대상에 포함된 石鏃의 수량은 7점이다.

8) 산청 사월리환호유적<sup>82)</sup>

유적은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배양마을의 서쪽에서 북동-남서방향으로 마을을 감싸고 있는 구릉 북동쪽의 평탄한 정상부에 위치한다. 청동기시대유구로는 주거지 10동, 수혈 10기, 환호 1기, 석관묘 2기 등이다. 石鏃은 3호, 4호주거지에서 총 4점이 출토되었으며, 분석대상에 포함된 石鏃의 수량은 3점이다.

이상 각 지역 유적의 주거지에서 출토된 석촉의 목록은 <표 3>과 같다.  
(유적의 위치는 <도 1> 참조).

80) 釜山廣域市立博物館 福泉分館, 『晉州 貴谷洞 대촌遺蹟』, 1998.

81) 東義大學校博物館, 『山淸 沙月里遺蹟』 1999.

82) 釜慶大學校博物館, 『山淸 沙月里環濠遺蹟』, 1998.

<표 3>영남지역 마제석축 출토유적 일람표

지역구분	연번	유적명	주거지	조사기관(보고서 발행년도)	분석대상 석축(점)
영남내륙지역	1	대구 팔달동유적	주거지 19동	영남문화재연구원(1998)	5
	2	대구 동천동유적	주거지 60동	영남문화재연구원(2002)	14
	3	대구 상동유적	주거지 20동	경북문화재연구원(2002)	1
	4	대구 서변동유적	주거지 49동	영남문화재연구원(2002)	6
	5	대구 송현동유적	주거지 14동	동국대학교박물관(2002)	6
	6	청도 진라리유적	주거지 93동	영남문화재연구원(2005)	2
	7	합천 저포리 E지구유적	주거지 7동	부산대학교박물관(1987)	4
	8	합천 봉계리유적	주거지 3동	동의대학교박물관(1989)	1
	9	합천 대야리유적	주거지 20동	동의대박물관(1988, 1989)	6
영남동남단지역	10	영천 천정리유적	주거지 6동	영남문화재연구원(2001)	4
	11	포항 초곡리유적	주거지 17동	영남문화재연구원(2000)	6
	12	포항 대련리유적	주거지 16동	영남대학교박물관(2001)	3
	13	포항 원동 제 3지구 유적	주거지 14동	한국문화재보호재단(2003)	6
	14	경주 송선리유적	주거지 12동	영남문화재연구원(2005)	19
	15	경주 인동리유적	주거지 6동	중앙문화재연구원(2004)	1
	16	경주 충효동유적	주거지 5동	한국문화재보호재단(2005)	6
	17	경주 황성동유적	주거지 9동	계명대학교박물관(2000)	7
		경주 황성동유적	주거지 19동	경북대학교박물관(2000)	4
	18	경주 황성동 강변로유적	주거지 9동	한국문화재보호재단(2003)	2
	19	경주 석장동유적	주거지 11동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1998)	2
	20	경주 천군동 피막유적	주거지 5동	국립경주박물관(1999)	1
	21	경주 손곡동·물천리유적	주거지 11동	국립문화재연구소(2004)	3
	22	경주 봉길리유적	주거지 14동	영남문화재연구원(2005)	2
	23	경주 봉길리유적	주거지 2동	울산대학교박물관(2000)	1
	24	경주 월산리유적	주거지 46동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2003)	6
	25	경주 월산리Ⅱ유적	주거지 3동	울산대학교박물관(2002)	1
	26	울산 봉계리유적	주거지 19동	영남대학교박물관(2000)	13
	27	울산 신현동 황토전유적	주거지 34동	울산문화재연구원(2003)	11
	28	울산 연암동유적	주거지 6동	울산대학교박물관(2001)	3
	29	울산 화정동유적	주거지 5동	울산문화재연구원(2004)	1
		울산 화정동유적	주거지 9동	울산대학교박물관(2001)	1
	30	울산 대안리유적	주거지 7동	울산대학교박물관(2002)	3
	31	울산 두왕동유적	주거지 4동	중앙문화재연구원(2004)	1
	32	울산 다운동유적 마구역	주거지 4동	울산발전연구원(2003)	2
	33	울산 구수리유적	주거지 28동	울산발전연구원(2004)	1
	34	울산 구수리유적	주거지 6동	울산대학교박물관(2005)	1
	35	울산 구영리유적	주거지 13동	경남대학교박물관(2004)	2
	36	울산 천상리유적	주거지 43동	영남문화재연구원(2003)	7
	37	울산 검단리유적	주거지 92동,	부산대학교박물관(1995)	37
	38	울산 방기리유적	주거지 49동	창원대학교박물관(2003)	8
	39	양산 신평유적	주거지 21동	부산대학교박물관(2000)	4
40	부산 노포동유적	주거지 2동	부산대학교박물관(1988)	1	
영남서남단지역	41	진주 대평리 옥방1지구유적	주거지 15동	국립진주박물관(2001)	18
		진주 대평리 옥방1지구유적	주거지 70동	경남고고학연구소(2002)	6
		진주 대평리 옥방2지구유적	주거지 20기	경상대학교박물관(1999)	4
		진주 대평리 옥방3지구유적	주거지 10기	경상대학교박물관(2001)	4
		진주 대평리 옥방9지구유적	주거지 10동	경남고고학연구소(2002)	5
	42	진주 상촌리유적	주거지 11동	한양대학교박물관(1999)	8
	43	진주 귀곡동 대촌유적	주거지 12동	부산시립박물관 복천분관(1998)	2
44	산청 사월리유적	주거지 19동	동의대학교박물관(1999)	7	
45	산청 사월리환호유적	주거지 10동	부경대학교박물관(1998)	3	
총계	45				272

### Ⅲ. 製作과 用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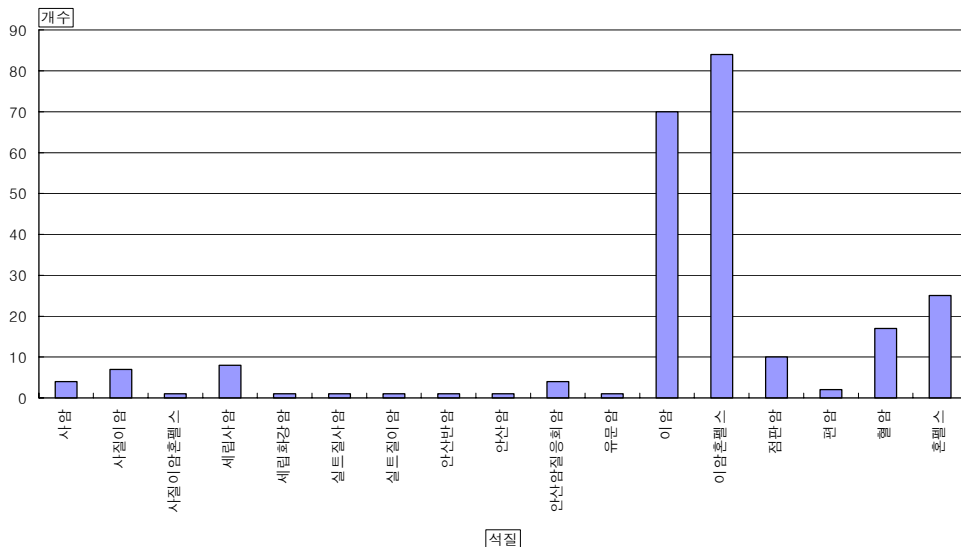
#### 1. 製作

##### 1) 石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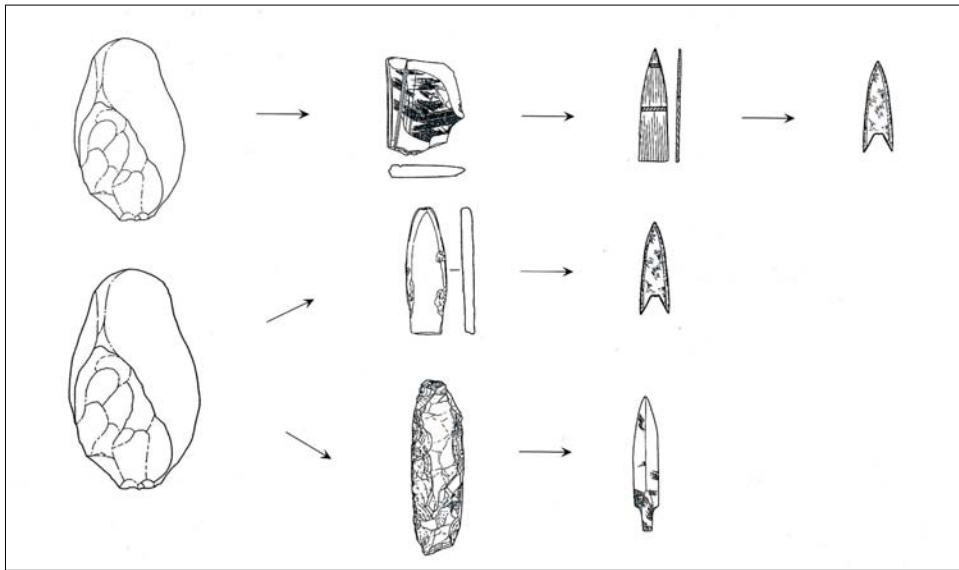
石鏃은 수렵구와 무기로 사냥을 하거나 부족 간의 전쟁을 수행할 때 무기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하여 석촉은 동물 혹은 적에게 강력한 타격을 주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하며, 다른 석기에 비해 전문적인 제작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석질의 선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고의 분석대상인 272점의 石鏃 중 재질감정이 이루어진 것은 238점이다. 石鏃제작에 이용된 석질은 17가지로 구분된다. <표 4>과 같이 泥巖혼펠스 84점, 泥巖 70점, 혼펠스(hornfels) 25점, 頁巖 17점, 粘板巖 10점, 細粒砂巖 8점, 砂質泥巖 7점, 砂巖과 安山巖質凝灰巖이 각각 4점, 片巖 2점 순으로 이용된다. 나머지는 砂質泥巖혼펠스, 細粒花崗巖, 실트(silt)質砂巖, 실트質泥巖, 安山班巖, 安山巖, 流紋巖 등은 각 1점씩이다. 이암계통이 전체 石鏃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촉제작에 이용된 석질은 시간성을 전혀 보이지 않으며, 주변에서 손쉽게 획득 가능한 암석을 이용했다. 특히 이암질은 비교적 제작이 용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어 석촉제작 재료에 주로 사용되었다.

<표 4> 석촉의 암질비율



2) 製作方法(<도 2> 참조)



<도 2> 마제석촉의 제작과정(蓄積不同)

\*위의 그림은 제작설명을 위한 그림으로 각 그림 간에 연관성은 없다.

磨製石鏃은 無莖式石鏃과 有莖式石鏃으로 나뉘며 제작과정상에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無莖式石鏃은 다음과 같은 5단계의 제작과정을 거친다.

첫째, 모암에서 판상의 형태로 석재를 떼어 낸다.

둘째, 떼어낸 판상의 석재를 擦切<sup>83)</sup>하여 일정한 크기로 자른다.

셋째, 자른 판석을 石鏃의 두께를 감안하여 前·後面을 지석으로 弱磨하여 얇은 판상으로 만든다.

넷째, 제작할 石鏃의 폭과 길이만큼 찰절하여 대략적인 石鏃의 형태를 만든다.

다섯째, 촉신의 가장자리부분을 精磨하여 날을 세우고, 만입부를 만들어 완성한다. 촉신의 단면이 편육각형을 띠는 것은 이러한 일련의 제작과정에 의한 것이다.

有莖式石鏃은 석질과 용도에 따라 제작방법상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4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83) 찰절기법은 석재의 양면에 찰절도구를 이용하여 양면을 번갈아 마찰하여 자르는 방법으로 석촉, 석판의 판석의 제작에 이용된다.

첫째, 모암에서 판상의 형태로 석재를 떼어 낸다.

둘째, 판상으로 떼어낸 석재를 떼기수법으로 장타원형의 石鏃 크기로 성형한다. 이때 莖部の 형태도 어느 정도 갖추어 지는 경우도 있다.

셋째, 조립질의 지석으로 인부를 勘案하여 단면형태가 능형이 되게끔 전체를 마연 한다.

넷째, 세립질의 지석을 이용하여 촉신과 촉두를 精磨하여 날을 세우고, 莖部를 만들어 완성한다.

위의 중간그림과 같이 無莖式石鏃의 제작 시, 有莖式石鏃의 제작방법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sup>84)</sup>.

石鏃의 제작은 특정 專門集團에 의한 제작설(김원룡 1969)과 일반가옥에서 수리·제작이 이루어졌다는 의견(최성락 1982)이 있다. 필자는 전자보다는 후자의 연계를 따르는 입장이다. 하지만 취락내에서도 석촉과 같은 석기제작은 모든 가옥에서 이루어지진 않았으며 특정개인에 의한 특정가옥<sup>85)</sup>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석기제작이 이루어진 주거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주거지내부에 石器製作空間을 별도로 두고 있다. 송국리형주거지의 경우는 가운데 수혈을 석기제작공간으로 이용된 경우가 많다.

둘째, 석기제작에 사용된 砥石이 다양하게 출토된다.

셋째, 未完成石器, 薄片, 石粉 등이 한곳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된다.

넷째, 석기제작에 필요한 石材와 臺石이 출토된다.

송국리형주거지의 타원형수혈의 기능에 대해서 집수구, 임시적 수장구덩이, 작업구덩이, 보관구덩이, 노지, 석기제작소 등 여러 가지로 보고 있으나<sup>86)</sup>, 최근 남강수몰지구에서 다수의 가운데 수혈이 조사되면서 석기제작소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sup>87)</sup>.

84) 월산리 A-7호, 초곡리 11호, 황성동 II다-8호, 대련리 14호 주거지 출토 석촉이 그러하다.

85) 경주 송선리 9호주거지 경우, 주거지의 한쪽에 다량의 지석과 석촉, 미완성석기, 석재, 박편 등이 출토되어 석기제작 가옥의 좋은 예가 된다.  
嶺南文化財研究院, 『慶州 松仙里遺蹟』, 2005, p. 71.

86) 김규정, 「松菊里型住居址內 타원형구덩이 機能 檢討」, 『湖南文化財研究員研究論文集』 2, 2002.

87) 김정기, 「韓國竪穴住居址考」, 『考古學』 제3집, 한국고고학회.林孝澤 외, 1987, 『居昌·陝川 큰돌 무덤』, 東義大學校博物館 學術叢書1, 1974.  
安在晧, 前掲書, 1996.

김양미, 「진주 대평리 옥방1지구 무문토기시대 환호취락」, 『南江댐 水沒地區의 發掘成果』, 嶺南考古學會, 1998.

송국리형과 휴암리형주거지에서는 일반주거지에서 보이는 출토유물의 양상과 달리 석기제작과 관련된 지식과 대석 그리고 석기제작과 가공상태를 보여주는 다양한 종류의 石器類, 未完成石器, 剝片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그리고 타원형수혈 자체가 석기가공에 직접 이용된 시설이라는 점에서 주거기능보다 석기가공과 관련된 工房址로써의 성격이 강하며, 노지가 없는 점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 가운데 수혈의 설치는 석기제작의 효율성과 작업자의 편리성을 고려한 시설로 보이며, 수혈내부에 대형지석을 비스듬하게 세운 점, 석기마연시 공급되는 물을 모으는 시설로 보고 있다. 물론 주거지 가운데에 위치하는 것도 석기제작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으로 판단하고 있다<sup>88)</sup>.

석기제작이 이루어진 주거지는 청동기시대 전기에 비해 중기가 되면 월등하게 증가된다. 송국리형주거지에 설치된 가운데 수혈이 작업공으로 보거나 주거지 자체를 석기공방지로 견해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인은 중기의 문화변화와 연관 지을 수 있는데, 농경에 필요한 석부, 석도, 석검 등의 農工具의 제작이 본격화되고, 잉여생산물의 확보로 인한 부의 축적으로 사회계급의 발생은 집단간의 분쟁이 발생을 초래했다고 판단된다. 환호와 목책은 집단간의 분쟁으로부터 주거시설을 방어하기 위한 시설물 판단되며, 방어를 위한 석축, 석검, 석창과 같은 무기류의 제작도 당연히 증가 되었으리라 본다.

## 2. 用途

첫째, 狩獵用이다. 선사시대의 식생활은 狩獵, 漁撈, 採集生活로 영양분을 섭취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수렵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생활수단이 된다. 청동기시대 중기로 되면서 農耕이 보편화되었지만 아직도 식생활의 상당부분을 수렵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주거지내에서 출토되는 수렵용석기류를 통해서 짐작된다<sup>89)</sup>. 또 울주 반구대암각화의 사냥을 하기 전에 행해진 의식의 표현, 경주 석장동 암각화와 고령 양전동 암각화에서 보이는 石鏃은 당시 수렵생활의 일면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sup>90)</sup>.

慶尙大學校博物館, 『晉州 대평리 玉房 2地區 先史遺蹟』, 1999.

李亨求, 『晉州 대평리 玉房 5地區 先史遺蹟』, 鮮文大學校, 2001.

김규정, 앞의 논문, 2002.

88) 釜山廣域市立博物館 福泉分館, 『晉州 貴谷洞 대촌遺蹟』, 1998. 考察.

89) 북한의 서포항과 虎谷洞, 立石里遺蹟에서 출토된 동물뼈는 수렵생활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임영규, 『조선의 청동기시대』, 사회과학출판사, 1984.

둘째, 殺傷用 원거리 무기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다. 최성락은 고고학적 자료는 없으나 삼국지위서동이전의 기사를 통하여 무기로서의 사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 문헌자료는 중국 진나라 때 진수(233~297년)에 의해 편찬되어 시기차가 너무 크다. 미국과 일본에서 人骨에 박힌 石鏃이 출토된 예가 있어 殺傷用 武器로 사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sup>91)</sup>.

황기덕은 날개가 있는 형태의 石鏃은 전투용무기로 날개가 없는 石鏃은 수렵용으로 적합하다고 보았으며,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최성락은 형태적 차이는 지역적 차이 일 뿐 기능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임세권은 독화살촉의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 임세권의 견해는 수렵용과 살상용무기의 기능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견해이지만 구체적인 고고학적 자료는 없다. 현대 의학에서 버섯에서 추출된 보툴리누스라는 균의 독소는 일정량 이상 먹으면 몇 시간 내에 신경근육마비로 사망하는 무서운 독소다. 그 독소를 약화시켜 근육경련 치료 등에 사용하고 있다. 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위장관의 운동장애(위경련)에 사용하는 진정제의 원조가 아프리카 원주민이 독화살에 바르던 버섯독이었다. 현재까지도 원시부족들은 독화살을 사냥에 이용하고 있다<sup>92)</sup>. 그러면 언제부터 살상용 무기로 사용되었는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청동기시대 중기가 되면 농경에 의한 정착으로 인한 잉여생산물의 확보, 사회계급의 발생으로 인해 집단간의 분쟁이 발생되면서 무기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 시기에 화재주거지의 증가를 집단간의 분쟁의 결과로 보기도 한다<sup>93)</sup>.

셋째, 副葬用이다. 石鏃은 石劍과 함께 지석묘와 석관묘에 부장되고 있다. 부장용 석촉은 형태가 동일한 석촉을 여러 점 부장하는 되는 점에서 일상생활에 사용된 석촉보다는 부장을 위해 제작된 것으로 판단되며, 분묘부장용은 다음장에서 분류될 I 류, IIIA2b식, IIIA3a식의 석촉이 등이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90) 金元龍, 「蔚州 盤龜臺 岩刻畫에 대하여」, 『韓國考古學報』, 1980.  
 黃壽永·文明大, 「盤龜臺-蔚州 岩壁刻畫」, 동국대학교박물관, 1984.  
 金吉雄, 「金丈臺 岩刻畫에 대한 考察」, 『新羅文化祭 學術발표회논문집』 제 16집.

91) Coles, J, 『Archaeology by Experiment』, Cambridge, 1973, p. 12.  
 河出書房神社, 『일본의 고고학』 II, 1978, p. 290. (최성락, 앞의 논문, 1982, p. 63에서 재인용).

92) 찰스바우텔 지음, 박광순 옮김, 『무기의 역사』, 2002.  
 김병준, 「[건강에세이] 젓과 독」, 『영남일보』, 2006, 1.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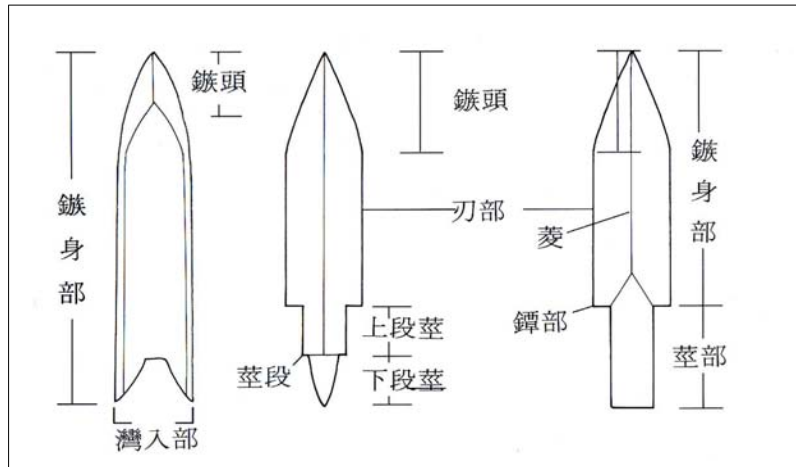
93) 송만영, 앞의 논문, 1995, pp. 115~150.

## IV. 型式分類

본 장에서는 영남지역의 주거지에서 출토된 마제석촉 272점을 대상으로 속성검출을 통한 형식분류를 실시한다. 형식분류는 무경식석촉, 이단경식석촉, 일단경식석촉의 크게 3가지로 분류하는 일반적인 분류방식을 따르고 검출된 속성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형식을 설정하고 각 지역별로 순서배열 하는 방식을 취한다.

### 1. 名稱

분류에 유의한 屬性檢出에 앞서 磨製石鏃의 각 부위에 대한 名稱을 정리해 두기로 하자. 본고에서는 현재까지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명칭과 속성 검출을 위해 추가로 사용할 몇 가지 세부명칭의 설명을 다음과 같이 해두고자 한다.



<도 3> 석촉명칭도

- ① 鏃頭(머리) : 石鏃의 뾰족한 끝(머리)부분으로 물체와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이다. 鋒部, 鏃先端部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無莖式石鏃의 경우 촉신의 마연이 시작되는 부분까지 촉두로 본다.
- ② 鏃身部(몸) : 石鏃의 몸통부분으로 莖部를 제외한 부분을 말하며 鏃頭와 刃部를 포함한 넓은 의미이다.
- ③ 刃部(날면) : 鏃身の 가장자리 또는 菱를 기준으로 前·後面을 경사지게 마연하여 刃(날)을 세운부분이다.

- ④ 鐔部 : 鏃身과 莖部사이 에 단이 형성된 부분으로 보통 石劍에서 사용되는 명칭이다.
- ⑤ 莖部(슴배) : 축신 아래쪽 화살자루에 결합되는 부분으로 二段莖式石鏃의 경우는 上段莖과 下段莖으로 나눌 수 있다.
- ⑥ 莖段 : 二段莖式石鏃의 莖部에 형성된 段을 말한다.
- ⑦ 莖末端 : 莖部の 끝부분이다.
- ⑧ 灣入部 : 無莖式石鏃에서 화살과 결합되는 부분을 말하며, 底邊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 2. 型式分類

型式分類는 영남내륙지역, 영남동남단지역, 영남서남단지역으로 나누어 각 屬性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영남동남단지역은 발굴조사된 유적수가 타지역에 비해 많기 때문에 분석자료가 많은데 반해, 영남내륙지역과 영남서남단지역은 분석자료가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분석에서 정확한 자료를 획득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磨製石鏃은 鏃身部와 莖部로 구성된다. 축신부는 목표물을 뚫는 부분으로 화살의 관통력과 직접적 관련이 있으며, 경부는 시병에 착장되는 부위로 축신의 기능강화를 위한 착장기술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형태로 변화한다. 따라서 화살의 성능과 관련된 축신과 경부의 형태는 형식분류의 주요한 속성이 될 수 있다.

磨製石鏃은 일반적으로 경부의 유무에 따라 無莖式石鏃과 有莖式石鏃으로 크게 분류되며, 有莖式石鏃은 다시 莖段의 有無에 따라 二段莖式石鏃과 一段莖式石鏃으로 분류된다. 본고에서는 無莖式을 I類, 二段莖式을 II類, 一段莖式을 III類로 분류하는 일반적인 분류를 따르고<sup>94)</sup>, I類→II類→III類의 시간성은 기본으로 인정하고 형식분류를 시도한다. 기존의 형식분류에 이용된 속성과 추가로 유용한 속성을 검출하여 세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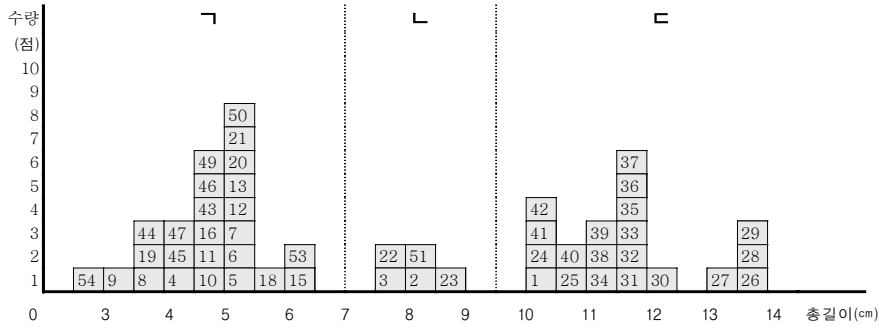
I類는 축신부의 단면형태에 따라 1차 분류하고, 총길이, 총길이와 축신폭의 비율, 축신부의 형태에 의해 2차 분류한다. II類는 경부의 단면형태와 축신부하단의 형태로 III類는 축신부의 단면형태에 따라 1차 분류하고, 경부의 단면형태와 축신부의 형태에 따라 2차 분류한다.

94) 본고의 분류는 경부의 형태에 의한 안재호의 분류를 바탕으로 I類→II類→III類의 흐름을 인정하고 식측에서 시간성을 반영하는 세부속성을 검출하여 형식분류를 시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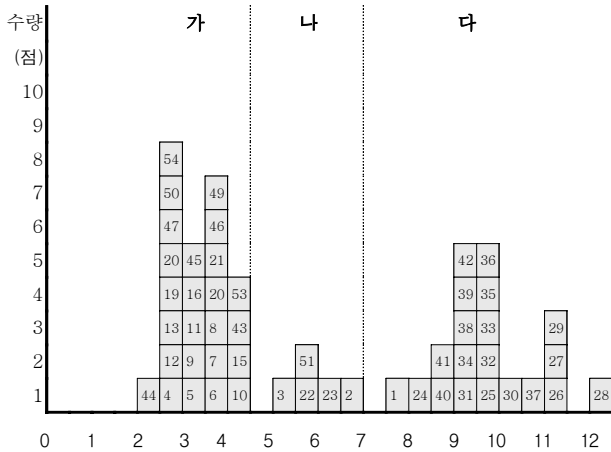
安在晧, 앞의 논문, 1991, p.p. 2~4.

1) I類石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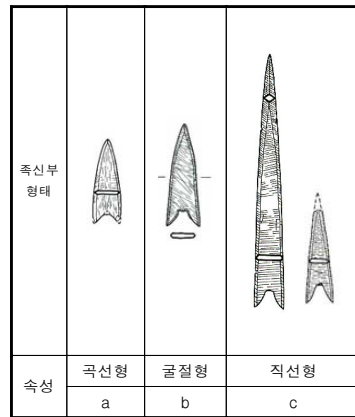
I類는 축신부의 단면형태에 따라 편육각형인 것(A)과 능형인 것(B)으로 나눌 수 있다. IB식은 영남내륙지역 1점, 영남동남단지역 2점, 영남서남단지역 1점 등 총 4점이 출토되었으며, 연속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더 이상 세분하지 않기로 한다. IA식<sup>95)</sup>은 총 50점으로 총길이, 총길이와 축신평의 비율, 축신부의 형태 등에 의해 아래와 같이 분류 가능하다<sup>96)</sup>.



<도 4> IA식석촉 총길이의 도수분포도



<도 5> IA식석촉 총길이/축신평의 도수분포도 총길이/축신평



<도 6> IA식석촉 축신부형태 분류

<도 4>에서 총길이는 7cm 미만의 단형(ㄱ), 7~9.5cm 미만의 중형(ㄴ), 9.5

95) IA식석촉은 완형 또는 복원계측이 가능한 50점을 분류대상에 포함시켰다.

96) 만입부의 형태에 의한 분류는 임세권, 최성락, 박준범에 의해 분류된 바 있으나, 형태적구분이 애매하고 영남지역에서는 그 형태변화가 뚜렷하지 않아 분류기준에서 제외시키기로 한다.

cm이상의 장형(ㄷ)의 3그룹으로 구분된다. ㄷ형은 포항 원동 3지구, 대구 팔달동, 경주 송선리 출토품이며, 중간부분에 단절을 보이거나 동일주거지에서 일괄로 출토된 유물이므로 동일군으로 본다. <도 5>에서 총길이와 축신평의 비율은 4.5미만인 것(가), 4.5~7미만인 것(나), 7이상인 것(다)으로 나눌 수 있다. <도 6>에서 축신평의 형태는 곡선형(a), 굴절형(b), 직선형(c)로 분류한다.

<표 5> I A식석촉 세부속성표

지역	연번	유적	총길이(cm)	축신평(cm)	총길이/축신평	축신평 단면형태	축신평 형태	총길이	총길이/축신평	축신평 형태
영남 내륙 지역	1	팔달동2호	10.2	1.3	7.8	편육각형	직선형	ㄱ	다	c
	2	팔달동2호	8.4	1.3	6.5	편육각형	직선형	ㄴ	나	c
	3	팔달동2호	7.5	1.5	5.0	편육각형	굴절형	ㄴ	나	b
	4	팔달동14호	4	1.4	2.9	편육각형	곡선형	ㄱ	가	a
	5	서변동6호	5.1	1.5	3.4	편육각형	굴절형	ㄱ	가	b
	6	서변동20호	5.3	1.5	3.5	편육각형	굴절형	ㄱ	가	b
	7	서변동41호	5.2	1.5	3.5	편육각형	곡선형	ㄱ	가	a
	8	서변동41호	3.8	1.1	3.5	편육각형	곡선형	ㄱ	가	a
	9	서변동41호	3.2	1	3.2	편육각형	곡선형	ㄱ	가	a
	10	서변동46호	4.5	1.1	4.1	편육각형	곡선형	ㄱ	가	a
	11	송현동 3호	4.7	1.5	3.1	편육각형	곡선형	ㄱ	가	a
	12	송현동 4호	5.2	1.8	2.9	편육각형	곡선형	ㄱ	가	a
	13	송현동 4호	5	1.7	2.9	편육각형	곡선형	ㄱ	가	a
	14	진라리 1호	5.2	1.4	3.7		능형			
영남 동남단 지역	15	천경리 3호	6.1	1.4	4.4	편육각형	굴절형	ㄱ	가	b
	16	조곡리 2호	4.9	1.5	3.3	편육각형	굴절형	ㄱ	가	b
	17	조곡리 5호	5.1	1.5	3.4		능형			
	18	대련리14호	5.8	1.5	3.9	편육각형	굴절형	ㄱ	가	b
	19	대련리14호	3.9	1.5	2.6	편육각형	굴절형	ㄱ	가	b
	20	대련리15호	5.1	1.8	2.8	편육각형	곡선형	ㄱ	가	a
	21	원동3지구 9호	5.2	1.4	3.7	편육각형	굴절형	ㄱ	가	b
	22	원동3지구 10호	7.9	1.4	5.6	편육각형	굴절형	ㄴ	나	b
	23	원동3지구 10호	8.5	1.4	6.1	편육각형	직선형	ㄴ	나	c
	24	원동3지구 10호	10	1.2	8.3	편육각형	직선형	ㄷ	다	c
	25	원동3지구 10호	10.5	1.1	9.5	편육각형	직선형	ㄷ	다	c
	26	송선리 9호	13.5	1.2	11.3	편육각형	직선형	ㄷ	다	c
	27	송선리 9호	13.3	1.2	11.1	편육각형	직선형	ㄷ	다	c
	28	송선리 9호	13.5	1.1	12.3	편육각형	직선형	ㄷ	다	c
	29	송선리 9호	13.7	1.2	11.4	편육각형	직선형	ㄷ	다	c
	30	송선리 9호	12	1.15	10.4	편육각형	직선형	ㄷ	다	c
	31	송선리 9호	11.8	1.3	9.1	편육각형	직선형	ㄷ	다	c
	32	송선리 9호	11.6	1.2	9.7	편육각형	직선형	ㄷ	다	c
	33	송선리 9호	11.8	1.2	9.8	편육각형	직선형	ㄷ	다	c
	34	송선리 9호	11.3	1.2	9.4	편육각형	직선형	ㄷ	다	c
	35	송선리 9호	11.9	1.2	9.9	편육각형	직선형	ㄷ	다	c
	36	송선리 9호	11.7	1.2	9.8	편육각형	직선형	ㄷ	다	c
	37	송선리 9호	11.5	1.1	10.5	편육각형	직선형	ㄷ	다	c
	38	송선리 9호	11.3	1.2	9.4	편육각형	직선형	ㄷ	다	c
	39	송선리 9호	11	1.2	9.2	편육각형	직선형	ㄷ	다	c
	40	송선리 9호	10.7	1.2	8.9	편육각형	직선형	ㄷ	다	c
	41	송선리 9호	10.4	1.2	8.7	편육각형	직선형	ㄷ	다	c
	42	송선리 9호	10	1.1	9.1	편육각형	직선형	ㄷ	다	c
	43	송선리 9호	4.7	1.1	4.3	편육각형	직선형	ㄱ	가	c
	44	황성동 I -다-14호	3.6	1.5	2.4	편육각형	곡선형	ㄱ	가	a
	45	황성동 II -다-2호	4	1.3	3.1	편육각형	곡선형	ㄱ	가	a
46	월산리 B-19호	4.6	1.3	3.5	편육각형	굴절형	ㄱ	가	b	
47	월산리 B-32호	4.2	1.5	2.8	편육각형	곡선형	ㄱ	가	a	
48	대안리 1호	5.4	1.5	3.6		능형				
49	대안리5호	4.5	1.3	3.5	편육각형	곡선형	ㄱ	가	a	
50	신현동 황토전10호	5.3	1.9	2.8	편육각형	곡선형	ㄱ	가	a	
51	방기리 31호	8.2	1.4	5.9	편육각형	굴절형	ㄴ	나	b	
영남 서남단 지역	52	육방1지구 33호(경고연)	3.1	1.2	2.6		능형			
	53	육방 3지구 20호	6.4	1.5	4.3	편육각형	굴절형	ㄱ	가	b
	54	사월리 3호	2.6	1	2.6	편육각형	곡선형	ㄱ	가	a

이제 위의 제속성들이 시간성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는지 살펴 본 후, 屬性組合에 의한 型式設定을 하기로 하자. 속성상호간에 시간성이 인정된다면 그 組合으로 설정된 각각의 型式은 발생순서에 따른 型式組列이 가능할 것이다.

<표 6> I A식 총길이:총길이/축신폭 상관관계    <표 7> I A식 총길이:축신폭형태 상관관계

속성	가	나	다	속성	a	b	c
ㄱ	4~13, 15~21 43~47, 49~50 53, 54			ㄱ	4, 7, 8, 9, 11~13, 20, 44, 45, 47, 49, 50, 54	5, 6, 15, 16, 18, 19, 21, 46, 53	43
ㄴ		2, 3, 22, 23, 51		ㄴ		3, 22, 51	2, 23
ㄷ			1, 24~42	ㄷ			1, 24~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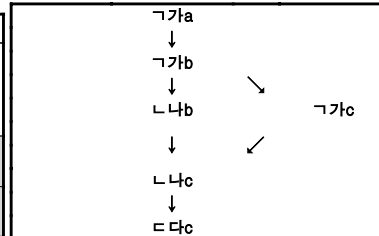
<표 8> I A식 총길이/축신폭:축신폭형태 상관관계

속성	a	b	c
가	4, 7, 8, 9, 11~13, 20, 44 45, 47, 49, 50, 54	5, 6, 15, 16, 18, 19, 21, 46, 53	1, 43
나		3, 22, 51	2, 23
다			24~42

<표 9> I A식 속성조합의 상관관계

속성	가	나	다
ㄱ	4, 7, 8, 9, 11~13 20, 44, 45, 47, 49, 50, 54 ㄱ가a	5, 6, 15, 16, 18, 19, 21, 46, 53 ㄱ가b	43 ㄱ가c
ㄴ		3, 22, 51 ㄴ나b	2, 23 ㄴ나c
ㄷ			1, 24~42 ㄷ다c

<표 10> I A식식축의 형식조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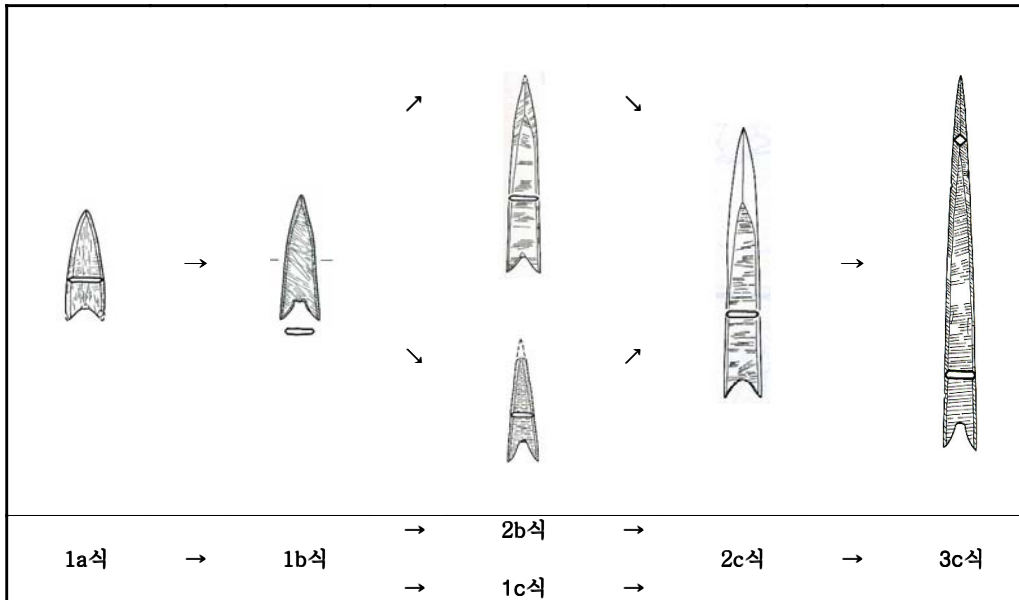
그러면 각 속성간의 相關關係부터 살펴보자. 위에서 표 안의 번호는 <표 5·11>, <도 8>의 유물번호와 동일하다.

<표 6>에서는 속성 간에 좋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못한다. <표 7>에서 ㄱa→ㄱb→ㄴb→ㄴc→ㄷc의 좋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표 8>에서 가a→가b→나b→나c→다c의 바람직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표 6>은 바람직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표 7>과 <표 8>에서 ㄱ→ㄴ→ㄷ와 a→b→c의 순서가 인정되고, a→b→c와 가→나→다의 순서가 인정되므로, ㄱ→ㄴ→ㄷ에 대해 가→나→다도 성립이 가능할 것이다. ㄱ형의 석축이 출토된 팔달동 14호는 土壙圍石式爐址가 설치된 둔산식주거지97)로 전기 이른 시기로 편년되며, ㄷ형

의 石鏃이 출토된 송선리 9호는 土壙形爐址가 설치되어 있어 주거지형태상 시간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a→c의 시간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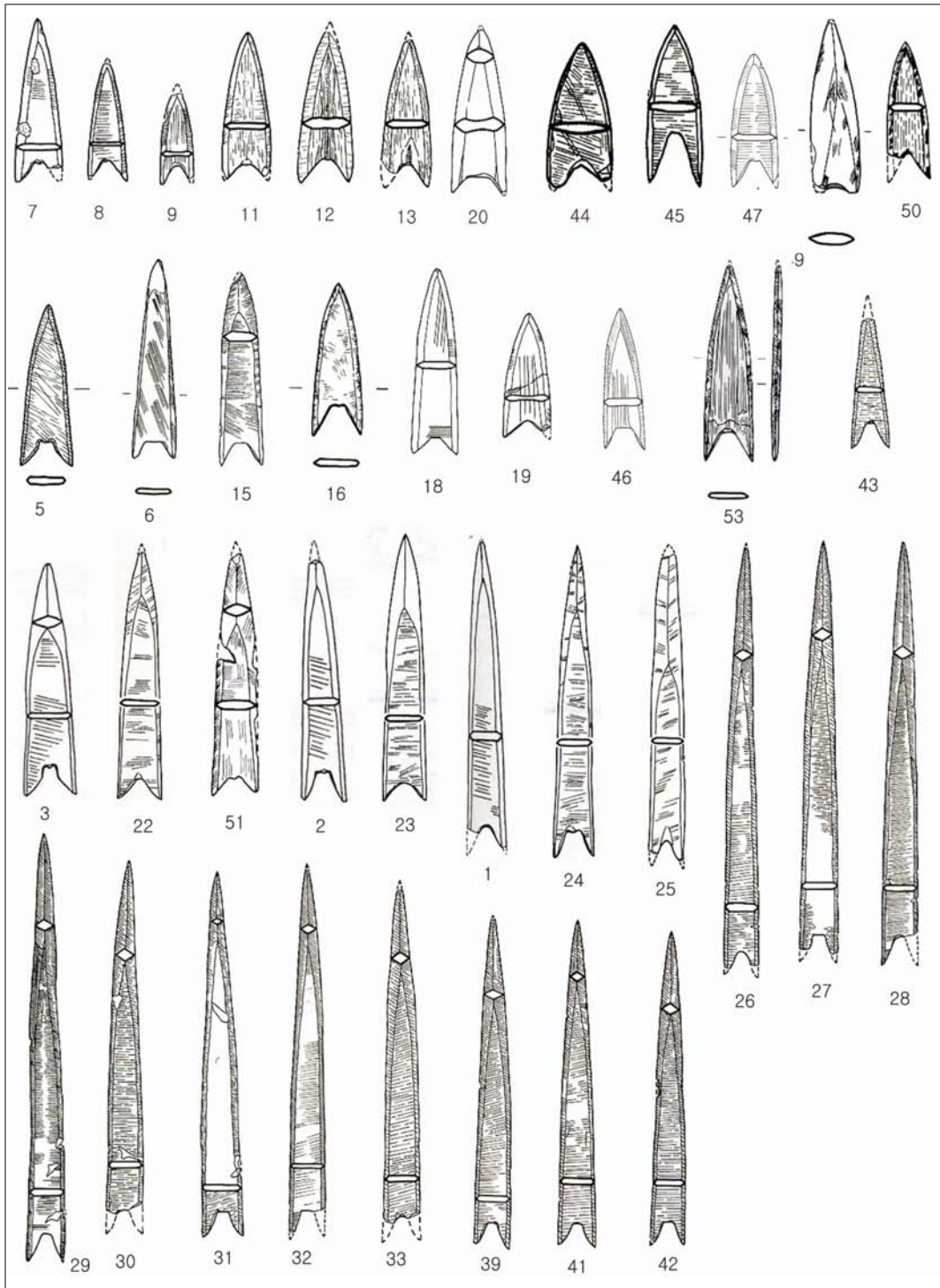
위에서 I類石鏃의 3개 屬性은 시간성을 반영하면서 변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총길이는 短形(ㄱ)에서 長形(ㄷ), 총길이/촉싹폭의 비율은 낮은 것(가)에서 높은 것(다), 鏃身部의 형태는 곡선형(a)에서 직선형(c)의 순서로 변화한다. 위의 제속성을 조합하여 型式을 설정하면 <표 10>과 같이 6개의 型式이 설정되며, ㄱ가a식→ㄱ가b식→ㄴ나b식→ㄴ나c식→ㄷ다c식 또는 ㄱ가a식→ㄱ가b식→ㄱ가c식→ㄴ나c식→ㄷ다c식의 순서로 型式組列된다. 위의 3가지 속성 중 총길리와 총길이:촉싹폭의 비율은 연동해서 변화를 보이므로 ㄱ가→1, ㄴ나→2, ㄷ다→3으로 간략화하여 각 지역별 IA식石鏃을 순서배열하면 <표 11>과 같다.

IB식은 송국리형주거지에서 출토된 예가 있지만, IA식보다 전적으로 늦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초곡리 5호에서 출토된 IB식의 石鏃은 IA식과 공반되는 II類石鏃과 공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IA식와 IB식은 선후관계는 뒤에서 주거지의 형태와 석촉과 공반되는 심발형토기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도 7> IA식석촉의 형식변화(縮尺不同)

97) 安在皓, 「韓國 農耕社會의 成立」, 『韓國考古學報』43, 韓國考古學會, 2000.



<도 8> 영남지역 I A식석촉(1/2)

영남내륙지역(I A1a식-7,8,9,11,12,13, I A1b식-5,6, I A2b식-3, I A2c식-2, I A3c식-1)  
 영남동남단지역(I A1a식-20,44,45,47,49,50, I A1b식-15,16,18,19,46, I A2b식-22, I A2c식-23,  
 I A3c식-24~33,39,41,42), 영남내륙지역(I A1b식-53, I A2b식-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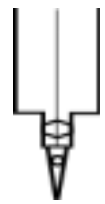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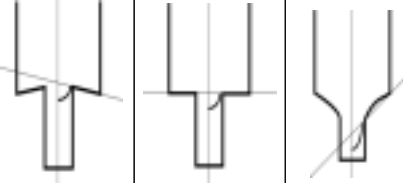
<표 11> 영남지역 I A식석축 순서배열

\* 표의 연번은 <도 8>의 번호와 동일.

지역	연번	유적	I A									I B
			총길이			총길이/축싹폭			축싹부평태			
			ㄱ	ㄴ	ㄷ	가	나	다	a	b	c	
영남 내륙 지역	4	팔달동14호	○			○			○			
	7	서변동41호	○			○			○			
	8	서변동41호	○			○			○			
	9	서변동41호	○			○			○			
	10	서변동46호	○			○			○			
	11	송현동3호	○			○			○			
	12	송현동4호	○			○			○			
	13	송현동4호	○			○			○			
	5	서변동6호	○			○				○		
	6	서변동29호	○			○				○		
	3	팔달동2호		○			○			○		
	2	팔달동2호		○			○				○	
	1	팔달동2호			○			○			○	
	14	진라리1호										○
영남 동남단 지역	20	대련리15호	○			○			○			
	47	월산리 B-32호	○			○			○			
	44	황성동 V I -다-14호	○			○			○			
	45	황성동 V II -다-2호	○			○			○			
	50	대안리5호	○			○			○			
	48	신현동 황토전10호	○			○			○			
	18	대련리14호	○			○				○		
	19	대련리14호	○			○				○		
	46	월산리 B-19호	○			○				○		
	15	천경리3호	○			○				○		
	16	초곡리2호	○			○				○		
	21	원동IV-9호	○			○				○		
	51	방기리 31호		○			○			○		
	22	원동IV-10호		○			○			○		
	23	원동IV-10호		○			○				○	
	24	원동IV-10호			○			○			○	
	25	원동IV-10호			○			○			○	
	43	송선리9호	○			○					○	
	26	송선리9호			○			○			○	
	27	송선리9호			○			○			○	
	28	송선리9호			○			○			○	
	29	송선리9호			○			○			○	
	30	송선리9호			○			○			○	
	31	송선리9호			○			○			○	
	32	송선리9호			○			○			○	
	33	송선리9호			○			○			○	
	34	송선리9호			○			○			○	
	35	송선리9호			○			○			○	
	36	송선리9호			○			○			○	
	37	송선리9호			○			○			○	
38	송선리9호			○			○			○		
39	송선리9호			○			○			○		
40	송선리9호			○			○			○		
41	송선리9호			○			○			○		
42	송선리9호			○			○			○		
17	초곡리5호										○	
49	대안리1호										○	
영남 서남단 지역	54	사월리3호	○			○			○			
	53	대평옥방 3지구 20호	○			○				○		
	52	옥방1지구33호(경고연)										○

## 2) II類石鏃

II類石鏃은 莖部가 上段莖과 下段莖으로 구분되는 형태로 보통 莖部의 단면 형태에 따라 상단경이 육각형이면서 하단경이 원형을 띠는 것(1)과 상단경이 육각형이면서 하단경이 장방형을 띠는 것(2)으로 나누고, 鏃身部 下段의 형태에 따라 예각형(a), 직각형(b), 둔각형(c)으로 분류한다.

경부 단면형태			촉신부 하단형태			
	육각형+원형	육각형+장방형		예각형	직각형	둔각형
속성	1	2	a	b	c	

<도 9> II류석촉의 형태적 속성분류

<표 12> II류석촉 속성표

연번	유구명	경부 단면형태	촉신부 하단의 형태	분류1 (경부단면형태)	분류2 (촉신부하단형태)
17	송원동2호	육+원	직각	1	b
19	송원동5호	육+원	직각	1	b
35	조곡리2호	육+장	직각	2	b
37	조곡리5호	육+장	예각	2	a
50	황성동II다-2호	육+장	예각	2	a
110	천상리22호	육+장	둔각	2	c
213	사월리11호	육+원	직각	1	b
214	사월리11호	육+원	직각	1	b

<표 13> II류석촉 경부단면형태와  
촉신부 하단형태의 상관관계

속성	a	b	c
1	○	17, 19, 213, 214	
2	37, 50	35	110

<표 12>과 <표 13>의 번호는 <표 14>의 연번과 동일하다.

<표 13>는 1a식<sup>98)</sup>이 없어 바람직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석촉 간의 공반관계에서 無莖式(I類)과 공반되는 II1식이 一段莖式(III類)과 공반되는 II2식보다 선행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a→c의 시간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표 13>에서 시간성을 가지는 5개의 型式이 설정가능하며, 1a식)→1b식·2a식→2b식→2c식의 순서로 型式組列이 가능하다. II類石鏃의 출토량이 증가된다면 보다 정확한 형식변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표 14>은 II類石鏃을 순서배열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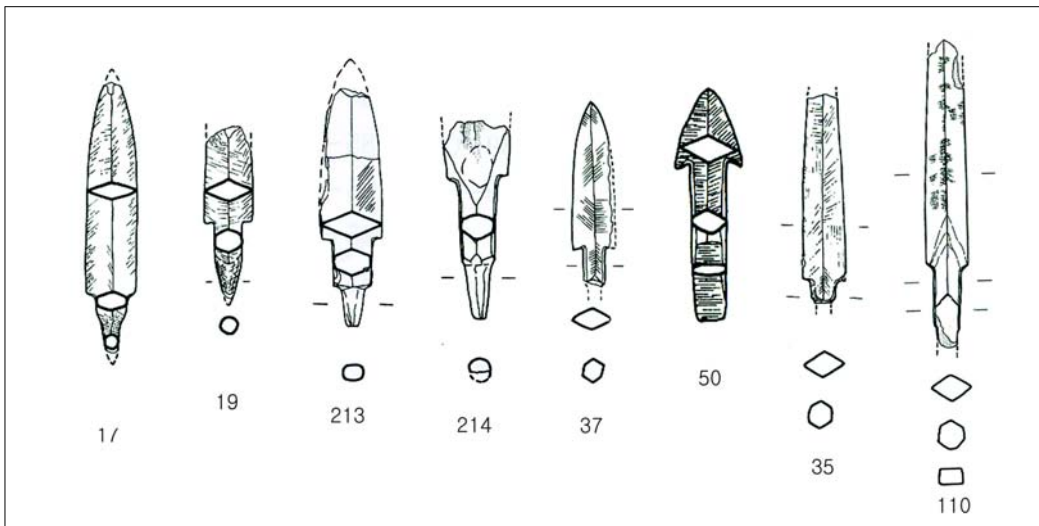
98) II1a식의 경우, 미사리유형으로 볼 수 있는 상촌리 2-1호에서 IA1a식으로 보이는 석촉과 공반되기 때문에 분석석촉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분류에는 넣기로 한다.

慶尙南道, 東亞大學校博物館, 『南江流域文化遺蹟發掘圖錄』, 1999, p. 50.

<표 14> 영남지역 II류석촉 순서배열

\* 표의 연번은 <도 10>의 번호와 동일.

지역	연번	유구명	경부단면형태		촉신부하단형태		
			1	2	a	b	c
영남내륙 지역	17	송현동2호	○			○	
	19	송현동5호	○			○	
영남동남단 지역	37	조곡리5호		○	○		
	50	황성동II다-2호		○	○		
	35	조곡리2호		○		○	
	110	천상리22호		○			○
영남서남단 지역	213	사월리11호	○			○	
	214	사월리11호	○			○	



<도 10> II류석촉(1/2)

영남내륙지역(II1b식-17·19), 영남서남단지역(II1b식-213·214)  
 영남동남단지역(II2a식-37·50, II2b식-35, II2c식-110)

### 3) III類石鏃<sup>9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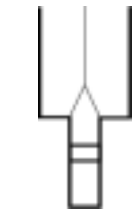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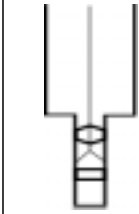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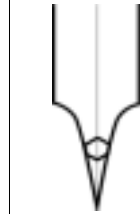
III類는 I類와 마찬가지로 鏃身部の 단면형태에 따라 능형인 것(A)과 편육각형인 것(B)으로 나눈다. B형은 경주 월산리, 울산 봉계리, 진주 옥방 9지구, 진주 상촌리, 산청 사월리 등에서 총 6점이 출토되었다<sup>100)</sup>. IIIA식은 <표 11·

99) <표 17>의 III류석촉의 속성표에서 동일한 유적명을 서로 다른 기관에서 조사된 경우, 구분을 위해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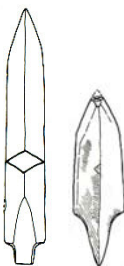

영남문화재연구원→영문연, 울산문화재연구원→울문연, 울산발전연구원→울발연, 경남고고학연구소→경고연, 국립진주박물관→진주박, 울산대학교박물관→울산대, 한양대학교박물관→한양대.

100) IIb형은 안재호의 분류에 의하면 IIIa류에 해당된다. 본고에서는 출토자료가 빈약하고 대부분의 보고자가 촉신부의 단면형태가 능형(IIIa형) 또는 편육각형의 I류석촉의 재가공으로 판단하고 있어, 더 이상의 세분은 양기로 하며 자료의 증가를 기대한다.

12>과 같이 경부의 단면형태에 따라 장방형인 것(1), 육각+장방형인 것(2), 육각형인 것(3)으로 분류한다<sup>101)</sup>. 鍔身部の 形態에 따라 直線形(a), 屈折形(b), 曲線形(c)으로 분류한다.

莖部 斷面形態			
속성	장방형	육각+장방형	육각형
	1	2	3

<도 11> IIIA식석촉의 경부 단면형태에 의한 분류

鍔身部 形態			
속성	직선형	굴절형	곡선형
	a	b	c

<도 12> IIIA식석촉의 촉신부 형태에 의한 분류

<표 15> IIIA식의 경부단면형태와 촉신부형태의 상관관계\* <표 16>의 번호는 <표 17>의 연번과 동일.

속성	a	b	c
1	1,16,22,34,40,41,43,49,57,60,63,64,78,80,87,106,111,115,158,160,162	2~5,10,11,13,15,20,38,42,46,47,56,61,62,71,75,76,79,82,100,103,105,114,115,132,146,152,172,209	7,67,107,117
2		6,77,112	44,45,167
3	3a식	28,88,92,94,113,122,126,130,134~139,144,164,166,169,171,174,175,176,179,182,190,193~196,200,202,205,208	18,29,30,31,48,52,58,65,66,72,81,84,86,89,93,95~97,99,101,116,118,145,147,148,161,163,168,180,181,185,187~189,192,201,203,205,207,210~212

101) IIIA식의 석촉 중, 경부의 단면형태가 원형에 가까운 다각형의 형태도 확인되지만, 출토예가 극소수에 불과하고 경발단이 뾰족한 점에서 3형에 포함시킨다.

<표 16> III類석축 속성표

지역	연번	유구명	축신부단면형태에 의한 분류	경부단면형태(분류1)	축신부형태(분류2)	분류1	분류2
영남내륙부지역	1	발달동10호	III A	장방형	직선형	1	a
	2	동원동3호	III A	장방형	균질형	1	b
	3	동원동12호	III A	장방형	균질형	1	b
	4	동원동13호	III A	장방형	균질형	1	b
	5	동원동19호	III A	장방형	균질형	1	b
	6	동원동25호	III A	육+장	균질형	2	b
	7	동원동26호	III A	장방형	곡선형	1	c
	8	동원동27호	III A	장방형		1	
	9	동원동27호	III A	육+장		2	
	10	동원동30호	III A	장방형	균질형	1	b
	11	동원동32호	III A	장방형	균질형	1	b
	12	동원동33호	III A	장방형		1	
	13	동원동36호	III A	장방형	균질형	1	b
	14	동원동37호	III A	장방형		1	
	15	동원동53호	III A	장방형	균질형	1	b
	16	상동 I-1호	III A	장방형	직선형	1	a
	18	송원동4호	III A	육각형	곡선형	3	c
	20	진리리93호	III A	장방형	균질형	1	b
	21	저포E지구3호	III A	장방형		1	
	22	저포E지구3호	III A	장방형	직선형	1	a
	23	저포E지구4호	III A	육+장	곡선형	2	c
	24	저포E지구4호	III A	원형	균질형		b
	25	함원봉개리13	III A	장방형		1	
	26	거장대아리1호	III A	육각형		3	
	27	거장대아리1호	III A	육각형		3	
	28	거장대아리11호	III A	육각형	균질형	3	b
	29	거장대아리11호	III A	육각형	곡선형	3	c
	30	거장대아리15호	III A	육각형	곡선형	3	c
	31	거장대아리15호	III A	육각형	곡선형	3	c
	32	원정리2호	III A	장방형		1	
	33	원정리3호	III A	장방형		1	
34	원정리4호	III A	장방형	직선형	1	a	
36	초곡리3호	III A	장방형		1		
38	초곡리12호	III A	장방형	균질형	1	b	
39	원동2호	III A	육+?				
40	송신리1호	III A	장방형	직선형	1	a	
41	인동리5호	III A	장방형	직선형	1	a	
42	중효동1호	III A	장방형	균질형	1	b	
43	중효동1호	III A	장방형	직선형	1	a	
44	중효동1호	III A	육+장	곡선형	2	c	
45	중효동1호	III A	육+장	곡선형	2	c	
46	중효동2호	III A	장방형	균질형	1	b	
47	중효동4호	III A	장방형	균질형	1	b	
48	황성동 I 다-13호	III A	육각형	곡선형	3	c	
49	황성동 II 다-2호	III A	장방형	직선형	1	a	
51	황성동 II 다-3호	III A	능형	곡선형	3	c	
52	황성동 II 다-9호	III A	육각형	곡선형	3	c	
53	황성동 II 라-8호	III A	육각형		3		
54	황성동 II 라-9호	III A	장방형		1		
55	황성동 II 라-9호	III A	장방형		1		
56	황성동 II 라-11호	III A	장방형	균질형	1	b	
57	황성동강변56호	III A	장방형	직선형	1	a	
58	황성동강변58호	III A	능형		3		
59	석장동3호	III A	장방형		1		
60	석장동6호	III A	장방형	직선형	1	a	
61	한문동피막리-1호	III A	장방형	균질형	1	b	
62	불원리-손곡동2호	III A	장방형	균질형	1	b	
63	불원리-손곡동8호	III A	장방형	직선형	1	a	
64	불원리-손곡동8호	III A	장방형	직선형	1	a	
65	불길리10호(영분면)	III A	육각형	곡선형	3	c	
66	불길리10호(영분면)	III A	육각형	곡선형	3	c	
67	불길리2호(울산대)	III A	장방형	곡선형	1	c	
68	월산리B-11호	III B	장방형		1		
69	월산리B-12호	III A	장방형		1		
70	월산리B-17호	III A		직선형		a	
71	월산리B-27호	III A	장방형	균질형	1	b	
72	월산리B-1호	III A	육각형	곡선형	3	c	
73	봉계리 I -7호	III A	장방형		1		
74	봉계리 I -8호	III A	장방형		1		
75	봉계리 II -1호	III A	장방형	균질형	1	b	
76	봉계리 II -1호	III A	장방형	균질형	1	b	
77	봉계리 II -1호	III A	육+장	균질형	2	b	
78	봉계리 II -1호	III A	장방형	직선형	1	a	
79	봉계리 II -1호	III A	장방형	균질형	1	b	
80	봉계리 II -1호	III A	장방형	직선형	1	a	
81	봉계리 II -1호	III A	육각형	곡선형	3	c	
82	봉계리 II -1호	III A	장방형	균질형	1	b	

지역	연번	유구명	축신부단면형태에 의한 분류	경부단면형태(분류1)	축신부형태(분류2)	분류1	분류2
영남지방 경북	83	봉계리II-1호	III A	장방형		1	
	84	봉계리II-4호	III A	육각형	곡선형	3	c
	85	봉계리II-6호	III B	장방형		1	
	86	신원동2호	III A	육각형	곡선형	3	c
	87	신원동2호	III A	장방형	직선형	1	a
	88	신원동8호	III A	육각형	곡선형	3	b
	89	신원동8호	III A	육각형	곡선형	3	c
	90	신원동17호	III A	육각형		3	
	91	신원동18호	III A	육각형		3	
	92	신원동20호	III A	육각형	곡선형	3	b
	93	신원동20호	III A	육각형	곡선형	3	c
	94	신원동33호	III A	육각형	곡선형	3	b
	95	신원동33호	III A	육각형	곡선형	3	c
	96	연암동1호	III A	육각형	곡선형	3	c
	97	연암동2호	III A	육각형	곡선형	3	c
	98	연암동3호	III A	육각형		3	
	99	화정동15호(울분연)	III A	육각형	곡선형	3	c
	100	화정동1호(울산대)	III A	장방형	곡선형	1	b
	101	대안리 4호	III A	육각형	곡선형	3	c
	102	두왕동3호	III A	장방형		1	
	103	다운동1호	III A	장방형	곡선형	1	b
	104	다운동4호	III A	육각형		3	
	105	구수리B-4호(울분연)	III A	장방형	곡선형	1	b
	106	구수리4호(울산대)	III A	장방형	직선형	1	a
	107	구영리2호	III A	장방형	곡선형	1	c
	108	구영리7호	III A		곡선형		b
	109	현상리2호	III A	육각형		3	
	111	현상리22호	III A	장방형	직선형	1	a
	112	현상리28호	III A	육+장	곡선형	2	b
	113	현상리30호	III A	육각형	곡선형	3	b
	114	현상리33호	III A	장방형	곡선형	1	b
	115	현상리35호	III A	장방형	곡선형	1	b
	116	김달리3호	III A	육각형	곡선형	3	c
	117	김달리8호	III A	장방형	곡선형	1	c
	118	김달리9호	III A	육각형	곡선형	3	c
	119	김달리10호	III A	육각형	신부제가공	3	
	120	김달리11호	III A	장방형	신부제가공	1	
	121	김달리13호	III A	육각형		3	
	122	김달리13호	III A	육각형	곡선형	3	b
	123	김달리13호	III A	육각형	신부제가공	3	
	124	김달리13호	III A	육각형		3	
	125	김달리13호	III A	원형		3	
	126	김달리13호	III A	육각형	곡선형	3	b
	127	김달리18호	III A	육각형	신부제가공	3	
	128	김달리21호	III A	장방형	신부제가공	1	
	129	김달리21호	III A	장방형	신부제가공	1	
	130	김달리22호	III A	육각형	곡선형	3	b
	131	김달리26호	III A	육각형	신부제가공	3	
	132	김달리29호	III A	장방형	곡선형	1	b
	133	김달리29호	III A	장방형		1	
	134	김달리39호	III A	육각형	곡선형	3	b
	135	김달리39호	III A	육각형	곡선형	3	b
	136	김달리39호	III A	육각형	곡선형	3	b
	137	김달리39호	III A	육각형	곡선형	3	b
	138	김달리39호	III A	육각형	곡선형	3	b
	139	김달리39호	III A	원형	곡선형	3	b
	140	김달리45호	III A	육각형	신부제가공	3	
	141	김달리45호	III A	육각형	신부제가공	3	
	142	김달리45호	III A	육각형	신부제가공	3	
	143	김달리47호	III A	육각형	신부제가공	3	
	144	김달리47호	III A	육각형	곡선형	3	b
145	김달리49호	III A	육각형	곡선형	3	c	
146	김달리49호	III A	장방형	곡선형	1	b	
147	김달리50호	III A	육각형	곡선형	3	c	
148	김달리69호	III A	육각형	곡선형	3	c	
149	김달리77호	III A	장방형	신부제가공	1		
150	김달리89호	III A	육각형	신부제가공	3		
151	김달리89호	III A	장방형	신부제가공	1		
152	김달리89호	III A	장방형	곡선형	1	b	
153	방기리10호	III A	육각형		3		
154	방기리12호	III A	육각형		3		
155	방기리15호	III A	육각형		3		
156	방기리30호	III A	육각형		3		
157	방기리38호	III A	장방형	곡선형	1	a	
158	방기리38호	III A	장방형	곡선형	1	a	
159	방기리46호	III A	장타원형		1		
160	신평A-2호	III A	장방형	직선형	1	a	
161	신평A-4호	III A	육각형	곡선형	3	c	

지역	연번	유구명	축신부단면형태에 의한 분류	경부단면형태(분류1)	축신부형태(분류2)	분류1	분류2
영남 동남단 지역	162	신평A-15호	ⅢA	장방형	의선형	1	a
	163	신평B-1호	ⅢA	육각형	곡선형	3	c
	164	노포동2호	ⅢA	육각형	곧은형	3	b
영남 서남단 지역	165	옥방1지구1호(경고연)	ⅢA		의선형		a
	166	옥방1지구1호(경고연)	ⅢA	육각형	곧은형	3	b
	167	옥방1지구3호(경고연)	ⅢA	육+장	곡선형	2	c
	168	옥방1지구9호(경고연)	ⅢA	육각형	곡선형	3	c
	169	옥방1지구9호(경고연)	ⅢA	육각형	곧은형	3	b
	170	옥방1지구9호(경고연)	ⅢA	육각형		3	
	171	옥방1지구9호(경고연)	ⅢA	육각형	곧은형	3	b
	172	옥방1지구9호(경고연)	ⅢA	장방형	곧은형	1	b
	173	옥방1지구13호(경고연)	ⅢA	육각형		3	
	174	옥방1지구14호(경고연)	ⅢA	육각형	곧은형	3	b
	175	옥방1지구14호(경고연)	ⅢA	육각형	곧은형	3	b
	176	옥방1지구14호(경고연)	ⅢA	육각형	곧은형	3	b
	177	옥방1지구15호(경고연)	ⅢA	육각형		3	
	178	옥방1지구21호(경고연)	ⅢA	장방형	신부제가공	1	
	179	옥방1지구33호(경고연)	ⅢA	육각형	곧은형	3	b
	180	옥방1지구33호(경고연)	ⅢA	육각형	곡선형	3	c
	181	옥방1지구33호(경고연)	ⅢA	육각형	곡선형	3	c
	182	옥방1지구1호(전주박)	ⅢA	육각형	곧은형	3	b
	183	옥방1지구1호(전주박)	ⅢA	육각형		3	
	184	옥방1지구10호(전주박)	ⅢA	육각형		3	
	185	옥방1지구13호(전주박)	ⅢA	육각형	곡선형	3	c
	186	옥방1지구13호(전주박)	ⅢA	육각형		3	
	187	옥방1지구15호(전주박)	ⅢA	육각형	곡선형	3	c
	188	옥방2지구13호	ⅢA	육각형	곡선형	3	c
	189	옥방2지구13호	ⅢA	육각형	곡선형	3	c
	190	옥방2지구16호	ⅢA	육각형	곧은형	3	b
	191	옥방2지구16호	ⅢA	육각형		3	
	192	옥방3지구24호	ⅢA	육각형	곡선형	3	c
	193	옥방3지구27호	ⅢA	육각형	곧은형	3	b
	194	옥방3지구30호	ⅢA	육각형	곧은형	3	b
	195	옥방9지구16호	ⅢA	육각형	곧은형	3	b
	196	옥방9지구32호	ⅢA	육각형	곧은형	3	b
	197	옥방9지구32호	ⅢA	육각형		3	
	198	옥방9지구32호	ⅢA	육각형		3	
	199	옥방9지구33호	ⅢB	육각형	신부제가공	3	
	200	옥방9지구33호	ⅢB	육각형	미완성품		
200	상촌리1호(현양대)	ⅢA	육각형	곧은형	3	b	
201	상촌리1호(현양대)	ⅢA	육각형	곡선형	3	c	
202	상촌리1호(현양대)	ⅢA	육각형	곧은형	3	b	
203	상촌리1호(현양대)	ⅢA	육각형	곡선형	3	c	
204	상촌리7호(현양대)	ⅢA	육각형		3		
205	상촌리7호(현양대)	ⅢA	육각형	곧은형	3	b	
206	상촌리8호(현양대)	ⅢB	육각형				
207	상촌리9호(현양대)	ⅢA	육각형	곡선형	3	c	
208	귀곡동 태촌1호	ⅢA	육각형	곧은형	3	b	
209	귀곡동 태촌9호	ⅢA	장방형	곧은형	1	b	
210	사월리7호	ⅢA	육각형	곡선형	3	c	
211	사월리9호	ⅢA	육각형	곡선형	3	c	
212	사월리10호	ⅢA	육각형	곡선형	3	c	
215	사월리15호	ⅢA	육각형		3		
216	사월리환호3호	ⅢB	장방형	신부제가공	1		
217	사월리환호3호	ⅢB	육각형	신부제가공	3		
218	사월리환호4호	ⅢA	육각형	신부제가공	3		

<표 15>에서 屬性간의 相關關係부터 살펴보면, 1c식이 확인되어 좋은 상관 관계를 보이진 않지만, 1→2→3에 대하여 a→b→c의 변화가 성립된다. 이런 변화가 시간성을 가진다면<sup>102)</sup> 2개의 屬性이 조합되어 6개의 型式이 설정되며,

102) <표 18>의 각 형식간의 시간성 검증을 위해 방사성탄소연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b식의 연대가 조금 높은 듯하지만, 1a→3c의 시간성은 인정할 수 있다.

1a식-경주 송선리 1호(40번유물)-B.C. 1030년, 경주 인동리 5호(41번유물)- B.C. 780년~B.C. 595년 B.C. 880년, B.C. 885~B.C. 820년,

1b식-경주 천군동피막 라-1호(61번유물)-B.C. 860년~B.C. 530년,

3b식-울산 검단리 22호(130번유물)-B.C.880년,

3c식-경주 봉길리 10호(65, 66번유물)-B.C. 720년~B.C. 480년의 연대가 도출되었다.

1a식→1b식→2b식(2c식)→3b식→3c식의 순서로 형식조열이 가능하다.

ⅢA식의 石鏃 중 가장 빠른 屬性으로 조합된 1a식이 가장 빠른 형식이 되고, 가장 늦은 屬性만으로 조합된 3c식이 가장 늦은 형식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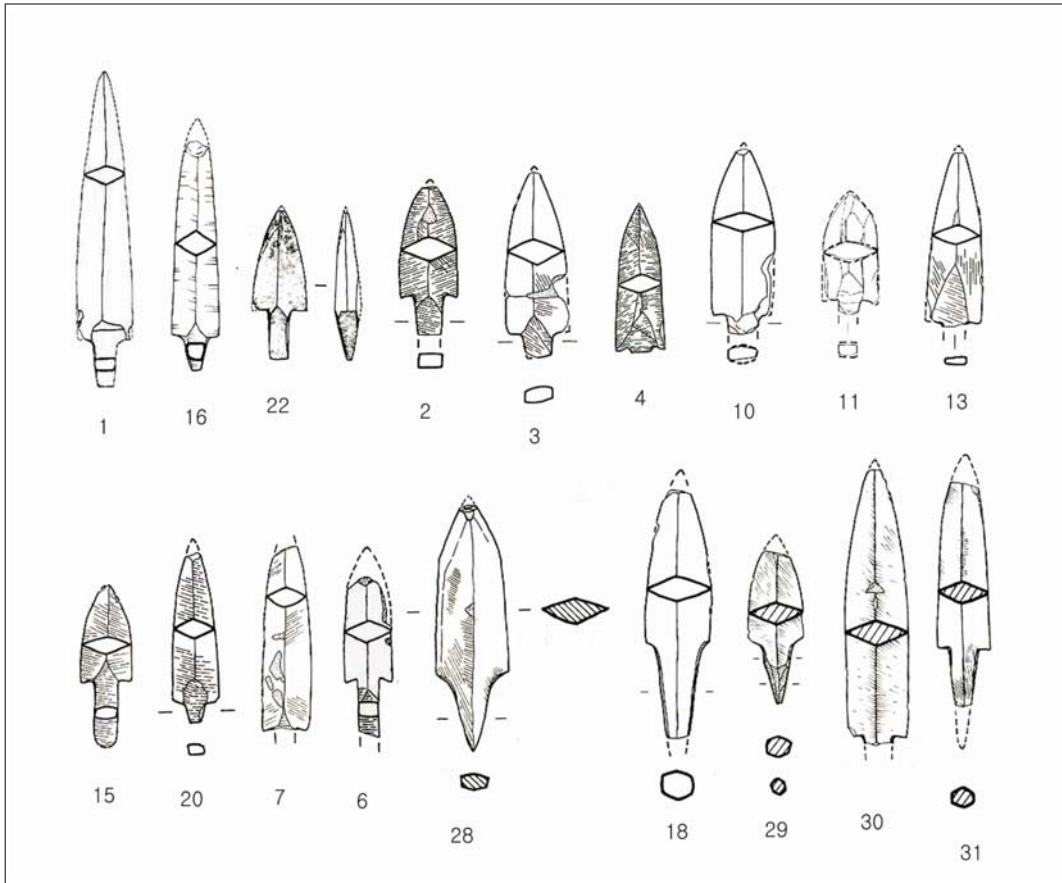
분류대상에서 제외된 3a식의 석촉은 대부분 분묘에서 출토되는데, 이는 분묘 부장용의 특수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영남지역 주거지출토 磨製石鏃의 속성검출을 통한 형식분류를 시도하고, 각 형식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각 지역별 Ⅲ類石鏃을 순서배열 하면 아래의 <표 17>, <표 18>, <표 19>과 같다.

<표 17> 영남내륙지역 ⅢA식석촉 순서배열

\* 표의 연번은 <도 13>의 번호와 동일.

연번	유구명	ⅢA						ⅢB
		경부단면형태			촉신부형태			
		1	2	3	a	b	c	
1	광달동10호	○			○			
16	상동Ⅱ-1호	○			○			
22	저포E지구3호	○			○			
21	저포E지구3호	○						
25	함천봉계리13호	○						
2	동천동3호	○				○		
3	동천동12호	○				○		
4	동천동13호	○				○		
5	동천동19호	○				○		
8	동천동27호	○						
10	동천동30호	○				○		
11	동천동32호	○				○		
12	동천동33호	○						
13	동천동36호	○				○		
14	동천동37호	○						
15	동천동53호	○				○		
20	진라리93호	○				○		
24	저포E지구4호					○		
6	동천동25호		○			○		
9	동천동27호		○					
23	저포E지구4호		○					
7	동천동26호	○						○
28	거창대야리11호			○		○		
18	송현동4호			○				○
26	거창대야리1호			○				
27	거창대야리1호			○				
29	거창대야리15호			○				○
30	거창대야리15호			○				○
31	거창대야리15호			○				○



<도 13> 영남내륙지역 IIIA식석촉(1/2)  
 (III A1a식-1,16,22, III A1b식-2,3,4,10,11,13,15,20, III A1c식-7,  
 III A2b식-6, III A3b식-28, III A3c식-18,29,3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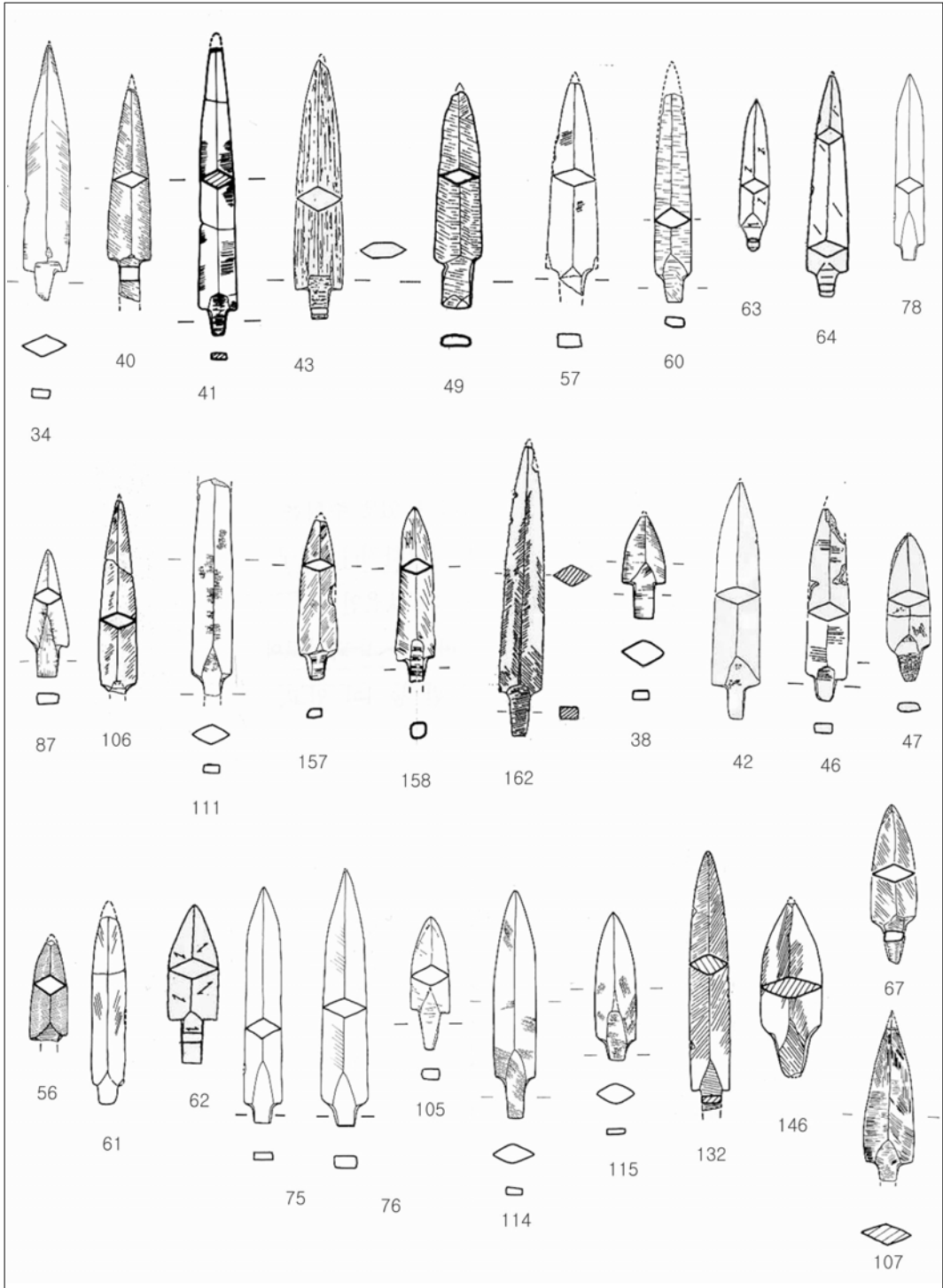
<표 18> 영남동남단지역 IIIA식석촉 순서배열

\* 표의 연번은 <도 14·15>의 번호와 동일.

연번	유구명	III A						III B
		경부단면형태			촉신부형태			
		1	2	3	a	b	c	
32	천정리2호	○						
33	천정리3호	○						
49	황성동Ⅱ라-2호	○			○			
34	천정리4호	○			○			
36	조곡리3호	○						
40	송선리1호	○			○			
59	석장동3호	○						
60	석장동6호	○			○			
41	인동리5호	○			○			
54	황성동Ⅱ라-9호	○						
55	황성동Ⅱ라-9호	○						
57	황성동강변로6호	○			○			
63	물천리·손곡동8호	○			○			
64	물천리·손곡동8호	○			○			

연번	유구명	ⅢA						ⅢB
		경부단면형태			축신부형태			
		1	2	3	a	b	c	
70	월산리B-17호				○			
78	봉계리Ⅱ-1호	○			○			
80	봉계리Ⅱ-1호	○			○			
106	구수리4호(울산대)	○			○			
160	신평A-2호	○			○			
162	신평A-15호	○			○			
87	신현동2호	○			○			
43	중효동1호	○			○			
111	천상리22호	○			○			
155	방기리15호				○			
157	방기리38호	○				○		
158	방기리38호	○				○		
38	조곡리12호	○				○		
46	중효동2호	○				○		
47	중효동4호	○				○		
39	원동Ⅳ-3호							
42	중효동1호	○				○		
61	진군동피막라-1호	○				○		
62	물천리-손곡동2호	○				○		
56	황성동Ⅱ라-11호	○				○		
68	월산리B-11호	○						○
69	월산리B-12호	○						
73	봉계리Ⅰ-7호	○						
74	봉계리Ⅰ-8호	○						
79	봉계리Ⅱ-1호	○				○		
82	봉계리Ⅱ-1호	○				○		
71	월산리B-27호	○				○		
83	봉계리Ⅱ-1호	○						
85	봉계리Ⅱ-6호	○						○
75	봉계리Ⅱ-1호	○				○		
76	봉계리Ⅱ-1호	○				○		
100	화정동1호(울산대)	○				○		
102	두왕동3호	○						
103	다운동1호	○				○		
105	구수리B-4호(울발연)	○				○		
159	방기리46호	○						
114	천상리33호	○				○		
120	검단리11호	○						
128	검단리21호	○						
129	검단리21호	○						
132	검단리29호	○				○		
133	검단리29호	○						
146	검단리49호	○				○		
149	검단리77호	○						
151	검단리89호	○						
152	검단리89호	○				○		
108	구영리7호					○		
107	구영리2호	○					○	
117	검단리8호	○					○	
67	봉길리2호(울산대)	○					○	
115	천상리35호	○						
77	봉계리Ⅱ-1호		○			○		
112	천상리28호		○			○		
44	중효동1호		○				○	
45	중효동1호		○				○	
113	천상리30호			○		○		
109	천상리2호			○				
127	검단리18호			○				
143	검단리47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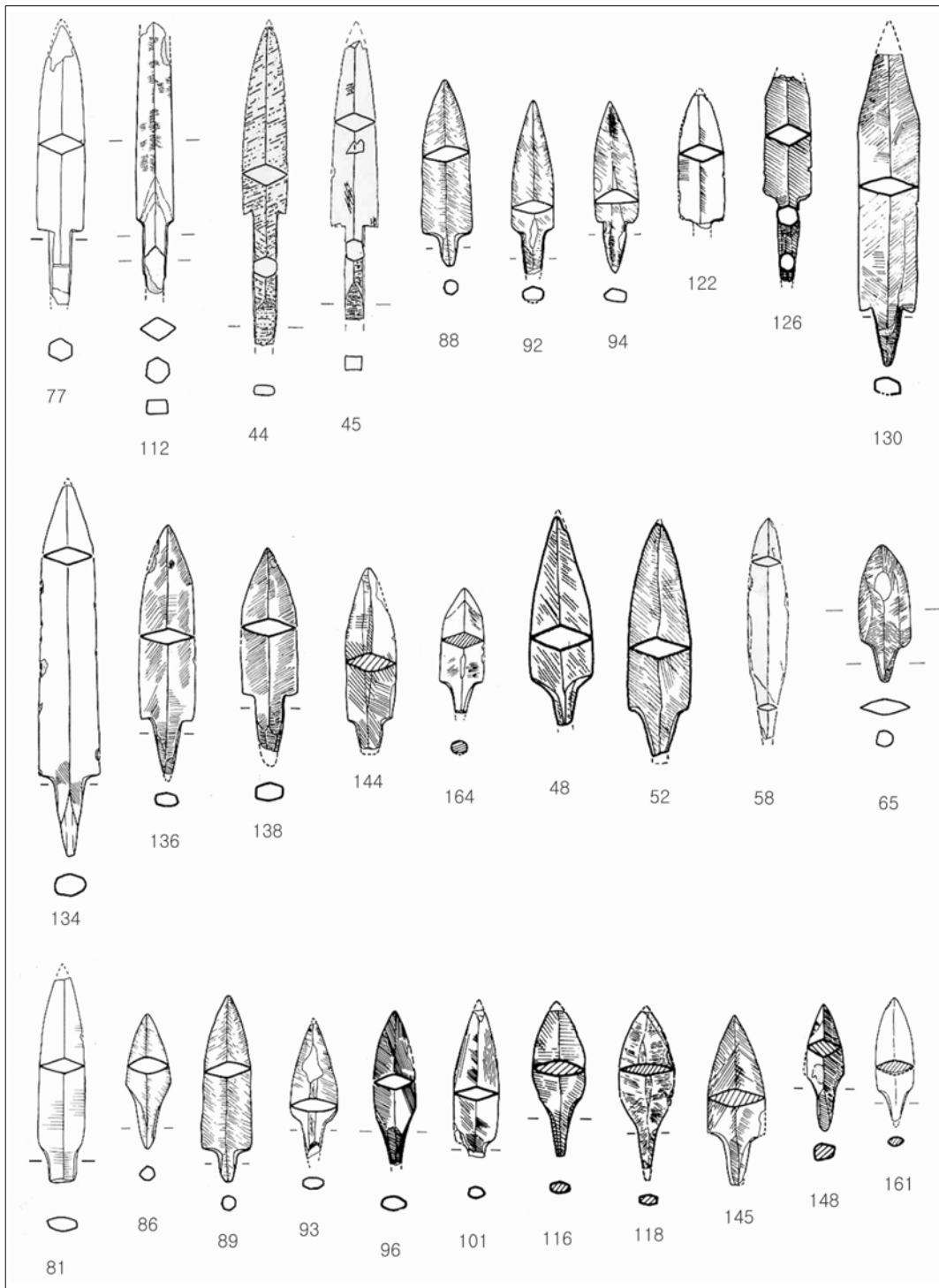
연번	유구명	ⅢA						ⅢB
		경부단면형태			축신부형태			
		1	2	3	a	b	c	
144	검단리47호			○		○		
121	검단리13호			○				
122	검단리13호			○		○		
123	검단리13호			○				
124	검단리13호			○				
125	검단리13호			○				
126	검단리13호			○		○		
130	검단리22호			○		○		
131	검단리26호			○				
153	방기리10호			○				
154	방기리12호			○				
156	방기리30호			○				
164	노포동2호			○		○		
92	신원동20호			○		○		
94	신원동33호			○		○		
88	신원동8호			○		○		
119	검단리10호			○				
134	검단리39호			○		○		
135	검단리39호			○		○		
136	검단리39호			○		○		
137	검단리39호			○		○		
138	검단리39호			○		○		
139	검단리39호			○		○		
140	검단리45호			○				
141	검단리45호			○				
142	검단리45호			○				
150	검단리89호			○				
72	월산리Ⅱ-1호			○			○	
51	황성동Ⅱ다-3호			○				
48	황성동Ⅰ다-13호			○			○	
52	황성동Ⅱ다-9호			○			○	
53	황성동Ⅱ라-8호			○				
58	황성동강변로8호			○			○	
84	봉계리Ⅱ-4호			○			○	
147	검단리50호			○			○	
86	신원동2호			○			○	
81	봉계리Ⅱ-1호			○			○	
65	봉길리10호(영문연)			○			○	
66	봉길리10호(영문연)			○			○	
90	신원동17호			○				
91	신원동18호			○				
93	신원동20호			○			○	
89	신원동8호			○			○	
95	신원동33호			○			○	
96	연암동1호			○			○	
97	연암동2호			○			○	
98	연암동3호			○				
99	화정동15호(울문연)			○			○	
101	대안리 4호			○				
104	다운동4호			○				
116	검단리3호			○			○	
118	검단리9호			○			○	
148	검단리69호			○			○	
145	검단리49호			○			○	
161	신평A-4호			○			○	
163	신평B-1호			○			○	



<도 14> 영남동남단지역 IIIA식석촉(1/2)

III A1a식-34,40,41,43,49,57,60,63,64,78,87,106,111,157,158,162

III A1b식-38,42,46,47,56,61,62,75,76,105,114,115,132,146, III A1c식-67,107



<도 15> 영남동남단지역 III A식석촉(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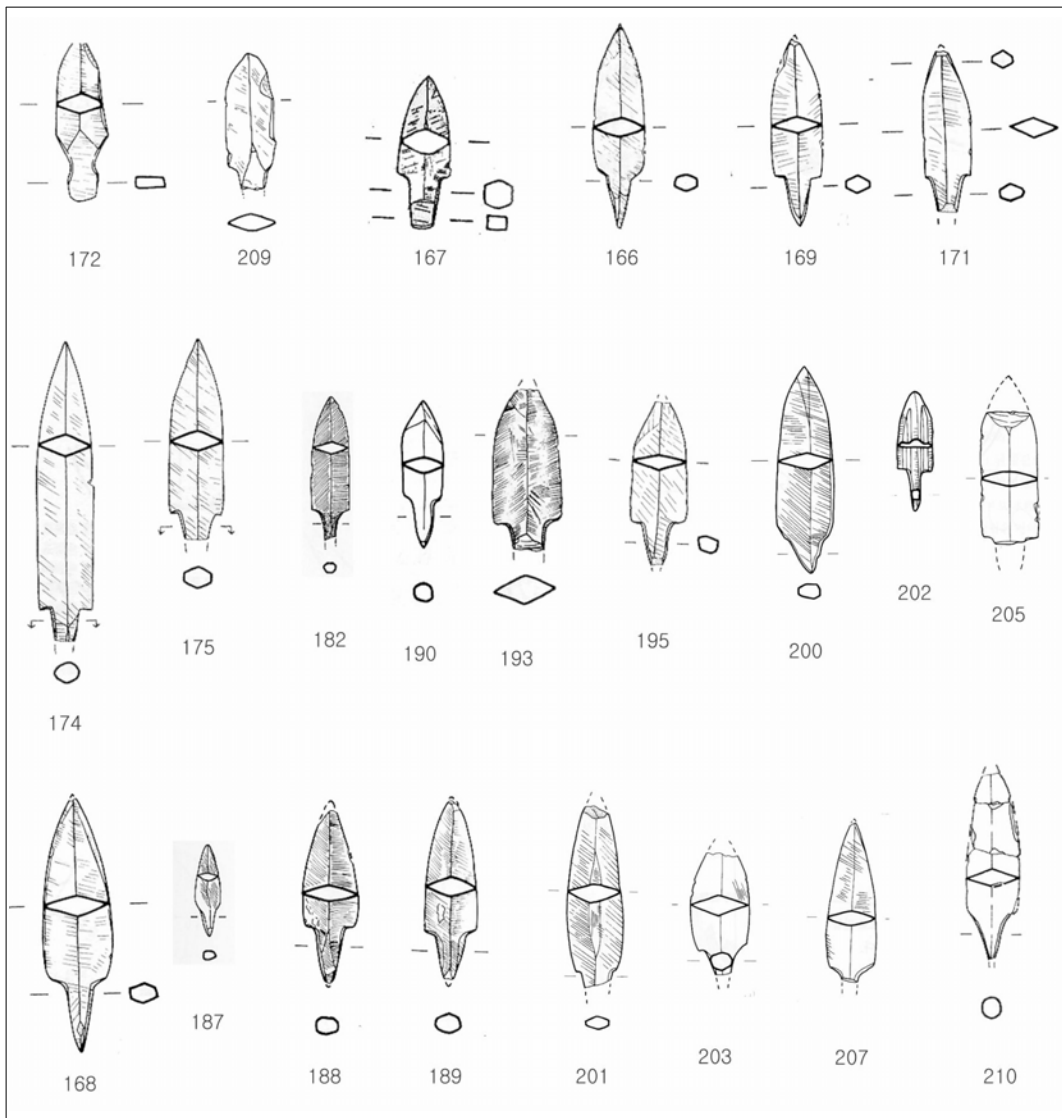
(III A2b식-77,112, III A2c식-44,45, III A3b식-88,92,94,122,126,130,134,136,138,144,164

III A3c식-48,52,58,65,81,86,89,93,96,101,116,118,145,148,161)

<표 19> 영남서남단지역 IIIA식석축 순서배열

\* 표의 연번은 <도 16>의 번호와 동일.

연번	유구명	IIIA						IIIB
		경부단면형태			축신부형태			
		1	2	3	a	b	c	
165	옥방1지구1호(경고연)				○			
172	옥방1지구9호(경고연)	○				○		
178	옥방1지구21호(경고연)	○						
209	귀곡동 대촌9호	○				○		
216	사월리환호3호	○						○
167	옥방1지구3호(경고연)		○				○	
166	옥방1지구1호(경고연)			○		○		
169	옥방1지구9호(경고연)			○		○		
170	옥방1지구9호(경고연)			○				
171	옥방1지구9호(경고연)			○		○		
173	옥방1지구13호(경고연)			○				
174	옥방1지구14호(경고연)			○		○		
175	옥방1지구14호(경고연)			○		○		
176	옥방1지구14호(경고연)			○		○		
177	옥방1지구15호(경고연)			○				
179	옥방1지구33호(경고연)			○		○		
182	옥방1지구1호(진주박)			○		○		
183	옥방1지구1호(진주박)			○				
184	옥방1지구10호(진주박)			○				
190	옥방2지구16호			○		○		
191	옥방2지구16호			○				
193	옥방3지구27호			○		○		
194	옥방3지구30호			○		○		
195	옥방9지구16호			○		○		
196	옥방9지구32호			○		○		
197	옥방9지구32호			○				
198	옥방9지구32호			○				
200	상촌리1호(환양대)			○		○		
202	상촌리1호(환양대)			○		○		
204	상촌리7호(환양대)			○				
205	상촌리7호(환양대)			○		○		
208	귀곡동 대촌1호			○		○		
168	옥방1지구9호(경고연)			○			○	
180	옥방1지구33호(경고연)			○			○	
181	옥방1지구33호(경고연)			○			○	
185	옥방1지구13호(진주박)			○			○	
186	옥방1지구13호(진주박)			○				
187	옥방1지구15호(진주박)			○			○	
188	옥방2지구13호			○			○	
189	옥방2지구13호			○			○	
192	옥방3지구24호			○			○	
207	상촌리9호(환양대)			○			○	
203	상촌리1호(환양대)			○			○	
201	상촌리1호(환양대)			○			○	
210	사월리7호			○			○	
211	사월리9호			○			○	
212	사월리10호			○			○	
215	사월리15호			○				
218	사월리환호4호			○				
217	사월리환호3호							○
199	옥방9지구33호							○
206	상촌리8호(환양대)							○



<도 16> 영남서남단지역 IIIA식석촉(1/2)

(III A1b식-172,209, III A2c식-167, III A3b식-166,169,171,174,175,182,190,193,195,200,202,205,  
III A3c식-168,187,188,189,201,203, 207)

지금까지 마제석촉을 I류, II류, III류로 나누어 상관관계를 통한 형식분류를 시도해 보았다.

I A류는 6개의 型式이 설정되어 I A1a식→I A1b식→I A2b식(I A1c식)→I A2c식→I A3c식순으로 형식변화를 보인다. 즉 I類는 짧고 곡선적인 형태에서 길고 직선적인 형태로의 변화를 보인다.

Ⅱ류는 5개의 型式이 설정되어 (Ⅱ1a식)→Ⅱ1b식·Ⅱ2a식→Ⅱ2b식→Ⅱ2c식의 순서로 형식변화를 보인다. 즉 경부의 단면형태가 육각형+원형→육각형+장방형, 축신하단의 형태는 예각→직각→둔각으로 의 시간성이 인정되었다.

ⅢA류는 6개의 型式이 설정되어 ⅢA1a식→ⅢA1b식→ⅢA2b식(ⅢA2c식)→ⅢA3b식→ⅢA3c식의 순서로 형식조열 되었다. 즉 경부의 단면형태는 장방형→육각+장방형→육각형, 축신부의 형태는 길고 직선적인 형태에서 짧고 곡선적인 형태로 변화가 관찰되었다.

I B식과 ⅢB식의 석축은 출토예가 극소수에 불가하여 형식분류가 어렵다. 따라서 이들의 시간적 위치는 다음 장에서 石鏃이 출토된 주거지와 심발형토기의 비교를 통한 석축의 순서배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V. 段階設定 및 編年

지금까지 영남내륙지역, 영남동남단지, 영남서남단지 지역의 주거지에서 출토된 磨製石鏃의 屬性相關關係를 통한 형식변화를 알아보고 각 지역별로 순서배열을 시도해보았다.

본장에서는 磨製石鏃 편년의 보조자료로 石鏃이 출토된 주거지의 형태와 공반된 심발형토기를 살펴보고 단계설정과 편년을 시도한다.

영남지역의 주거지분류는 이수홍<sup>103)</sup>과 동진숙<sup>104)</sup>에 의해 시도된 바 있다. 전자는 영남남동해안 주거지의 형식분류에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주거지의 형식변화가 뚜렷한 대구지역의 주거지를 우선적으로 형식을 설정한 후, 포항·경주·울산·양산·부산지역에 대입하여 각 지역별로 주거지의 상대서열을 결정하였으며, 후자는 영남지역을 남강유역, 대구지역, 동해안지역의 3개의 지역군으로 나누어 형식을 설정한 후, 주거지의 상대서열을 결정하였다.

주거지 형식 분류의 주요한 속성에는 住居址의 平面形態·面積, 爐址의 構造·數·位置, 內溝<sup>105)</sup>의 有無, 주혈배치, 가운데 수혈과 주혈의 배치 등이 있다. 여기서 주거지의 면적은 용도에 따라 달라 질수 있으며, 內溝는 배수와 관련된 시설로 시기 차이보다는 유적의 입지와 관련된다는 이수홍의 견해<sup>106)</sup>에 동감하며, 시간성을 반영하는 주거지의 평면형태와 노지의 구조, 가운데 수혈과 주혈의 배치만을 속성으로 삼고자 한다.

평면형태에 의한 분류는 일반적으로 장방형계주거지는 전기로 원형계주거지

103) 이수홍은 주거지내 벽구의 존재가 시기차이와 유적의 입지차이로 보고, 벽구의 유무에 의해 크게 2가지로 분류하고, 평면형태와 노지의 유무에 따라 세분하였으며, 주거지의 면적은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고려하여 분류속성에서 제외하였다.

李秀鴻, 「檢丹里式土器의 時空間的 位置와 性格에 대한 一考察」, 『嶺南考古學』, 36, 2005.

104) 동진숙은 주거지의 평면형태, 면적, 노지의 구조, 타원형수혈의 유무는 영남지역 전체에 적용하고, 남강유역과 대구지역은 타원형수혈의 형태에 의해 동해안지역은 주혈배치, 벽구의 유무에 의해 내부시설에 의한 분류기준을 달리 적용하였다.

董眞淑, 앞의 논문, 2003.

105) 일반적으로 주거지의 벽 가장자리에 설치된 구를 □□벽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필자는 구의 용도가 배수·배수용으로 보며, 주거지의 내부에 설치된 구를 □□內溝□□로 외부에 설치된 구를 外溝□□로 명명하였다. □□壁溝□□는 벽체시설용으로 긴 홈상의 구로 보고자 한다.

李錫凡, 「慶州 松仙里 靑銅器時代 住居遺蹟에 대하여」, 『嶺南文化財研究』 제 17집, 2004, p. 178.

106) 필자도 동시기의 취락이라 할지라도 평지성취락에서는 내구가 설치된 주거지가 없으며, 구릉성취락에서는 대부분의 주거지에서 내구가 확인되는 점에서 내구의 기능을 배수·배수용으로 생각하며, 시간성을 찾고자 하는 주거지의 분류기준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는 송국리형으로 분류되어 중기로 설정되고 있다. 울산-경주-포항을 중심으로 한 영남동남단지역에서는 송국리형주거지가 극히 드물어 이 지역에 대한 시기의 하한을 중기초로 편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지만 최근 이 문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기존의 전기말, 중기초로 편년되던 유적의 하한이 중기 후반까지 내려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필자도 磨製石鏃을 분류하면서 영남서남단지역의 송국리형주거지에서 출토되는 ⅢA3c식의 石鏃이 영남동남단지역의 다수의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어 위의 견해와 같은 입장이다.

본고에서는 유적의 시공적인 위치가 동일한 동진숙과 이수홍의 분류속성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주거지를 분류하고자 한다.

<표20>과 같이 주거지는 평면형태에 따라 방형계통을 I類, 원형계통을 II類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I類는 평면형태에 따라 세장방형(A), 장방형(B), 방형(C)으로<sup>107)</sup>, 爐址의 形態에 따라 石床圍石式爐址가 설치된 것(1), 土壇圍石式爐址가 설치된 것(2), 土壇形爐址가 설치된 것(3), 爐址가 설치되지 않은 것(4)으로 세분한다. II類는 평면형태에 따라 말각(장)방형(A), (타)원형(B)로 분류하고, 가운데 수혈과 주혈의 배치형태에 의해 5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

<표 20> 주거지의 계통과 평면형태

평면 형태	장방형계(I)			원형계(II)	
	세장방형	장방형	방형	말각(장)방형	(타)원형
장단비	2.5이상	1.3~2.5미만	1.3미만	.	.
분류	A	B	C	A	B

<표 21> I 류-노지의 형태

노지의 형태	석상위석식	토광위석식	토광형	노지가 없는 것
분류	1	2	3	4

위의 연구성과에서 주거지의 중복관계와 유물의 문양을 통하여 I類의 평면형태는 A→C로 변화가 인정되었다<sup>108)</sup>. 爐址는 세장방형(I A식)의 경우, 土

107) 일반적으로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벽과 단벽의 比率을 기준으로 분류된다. 본고에서는 방형계(I 류)의 영남지역 주거지 장단비를 도수분포화 하여 분류한 동진숙의 분류기준을 따라 방형과 장방형의 기준은 1.3, 장방형과 세장방형의 기준은 2.5로 하고자 한다.

108) 평면형태의 변화는 일률적으로 A형→C형으로의 변화는 적용될 수는 없다. 이형원은 세장방형(A형)의 주거지를 역삼동·혼암리유형 Ⅲ기로 설정하였으며, 역삼동·혼암리유형 Ⅲ기보다 앞선 미사리유형 I기, 가락동유형 I기, 역삼동·혼암리유형 I·II기의 속하는 장방형(B형)을 보다 앞 시기로 설정하였다. 필자도 여기에 찬동하는 입장이다.

李亨源, 앞의 논문, 2002.

壙形爐址(3)만 확인되며, 장방형은 土壙圍石式爐址(2)와 土壙形爐址(3)의 빈도수가 거의 비슷하게 보이고 있어 IA식과 IB식은 다른 계통으로 보았다<sup>109)</sup>. 최근 보고된 세장방형의 진라리 8호·10호주거지에서 土壙圍石式爐址(2)가 설치된 IA2식의 주거지이며 10호주거지의 경우, 土壙圍石式爐址(2)와 土壙形爐址(3)가 함께 설치되어 있어 두 계통의 문화의 접촉으로 인한 노지구조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土壙形爐址(3)는 IA식, IB식, IC식의 주거지에서 모두 확인된다<sup>110)</sup>.

<표 21>의 노지형태 변화는 IB식과 IC식에서 모두 확인되는 4를 제외하고는 1→3으로 변화가 인정된다.

<표 22> 주거지 평면형태와 노지구조의 상관관계(표 25 참조)

속성	1	2	3	4	계
IB	○	1			1
IA		○	5		5
IB			49	9	58
IC			23	3	26
계	0	1	77	12	90

<표 22>는 석축이 출토된 주거지의 평면형태와 노지구조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표 안의 숫자는 석축이 출토된 주거지의 수량을 말한다<sup>111)</sup>. IB식과 IC식의 경우, 노지가 설치되지 않은 주거지가 확인되지만, 시간성을 가지는 변화보다는 주거지의 용도와 관련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2>에서 2가지의 속성이 조합되어 8개의 형식이 설정되며, (IB1식)→IB2식→(IA2식)→IA3식→IB3식·IB3식·IC3식·IC4식의 형식조열이 인정된다.

다음은 송국리형문화와 관련된 원형계주거지<sup>112)</sup>(II류)를 살펴보자. II형의 말

109) 董眞淑, 앞의 논문, 2003.

110) 영남지역에서 IB1식의 주거지는 사천 본촌리 B-3호주거지, 진주 대평 어은1지구 104호, 진주 상촌리 D-2·10호주거지, 진주 옥방5지구 C-3호, D-1호·2호주거지 등 남강지역과 김천 송죽리 7호주거지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석축분류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주거지의 분류에는 포함시키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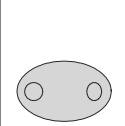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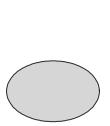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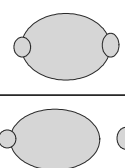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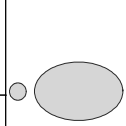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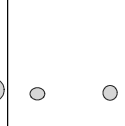
111) IA2식 평면형태의 진라리 10호주거지에서 IA식의 석축이 출토되었으나 축신부의 일부가 결실되어 분류대상에는 제외되었다.

嶺南文化財研究院, 『清道陳羅里遺蹟』, 2005, 考察.

112) 이홍중은 원형주거지의 내부 중앙에 토광시설을 갖춘 주거유형, (장)방형주거지의 내부 중앙에 토광시설을 갖춘 주거유형, 평면(장)방형 혹은 원형의 주거지로서 내부 중앙에 토광시설을 갖추지 않았지

각(장)방형(A)과 (타)원형(B)의 선후 관계는 II A식이 II B식보다 선행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평면 말각방형의 휴암리형주거지는 송국리형주거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공열토기문화요소가 남아있는 점을 중시하여 무문토기시대 전기말의 선송국리단계로 편년하고 송국리형 원형주거지는 중기로 편년되고 있다<sup>113)</sup>. 진주 남강댐 수몰지구 일대의 주거지 중복관계에서 말각장방형보다 (타)원형이 후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산청 사월리유적과 거창 대야리유적의 주거지 중복양상은 II A식과 II B식이 서로 교차중복양상을 통해 동시기일 가능성도 제시되기도 하였다. 필자는 후자와 같은 예는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A형이 선행하는 것으로 본다.

<표 23> II류-가운데 수혈과 주혈배치에 의한 분류

속성	휴암리형(1)	진라리형(2)	검단리형(3)	송국리형(4)	동천동형(5)
가운데 수혈					

II류의 주거지분포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영남동남단지역에서는 울산 검단리 27호, 양산 신평 9호를 제외하고는 상주, 대구·경산, 양산을 잇는 선상의 서편으로만 확인되고 있으며, 포항, 경주, 울산지역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운데 수혈에 의한 분류는 영남내륙지역과 영남서남단지역의 II류의 주거지에만 적용될 수 있다.

가운데 수혈과 주혈의 배치에 의한 분류는 <표 23>과 같다. 수혈내부에 주혈이 설치된 휴암리형(1), 가운데 수혈만 설치된 진라리형<sup>114)</sup>(2), 주혈이 가운데 수혈에 1개 또는 2개가 접하고 있는 검단리형(3), 가운데 수혈과 떨어져서

만 송국리식토기가 공반되는 주거유형 등 3가지 중 한 가지라도 만족요소가 있으면 송국리형주거지로 파악하였다.

113) 釜山廣域市立博物館 福泉分管, 『晉州 貴谷洞 대촌遺蹟』, 1998, 考察.  
慶南考古學研究所, 『晉州 大坪 玉房1·9地區無文時代聚落』, 2002.  
國立晉州博物館·慶尙南道, 『晉州 大坪里 玉房1地區遺蹟』, 2001.

114) 고찰에서 박달석은 가운데 수혈의 분류에서 가운데 수혈과 관련한 양주혈이 없는 것을 a식으로 분류하였는데 본고에서는 이를 진라리형이라 명명해 둔다.  
嶺南文化財研究院, 『淸道陳羅里遺蹟』, 2005, 考察.

양주혈이 설치된 송국리형(4), 양주혈만 설치된 동천동형(5)으로 세분한다. 하지만 ⅡA식과 ⅡB식이 모두 1형~5형의 형태가 확인되어 시간성을 반영하는 형식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ⅡB식은 최근 청도 진라리유적에서 주거지 중복관계를 통하여 1형을 제외한 2형→3형→4형→5형의 구조변화가 상정되었다.

주거지와 함께 石鏃編年을 뒷받침할 또 하나의 자료로 심발형토기의 형식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심발형토기의 구연부에 시문된 문양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청동기시대 편년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이용된다. 한반도 남부지역의 심발형토기의 문양은 複合文→單純文→無文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sup>115)</sup>. 문양의 분류는 대구지역과 영남동남단지역의 심발형토기의 문양변화를 다룬 이수홍의 분류방식을 따르고 <표 24>와 같이 분류한다<sup>116)</sup>.

<표 24> 심발형토기의 문양분류

I a식	I b식	I c식	I d식	Ⅱa식	Ⅱb식	Ⅱc식	Ⅱd식	Ⅲ식
이중구연 단사선문	구순각목 +공열문	이중구연+구순각목+단사선문 이중구연+구순각목+공열문	공열+단사선문 구순각목+단사선문	구순각목문	공열문	퇴화형 단사선문	난알문	무문

문양과 함께 심발형토기의 분류속성으로는 구연단의 형태가 있다. 심발형토기의 구연단의 형태는 편평한 것(1), 둥근 것(2), 뽕족한 것(3)으로 분류되며, 1→2→3으로의 변화가 인정된다<sup>117)</sup>.

그러면 주거지의 형태와 심발형토기의 변화를 석축의 형식변화와 비교하여 단계를 설정해 보자<sup>118)</sup>. 단계설정은 석축의 형식변화가 다양한 영남동남단지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나머지 두 지역은 여기에 대입시켜 영남권 전역에 대한 단계를 설정하고 지역적인 차이를 살펴보겠다.

115) 安在晔, 앞의 논문, 1991.

116) 필자는 이중구연단사선문이 퇴화되어 난알문으로 변화되는 점에서 홀구연의 퇴화형단사선문을 Ⅱc식으로 분류하고, 이수홍의 사방향(Ⅱc1식)과 횡방향(Ⅱc2식)으로 시문된 난알문을 묶어서 Ⅱd식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李秀鴻, 앞의 논문, 2005.

117) 董眞淑, 앞의 논문, 2003.

118) 심발형토기의 문양구성과 구연단의 형태에 대한 상관관계를 통한 형식변화는 추후로 미루고, 여기서는 문양과 구연단의 형태를 각각 석축편년의 보조자료로 이용한다.

<표 25> 주거지 및 심발형토기 속성표

지역	유적명	주거지 형태							심발형토기	
		길이(cm)	너비(cm)	장단비	평면형태	평면형태	노지	가운데수혈	문양	구연단 형태
영남내륙지역	대구 팔당동2호	560	<350>		장방형?	1B	4			
	대구 팔당동10호	790	<350>		장방형?	1B			부분	2
	대구 팔당동14호	960	<400>		장방형?	1B	2		공연	2
	대구 서변동6호	<255>	<296>			1?				2
	대구 서변동29호	540	292	1.85	장방형	1B	3		난발문	1
	대구 서변동41호	820	382	2.15	장방형	1B	3		공연(요형토기)	2
	대구 서변동46호	902	580	1.56	장방형	1B	3		단사선, 구순각목	1
	대구 동천동3호	375	335	1.12	원형	1B		1	부분	1.2
	대구 동천동12호	368	337	1.09	원형	1B		4	부분	1
	대구 동천동13호	360	360	1.00	원형	1B		4	부분	3
	대구 동천동26호	515	460	1.12	원형	1B		5		3
	대구 동천동27호	720	500	1.44	발각장방형	1A		5	부분	2
	대구 동천동30호	485	485	1.00	원형	1B		4	부분	
	대구 동천동32호	460	435	1.06	원형	1B		5	부분	1.2
	대구 동천동33호	514	430	1.20	원형	1B		4		2
	대구 동천동36호	360	320	1.13	발각장방형	1A		무		
	대구 동천동37호	410	385	1.06	원형	1B		5	부분	2
	대구 동천동53호	380	380	1.00	원형	1B		5		
	대구 장동Ⅱ-1호	384	210	1.83	장방형	1B	3		부분	3
	대구 송현동2호	604	370	1.63	장방형	1B	3			
	대구 송현동3호	1028	808	1.27	방형	1C	4			
	대구 송현동4호	602	434	1.39	장방형	1B	3			
	대구 송현동5호	<554>	<225>			1?	3			
창도 전라리 1호	490	455	1.07	원형	1B		4		구순각목	2
창도 전라리93호	330	254	1.3	발각장방형	1A		4			
함원 적포토지구3호	<390>	<132>			1?					
함원 적포토지구4호	<230>	<60>			1?					
함원 봉계리13호	326	?		원형	1B					
거창 대야리1호	744	566	1.31	타원형	1B		4		출분토기(내부토)	
거창 대야리11호	722	494	1.46	발각장방형	1A					
거창 대야리15호	706	690	1.07	원형	1B		4		부분, 출분토기(내부토)	2
영남동남단지역	영천 청정리2호	408	318	1.28	방형	1C	3			
	영천 청정리3호	415	275	1.51	장방형	1B			공연, 구순각목	1
	영천 청정리4호	1122	350	3.21	세장방형	1A	3		공연	1.2
	포항 초곡리2호	920	650	1.42	장방형	1B	3		공연+구순각목	2
	포항 초곡리3호	500	<420>		방형	1C	3			
	포항 초곡리5호	420	<255>		방형	1C				
	포항 초곡리12호	390	<285>		방형	1C	3			
	포항 태연리14호	884	280	3.16	세장방형	1A	3			
	포항 태연리15호	<412>	<180>			1?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 구순각목	1
	포항 원동 제3지구Ⅳ-3호	520	330	1.58	장방형	1B	4			
	포항 원동 제3지구Ⅳ-9호	430	365	1.18	방형	1C	3		공연+구순각목	1
	포항 원동 제3지구Ⅳ-10호	540	340	1.59	장방형	1B	3		공연	1
	경주 안동리5호	294	252	1.17	방형	1C	3			
	경주 송선리1호	660	475	1.39	장방형	1B	3			2
	경주 송선리9호	589	<246>		장방형?	1B	3			
	경주 송효동1호	630	360	1.75	장방형	1B	3		구순각목, 공연문	1.2
	경주 송효동2호	610	350	1.74	장방형	1B	3		구순각목	2
	경주 송효동4호	<510>	380		장방형?	1?				
	경주 황성동 1다-13호	590	470	1.26	방형	1C	4		난발(귀수)	2
	경주 황성동 1다-14호	515	315	1.63	장방형	1B	4		공연+단사선, 단사선	2
	경주 황성동 1다-2호	701	371	1.89	장방형	1B	4		공연	1
	경주 황성동 1다-3호	468	325	1.44	장방형	1B	4		단사선	2
	경주 황성동 1다-9호	550	408	1.35	장방형	1B	4		귀수	2
	경주 황성동 1라-8호	550	390	1.41	장방형	1B			귀수, 난발, 공연	1.2
	경주 황성동 1라-9호	890	450	1.98	장방형	1B	3		구순각목+공연+단사선	1
	경주 황성동 1라-11호	316	189	1.67	장방형	1B	4			
	경주 황성동 강변로6호	586	<320>		장방형?	1B	3		난발(귀수)	2
	경주 황성동 강변로8호	444	252	1.76	장방형	1B				
	경주 석장동3호	520	330	1.58	장방형	1B	3			
	경주 석장동6호	490	274	1.79	장방형	1B	3			
	경주 원곡동 괴막리-1호	497	308	1.61	장방형	1B	3			
	경주 순곡동-물원리2호	442	321	1.37	장방형	1B	3			
경주 순곡동-물원리8호	390	321	1.21	장방형	1C	3				
경주 불길리10호(영문선)	710	<480>		장방형?	1B	3		공연	2	
경주 불길리2호(술산대)	520	<155>		장방형?	1B	?				
경주 원산리B-12호	1500	<400>		세장방형?	1A?			공연	2	
경주 원산리B-17호	730	410	1.78	장방형	1B	3				
경주 원산리B-19호	630	450	1.40	장방형	1B	3				
경주 원산리B-27호	<250>	340			1?					
경주 원산리B-32호	1200	<490>		세장방형?	1A?	3		공연	2	
경주 원산리 Ⅱ-1호	600	400	1.50	장방형	1B	3		이중구연	2	
육산 봉계리 Ⅰ-8호	675	492	1.37	장방형	1B	3				

지역	유적명	주거지 형태							심발형태기		
		길이(cm)	너비(cm)	장단비	평면형태	평면형태	노지	가운데수월	문양	구연단 형태	
영남 동남단 지역	울산 봉계리II-1호	388	331	1.17	방형	IC	3				
	울산 봉계리II-4호	530	<495>		장방형?	IB	3		공연	2	
	울산 태안리4호	415	395	1.05	방형	IC	?				
	울산 태안리5호	480	380	1.26	방형	IC	?				
	울산 신현동 황토전2호	460	360	1.28	방형	IC	3				
	울산 신현동 황토전8호	380	340	1.12	방형	IC	3				
	울산 신현동 황토전10호	580	450	1.29	방형	IC	3		공연	2	
	울산 신현동 황토전17호	555	390	1.42	장방형	IB					
	울산 신현동 황토전18호	517	370	1.40	장방형	IB	3				
	울산 신현동 황토전20호	580	370	1.57	장방형	IB	3				
	울산 신현동 황토전33호	630	435	1.45	장방형	IB	3				
	울산 연암동1호	720	390	1.85	장방형	IB			남향	2	
	울산 연암동2호	520	420	1.24	방형	IC			공연, 남향	2	
	울산 화정동15호(울문연)	430	340	1.26	방형	IC	3				
	울산 화정동1호(울산대)	630	405	1.56	장방형	IB	3		공연	1	
	울산 두왕동3호	576	430	1.34	장방형	IB	3				
	울산 다운동1호	380	310	1.23	방형	IC	3		공연, 단사선	2	
	울산 다운동4호	472	<230>		장방형	IB	3				
	울산 구수리B-4호(울반연)	730	378	1.93	장방형	IB					
	울산 구수리4호(울산대)	350	330	1.06	방형	IC	3		공연+남향	1	
	울산 구영리2호	415	210	1.98	장방형	IB			공연	2	
	울산 원상리2호	640	320	2.00	장방형	IB	?				
	울산 원상리22호	755	482	1.57	장방형	IB	3				
	울산 원상리28호	525	373	1.41	장방형	IB	3				
	울산 원상리30호	532	350	1.52	장방형	IB	3				
	울산 원상리33호	342	318	1.08	방형	IC	3				
	울산 원상리35호	400	345	1.16	방형	IC	4				
	울산 김단리3호	370	270	1.37	장방형	IB	4			3	
	울산 김단리9호	548	360	1.52	장방형	IB				3	
	울산 김단리10호	<514>	<104>		I?						
	울산 김단리11호	414	<300>		장방형	IB	3				
	울산 김단리13호	566	320	1.77	장방형	IB	3		공연	3	
	울산 김단리18호	314	<185>		I?		3				
	울산 김단리21호	440	400	1.10	방형	IC	3		파수	2	
	울산 김단리22호	350	<230>		장방형?	IB	3			2,3	
	울산 김단리26호	360	<220>		방형	IC			파수	3	
	울산 김단리29호	522	372	1.40	장방형	IB	3				
	울산 김단리39호	306	346	0.88	방형	IC	3				
	울산 김단리45호	452	<210>		방형	IC	3		파수		
	울산 김단리47호	<390>	<180>		I?					2	
	울산 김단리49호	465	375	1.32	장방형	IB	3		남향(파수)	2	
	울산 김단리50호	575	390	1.47	장방형	IB	3				
	울산 김단리69호	<680>	415		장방형?	IB	3		파수	3	
	울산 김단리77호	380	<290>		장방형	IB					
	울산 김단리89호	420	315	1.33	장방형	IB	3				
울산 방기리12호	486	383	1.24	방형	IC	3		공연	2		
울산 방기리15호	402	347	1.16	방형	IC	3		공연, 단사선	2		
울산 방기리30호	550	350	1.57	장방형	IB			공연	2		
울산 방기리31호	417	351	1.19	방형	IC	3		공연+구순각목	2		
울산 방기리 38호	776	415	1.87	장방형	IB	3		공연	2		
양산 신평A-2호	304	235	1.29	방형	IC	3			2		
양산 신평A-4호	335	280	1.20	방형	IC	3			2		
양산 신평A-15호	324	<180>		방형?	IC						
양산 신평B-1호	<520>	352		장방형	IB	3		공연	1,2		
부산 노포동2호	540	318	1.70	장방형	IB			구순각목	1		
영남 서남단 지역	진주 옥방1지구1호(경고연)	700	600	1.17	원형	IB		4	부분	1	
	진주 옥방1지구3호(경고연)	530	490	1.08	말각방형	IIA		1	구순각목(호형)		
	진주 옥방1지구9호(경고연)	750	610	1.23	말각장방형	IIA		1	공연, 공연+구순각목	1,2	
	진주 옥방1지구13호(경고연)	<450>	420		말각방형	IIA		3	구순각목	2,3	
	진주 옥방1지구14호(경고연)	580	450	1.29	말각장방형	IIA		1	부분	2	
	진주 옥방1지구15호(경고연)	540	450	1.20	말각방형	IIA		4			
	진주 옥방1지구21호(경고연)	550	490	1.12	말각방형	IIA		3			
	진주 옥방1지구1호(진주박)	1420	420	3.38	세장방형	IA	3		공연, 공연+구순각목,	2	
	진주 옥방1지구10호(진주박)	460	440	1.05	말각방형	IIA		부	부분	2	
	진주 옥방1지구13호(진주박)	660	600	1.10	원형	IB		2	부분	2	
	진주 옥방1지구15호(진주박)	700	670	1.04	원형	IB		4			
	진주 옥방2지구 13호	488	410	1.19	말각방형	IIA		2			
	진주 옥방2지구 16호	660	534	1.24	말각장방형	IIA		4			
	진주 옥방3지구20호	1074	488	2.20	장방형	IB	?		공연, 공연+구순각목	2	
	진주 옥방3지구24호	<394>	260		?						
	진주 옥방3지구27호	508	400	1.27	말각장방형	IIA		3	구순각목	2	
	진주 옥방3지구30호	490	380	1.29	말각장방형	IIA		3			
	진주 옥방9지구16호	<300>	167		장방형?	IB	?				
	진주 옥방9지구32호	410	400	1.03	말각방형	IIA		3			
	진주 옥방9지구33호	530	425	1.24	말각방형	IIA		3	부분	2	
	진주 상촌리1호	680	500	1.36	타원형	IB		4	공연, 부분	2	
	진주 상촌리7호	720	580	1.24	말각방형	IIA		4		2	





토기의 문양은 複合文(I b식, I c식, I d식)과 單純文(II a식, II b식, II c식)이 시문되고, 구연단이 1형과 2형만 확인된다.

II期는 I類石鏤과 II類石鏤이 모두 소멸하고 I期에 출현한 IIIA1a식의 석촉이 주를 이룬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IA3식이 소멸하고 IB3식, IB4식, IC3식이며, 심발형토기의 문양은 複合文(I c식, I d식), 單純文(II b식, II c식, II d식<sup>120</sup>), 無文(III식)이 확인되며, 구연단은 1형~3형 모두 확인된다.

III期는 본 단계부터 주거지의 형태는 IB3식, IB4식, IC3식, IC4식이 모두 확인된다. 석촉은 IIIA1a식의 석촉이 IIIA1b식으로 변화하며, 늦은 단계에 이르면 IIIA2b식, IIIA2c식이 나타난다. 심발형토기의 문양은 複合文이 사라지고 단순문(II a식, II b식, II c식)과 무문(III식)만 확인되며, 구연단은 1형~3형 모두 확인된다.

IV期는 IIIA식의 석촉의 형식변화에 따라 2단계로 세분할 수 있다. IV-1期는 IIIA1식, IIIA1b식, IIIA2b식, IIIA2c식이 소멸하고 IIIA3b식이 등장된다. 심발형토기의 문양은 II a식은 차츰 사라지고 II b식과 III식이 유지 된다. 그리고 II d식(날알문)이 증가한다. 구연단은 1형~3형이 모두 확인되며 3형이 증가한다. IV-2기는 IIIA3b식의 石鏤이 IIIA3c식으로 변화한다. II b식, II d식, III식의 문양만 잔존하다가 모두 무문으로 변화된다. 구연단은 1형이 사라지고, 2형과 3형만 유지된다.

영남동남단지역의 특징은 석촉의 형태는 단계별로 변화를 보이지만 주거지의 형태에 있어서 영남내륙지역과 영남서남단지역의 III期에서 등장하는 원형계(II 류)의 송국리형주거지 없으며<sup>121</sup>, 방형계의 주거지가 중기까지 지속된다. 심발형토기의 문양은 複合文→단순문→무문으로의 변화가 인정되며, 타지역에서 확인되지 않는 날알문(II d식)이 II期에 출현하여 IV-2期까지 유지된다. 그리고 단순문중에서 구순각목문(II a식)이 먼저 사라지고 공열문(II b식)이 가장

120) 이수홍은 심발형토기의 구연단에 날알문이 시문된 토기로 울산에 비롯한 한반도 동남해안 지역에서만 확인되는 지역성이 강한 토기로 보고 검단리식토기로 설정하고 사방향의 날알문은 중기전반, 횡방향의 날알문은 중기후반으로 편년하였다.

李秀鴻, 앞의 논문, 2005.

121) 영남동남단지역에서도 극히 소수지만, 울산 검단리 27호, 양산 신평 9호와 양산 소토리에서 12동 등 원형계의 송국리형주거지가 확인된 바 있다.

慶南考古學研究所, 『梁山 所土里 松菊里文化聚落-京釜高速道路 內 梁山IC建立敷地 發掘調査 報告-』, 2005.





I 期는 I 類이 주를 이루며 II1b식의 석축이 출현한다. 옥방1지구 1호는 III A3b식이 확인되는데 석축에 의한 단계상으론 IV-1期에 해당되나 주거지의 형태(I A3식)와 심발형토기의 문양구성(複合文)을 통해 I 期에 포함시킨다. 주거지의 형태는 I 類의 세장방형(I A3식), 장방형(I B3식)을 보인다. 심발형토기의 문양은 I a식 · I b식 · I c식 · IIa식 · IIb식으로 복합문의 다수를 차지하며, 구연단은 1형과 2형이 확인된다. IIIA1a식의 석축이 나타나는 II 期の 양상은 보이지 않는다.

III 期는 I 類와 II1b식이 소멸하고 IIIA1b식의 석축이 출현한다<sup>124</sup>). 주거지의 형태는 장방형계(I 類)는 소멸하고 말각(장)방형(IIA1식, IIA3식, IIA4식)이 나타난다. 심발형토기의 문양은 I b식 · IIb식, 구연단은 1형 · 2형이 공반된다.

IV 期는 IIIA식의 석축의 형식변화에 따라 2단계로 세분할 수 있다. IV-1期는 IIIA1b식의 석축이 소멸하고, IIIA2c식과 IIIA3b식이 주를 이루며, IIIB식이 출현한다. 주거지의 형태는 III 期와 동일하다. 심발형토기의 문양은 IIa식과 III 식 등이 공반되며, 구연단은 1형이 일부 확인되지만 2형과 3형이 주를 이룬다. IV-2期는 IIIA2c식과 IIIA3b식이 IIIA3c식의 석축으로 바뀌며, IIIB식은 잔존한다. 주거지의 형태는 IIA식이 존재하다가 모두 IIB식으로 변한다. 심발형토기의 문양은 IIb식 · III식이 주를 이루는데 I b식이 잔존한다. 구연단은 1형은 사라지고 2형과 3형이 주를 이룬다.

영남서남단지지역의 특징은 IIIA1a식의 석축의 출토예가 없어 II 期가 보이지 않으며, 주거지의 형태 또한 장방형계(I 류)가 일부 축조되다가 모두 원형계(II 류)의 말각(장)방형과 (타)원형으로 변화된다. 심발형토기의 문양은 복합문 → 단순문 → 무문으로의 전체적인 변화는 인정되지만, 세부문양에 있어서 I 期에서 확인되는 I a식을 제외하고는 IIc식, IId식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에 IIb식은 III식과 함께 IV-2期까지 잔존한다.

<표 29> 영남지역 주거지 절대연대 현황(반감기 : 5568)

연번	유적명	방사성탄소연대	보정연대	주거지형태	발형토기문양	석축	분석기관
영남 내륙 지역	대구 서변동1호	B.P.2920±60	B.C. 1,115	I B3	I b		서울대학교
	대구 서변동25호	B.P.2710±50	B.C. 1,050~B.C. 760	I B3	IIa		국립문화재연구소
	대구 서변동27호	B.P.2970±50 B.P.3010±60	B.C. 1,165 B.C. 1,225	I B3	IIb		서울대학교
	대구 서변동32호	B.P.2690±40	B.C. 855	IIA4			서울대학교
	대구 동천동20호	B.P. 2570±40	B.C. 790	II B5	III(파수)		서울대학교
	대구 동천동50호	B.P. 2650±200	B.C. 800	I A3	III		서울대학교
	청도 진라리3호	B.P. 2830±40	B.C. 970	I A3	I c, IIa, IIb	I A3C(?)	서울대학교
	청도 진라리8호	B.P. 3000±40	B.C. 1,260	I A2	I c, IIb		서울대학교

124) 옥방 1지구 9호(경고연)는 IIIA1b식과 IIIA3c식의 석축이 공반되는데, IIIA3c식은 2차가공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II 期에 포함시킨다.

연번	유적명	방사성탄소연대	보정연대	주거지형태	발형토기문양	석축	분석기관
영남 내륙 지역	청도 진라리17호	B.P. 2700±40	B.C. 860	IIA4	III		서울대학교
	청도 진라리19호	B.P. 2890±60	B.C. 1,050	I A3	III		서울대학교
	청도 진라리64호	B.P. 2910±80	B.C. 1,100	I B3	III, IIb(호)		서울대학교
	청도 진라리71호	B.P. 2980±60	B.C. 1,220	I A3	I c, IIb	I A3C(?)	서울대학교
	거창 대야리8호	B.P.1490±120	A.D. 460	I B4	음문		學習院大學
	거창 대야리14호	B.P.2630±110	B.C. 680	II B4	음문	I 類?	學習院大學
영남 동남단 지역	포항 초곡리1호	B.P.3300±50	B.C. 1,474	I A4			서울대학교
	포항 초곡리1호	B.P.2410±50	B.C. 760~B.C. 390	I A4			국립문화재연구소
	포항 초곡리5호	B.P.3164±89'90	B.C. 1,214	I C?		I B식, II2a식	경북대학교
	포항 초곡리5호	B.P.2620±50	B.C. 900~B.C. 540	I C?		I B식, II2a식	국립문화재연구소
	포항 초곡리6호	B.P.3330±50 B.P.3060±40	B.C. 1,600 B.C. 1,340	I A3			서울대학교
	포항 초곡리6호	B.P.3370±74'75 B.P.3419±78	B.C. 1,820 B.C. 1,469	I A3			경북대학교
	경주 봉길리5호	B.P.2360±40	B.C. 450	I 73	III d		서울대학교
	경주 봉길리9호	B.P.2730±30	B.C. 870	I 73			서울대학교
	경주 봉길리10호	B.P.2440±60	B.C. 720~B.C. 480	I B3	II a	III A3e식	서울대학교
	경주 송선리1호	B.P.2860±40	B.C. 1,030	I B3	III	I 유, III A1a식	서울대학교
	경주 송선리7호	B.P.2930±150	B.C. 1,020	I B3	II b, III		서울대학교
	경주 송선리8호	B.P.2760±40	B.C. 880	I B?			서울대학교
	경주 송선리9호	B.P.2820±40	B.C. 960	I B3		I A1C, I A3C	서울대학교
	경주 송선리10호	B.P.2960±60	B.C. 1,160	I B?			서울대학교
	경주 송선리11호	B.P.2890±40	B.C. 1,070	I B3	I c		서울대학교
	포항 대련리4호	B.P.2650±40	B.C. 840	I B3	II a	I 유?, I A3C(?)	서울대학교
	포항 대련리10호	B.P.2580±40	B.C. 790	I B3	I b, II a	I 類?	서울대학교
	포항 대련리11호	B.P.2960±40	B.C. 1,170	I B3		I 類?	서울대학교
	경주 인동리5-1호	B.P. 2530±40	B.C. 780~B.C. 595	I ??			서울대학교
	경주 인동리5-2호	B.P. 2760±40	B.C. 880	I ??			서울대학교
	경주 인동리5-3호	B.P. 2670±40	B.C. 885~B.C. 820	I ??			서울대학교
	경주 천군동피막라-1호	B.P. 2610±60	B.C. 860~B.C. 530	I B3		III A1b식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주 구정동1호	B.P. 2440±30 B.P. 2590±30	B.C. 730~B.C. 480 B.C. 790	I B3	II a, II d		서울대학교
	경주 황성동950-1·7 1호	B.P. 2660±40	B.C. 820	I B3	II a, II c(호형)		서울대학교
	경주 황성동950-1·7 1호	B.P. 2670±40	B.C. 970	I B3	III		서울대학교
	경주 황성동950-1·7 1호	B.P. 2470±40	B.C. 730, B.C. 640, B.C. 560	I ??			서울대학교
	경주 월산리B-18호	B.P. 2670±70 B.P. 3100±90	B.C. 970~B.C. 540 B.C. 1,530~B.C. 1,070	I B4			국립문화재연구소
	울산 김단리22호	B.P. 2830±100	B.C. 880	I 73	III	III A3b식	學習院大學
	울산 김단리59호	B.P. 2880±70	B.C. 930	I B3	III(파수)		學習院大學
	울산 김단리101호	B.P. 2660±100	B.C. 710	I ??			學習院大學
	울산 창평동1호	B.P. 2600±80	B.C. 795~B.C. 615	I B4	III		서울대학교
	울산 창평동2호	B.P. 2580±60	B.C. 790~B.C. 590	I B3			서울대학교
	울산 창평동4호	B.P. 2840±80	B.C. 1,020	I B3			서울대학교
	울산 창평동5호	B.P. 2810±80	B.C. 970	I B3	I a		서울대학교
	울산 창평동6호	B.P. 2950±60	B.C. 1,150	I ??	II a		서울대학교
	울산 창평동14호	B.P. 2590±60	B.C. 790~B.C. 615	I ??			서울대학교
	울산 두왕동1호	B.P. 2720±40	B.C. 870	I B3			서울대학교
	울산 두왕동2호	B.P. 2860±30	B.C. 1,020	I B3	II d		서울대학교
	울산 두왕동3호	B.P. 2720±40 B.P. 2880±30	B.C. 860 B.C. 1,070	I B3		III A1?식	서울대학교
	울산 두왕동4호	B.P. 2620±30	B.C. 810	I B4			서울대학교
	울산 교동리456 3호	B.P. 2730±60 B.P. 2670±60 B.P. 2680±60	B.C. 880 B.C. 850 B.C. 850	I B3			서울대학교
	울산 교동리456 9호	B.P. 2610±60 B.P. 2630±60	B.C. 800 B.C. 810	I 73			서울대학교
울산 교동리456 11호	B.P. 2830±80 B.P. 2730±80	B.C. 1,010 B.C. 870	I B3	II b, II d		서울대학교	
울산 교동리456 12호	B.P. 2550±60 B.P. 2490±60	B.C. 700~B.C. 620 B.C. 640	I B3	II b, II c		서울대학교	
울산 방기리 286-3 1호	B.P. 2800±40	B.C. 950	I 73		III A1a식	서울대학교	
울산 방기리 286-3 4호	B.P. 2620±60	B.C. 800				서울대학교	
울산 맥곡동 I-1호	B.P. 3060±40	B.C. 1,330	I C3	III		서울대학교	
울산 맥곡동 I-9호	B.P. 2240±40	B.C. 300	I B?	II d, III	III A3?식	서울대학교	
울산 맥곡동 II-10호	B.P. 2860±40	B.C. 1,020	I C3	II a, III		서울대학교	
울산 맥곡동 II-15호	B.P. 2690±41	B.C. 860	I 73			서울대학교	
울산 맥곡동 II-20호	B.P. 2760±80	B.C. 910	I ??			서울대학교	
울산 맥곡동 III-2호	B.P. 2850±40	B.C. 1,020	I B3			서울대학교	
울산 맥곡동 III-3호	B.P. 2810±50 B.P. 2800±40	B.C. 980 B.C. 950	I B3	I d, II a	III A3c식	서울대학교	
울산 맥곡동 III-6호	B.P. 2890±30	B.C. 1,070	I C3	III		서울대학교	
울산 맥곡동 III-8호	B.P. 2870±40	B.C. 1,040	I B3		III A?	서울대학교	
울산 맥곡동 III-9호	B.P. 2870±40	B.C. 1,050	I B3			서울대학교	

영남지역 주거지 출토 목탄시료에 대한 방사성탄소연대자료이다. 최근 들어 방사성탄소연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연대분석이 활발해 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절대연대자료는 <표 29><sup>125)</sup>과 같이 영남동남단지역에 한정되고 있다. 더구나 분석대상에 포함된 석축이 출토된 주거지의 절대연대는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거지의 형태와 심발형토기의 형태를 비교하여 절대연대를 산출하고자 한다. <표 29>에서 어둡게 표시된 부분은 아래의 절대연대를 제시한 부분이다.

I 期는 해당되는 절대연대측정치를 살펴보면, 송선리 9호가 B.C. 960년, 송선리 1호가 B.C. 1,030년, 초곡리 5호가 B.C. 1,214년 또는 B.C. 900~B.C. 540년(2 $\sigma$ ), 그리고 IA3c식의 석축이 출토된 울산 매곡동 III-3호주거지의 보정연대가 B.C. 980년 또는 B.C. 950년로 편년된다. 또 장방형주거지에 Ia식의 심발형토기가 출토된 울산 창평동 5호(B.C. 970년), 세장방형주거지에 Ic식의 심발형토기가 출토된 진라리 3호(B.C. 970년)와 진라리 71호(B.C. 1,220년) 등의 보정연대가 참고가 된다. 위의 절대연대는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I 期の 상한은 B.C. 13세기로 하한은 B.C. 10세기로 볼 수 있다.

II 期에 해당되는 직접적인 절대연대자료는 없기 때문에 I 期와 III 期사이에 편년하고자 하다.

III 期 울산 두왕동 3호 B.C. 1,070년 또는 B.C. 860, 경주 천군동 피막라1호 B.C. 860년~B.C. 530(2 $\sigma$ )로 편년되며, 송국리형주거지(IIA4식)인 대구 서변동 32호와 청도 진라리 17호은 각각 B.C. 855년과 B.C. 860년으로 편년되며, 동천동형주거지(II B5식)인 대구 동천동 20호의 보정연대가 B.C. 790년으로 편년된다. 위의 절대연대에서 III 期の 상한은 B.C. 9세기로 하한은 B.C. 8세기로 볼 수 있으며, 영남지역의 중기의 시작은 B.C. 9세기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II 期の 연대는 I 期の 하한과 II 期の 상한을 통해 볼 때, B.C. 10세기~B.C. 9세기 사이에 편년 지을 수 있다.

IV-1期는 IIIA3b식의 석축이 출토된 울산 검단리 22호가 B.C. 880년의 보정연대를 보이며, IIIA3c식의 석축이 확인되는 IV-2期는 경주 봉길리10호가 B.C. 720년~B.C. 480년로 편년된다. IIIA3c식의 출토된 대야리 1호·대야리15호와 동일한 송국리형주거지(II B4식)의 거창 대야리 11호의 B.C. 680년으로 편년된다. 하한과 관련하여 II d식의 심발형토기와 IIIA3c식으로 판단되는 석축

125) <표 31>에서 서울대학교, 경북대학교, 學習院大學의 보정연대는 1 $\sigma$ (68%)로 산출되었으며,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 $\sigma$ (95%)로 산출되었다.

이 출토된 울산 매곡동 I-9호의 보정연대가 B.C. 300년을 보이고 있어 편년에 참고 된다. 위의 절대연대에서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IV期の 상한은 B.C. 8세기로 하한은 B.C. 4세기로 볼 수 있다.

<표 30> 영남지역 마제석촉 편년표

I 류석촉(무경석)		II 류석촉(이단경석)					III 류석촉(일단경석)					연대
1A식	1B식	II 1a식	II 1b식	II 2a식	II 2b식	II 2c식	III A1a식	III A1b식 III A2b식	III A2c식 III A3b식	III A3c식	III B식	
												B.C. 13세기
												B.C. 12세기
												B.C. 11세기
												B.C. 10세기
												B.C. 9세기
												B.C. 8세기
												B.C. 7세기
												B.C. 6세기
												B.C. 5세기
												B.C. 4세기

<표 31> 영남지역 청동기시대 편년안

지역 단계	영남내륙지역			영남동남단지역			영남서남단지역			연대	시기
	석촉	주거지	심발형토기 문양	석촉	주거지	심발형토기 문양	석촉	주거지	심발형토기 문양		
I 期	I A식 (II 1a식) II 1b식 (III A3c식)	세장방형 장방형, 방형	II b식 II c식 II d식 III 식	I A식 I B식 II 2a식 II 2b식 II 2c식 (III A1a식)	세장방형 장방형 방형	I b식 I c식 I d식 II a식 II b식	I A식 II 1b식	세장방형 장방형	I a식, I b식 I c식 II a식 II b식	B.C. 13C ~B.C. 10C	전기중반
II 期	III A1a식	장방형, 방형	III 식	III A1a식	장방형 방형	I d식 II b식 II c식 II d식 III 식				B.C. 10C ~B.C. 9C	전기후반
III 期	I B식 III A1b식 III A2b식	말각(장)방형 (타)원형	II a식 III 식	III A1b식 III A2b식 III A2c식 III B식	장방형 방형	II a식 II b식 II c식 III 식	III A1b식	말각(장)방형	I b식 II b식	B.C. 9C ~B.C. 8C	중기전반
IV-1 期				(I A식) III A3b식 III B식	장방형 방형	II a식 II b식 II c식 II d식 III 식	III A2c식 III A3b식 III B식	말각(장)방형	II a식 II b식 III 식	B.C. 8C~ ~B.C. 4C	중기후반
IV-2 期	III A3c식	말각(장)방형 (타)원형	III 식	III A3b식 III A3c식	장방형 방형	II b식 II d식 III 식	III A3b식 III A3c식 III B식	말각(장)방형 (타)원형	I b식 II b식 III 식		

<표 31>는 석축의 형식변화에 따른 3지역의 평행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영남지역은 모두 4단계의 획기 설정이 가능하다. IIIA1b식, IIIA2b식의 석축이 확인되는 III期부터 청동기시대 중기로 설정할 수 있다. 석축 뿐 만아니라, 이때부터 영남서남단지역과 영남내륙지역에서는 원형계의 송국리형주거지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각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영남지역에서는 I期보다 이전 단계의 청동기시대 전기로 편년되는 사촌 본촌리 나-3호, 산청 소남리 85호·142호, 진주 상촌리 2호·10호, 옥방 5지구 D-2호·D-9호, 어은 1지구 77호·107호·118호, 김천 송죽리 30호 등의 미사리형유형과 상촌리 2-1호, 청도 진라리 8호·10호주거지, 상동 I-9호주거지, 밀양 금천리 11호 등의 가락동유형의 유적이 확인되고 있으며, 영남지역에서 가장 이른 청동기시대 유구로 판단된다<sup>126)</sup>. 미사리유형과 가락동유형에 속하는 이들 유적은 영남내륙지역과 영남서남단지역에서만 한정되어서 확인된다. 하지만 <표 29>에서 포항 초곡리 1호(B.C. 1,474), 초곡리 6호(B.C. 1,820, B.C. 1,600, B.C. 1,469, B.C. 1,340)는 상당히 빠른 절대연대가 도출되는 점에서 전기 이른 시기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영남지역에서 I류·II류석축의 上限은 B.C. 13세기이상 올라 갈 것으로 추정되지만, 더 많은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다.

I期는 무경식석축과 이단경식석축이 주를 이룬다. 영남서남단지역과 영남내륙지역에서는 이단경축(II1b식)의 석축이 출현한다. 영남동남단에서는 이단경식(II2a식, II2b식, II2c식)이 나타나며, IIIA1a식이 출현하여 무경식석축과 공반되거나 단독으로 출토된다. 주거지는 세장방형(I A3식), 장방형(I B3식, I B4식), 방형(I C3식)이 모두 확인된다. 심발형토기의 문양은 영남동남단지역과 영남서남단지역에서는 복합문과 단순문, 영남내륙지역에서는 단순문과 무문이 확인된다. I期는 전기중반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상한을 B.C. 13세기로 하한을 B.C. 10세기로 편년할 수 있다.

II期는 일단경축(III A1a식)이 주를 이루는데, 현재까지 영남서남단지역에서는 III A1a식의 석축의 출토예가 없어 II期の 양상은 보이지 않는다. 주거지는 세장방형은 사라지고 모두 장방형과 방형으로 축조된다. 심발형토기의 문양은

126) I期기 이전으로 편년가능한 주거지는 보고서 未發刊으로 자료에서 제외되었지만 이들 유적에서도 석축이 출토 예가 있다. 가락동유형으로 볼 수 있는 진주 상촌리 2-1호에서는 I A1a식과 II1a식의 석축이 공반되고 있어 II류석축의 상한이 전기의 이른 시기까지 올려 볼 수 있다. I期로 설정한 팔달동 14호의 경우, 주거지의 형태상 土壙圍石式爐址가 설치된 장방형의 가락동유형으로 볼 수 있으나 공열문의 심발형토기가 출토되어 I期에서도 가장 이른 시기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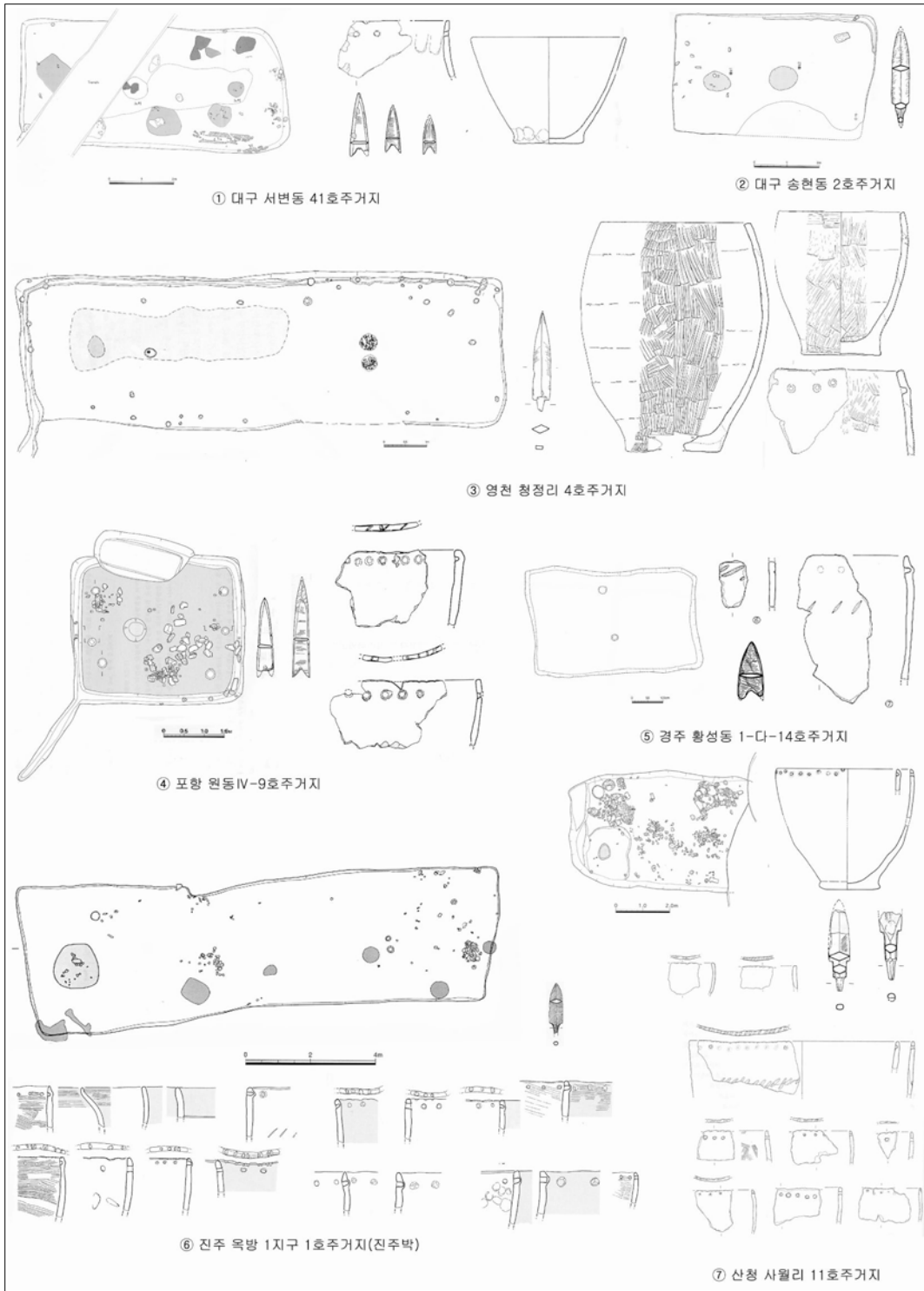
영남동남단지역에서는 I d식의 복합문이 일부 잔존하지만 단순문과 무문으로 변한다. II기는 전기후반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상한을 B.C. 10세기로 하한을 B.C. 9세기로 편년할 수 있다.

III期는 IIIA1a식의 석축은 사라지고 IIIA1b식과 IIIA2b식이 출현하며, 영남동남단지역에서는 IIIA2c식과 IIIB식이 IIIA2b식과 공반되기도 한다. 영남내륙지역은 말각(장)방형주거지와 (타)원형주거지가 차례로 출현하고, 영남서남단지역에서는 말각(장)방형주거지만 출현한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주거지의 출현은 이 두 지역에 송국리형문화의 확산을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 영남서남단지역은 전기의 주거지가 위치한 곳에 송국리형주거지가 시간적 차이를 두고 형성, 확산되는 반면에 대구지역은 전기의 장방형계 주거지형태에서 점진적으로 송국리형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동천동형(II B4식)의 독특한 주거지 형태를 형성한다<sup>127)</sup>. 하지만 이 시점에 영남동남단지역에서는 전기의 역삼동·혼암리 유형의 문화를 계승·변화하여 지역성이 강한 檢丹里類型<sup>128)</sup>형성으로 송국리형토기문화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장방형과 방형주거지가 그대로 계승된다. 심발형토기의 문양에서 영남내륙지역과 영남동남단지역은 복합문이 사라지고 단순문과 무문이 주를 이루는 반면에 영남서남단지역에서는 I b식(공열+구순각목문)과 단순문이 잔존한다. III기는 중기전반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상한을 B.C. 9세기로 하한을 B.C. 8세기로 편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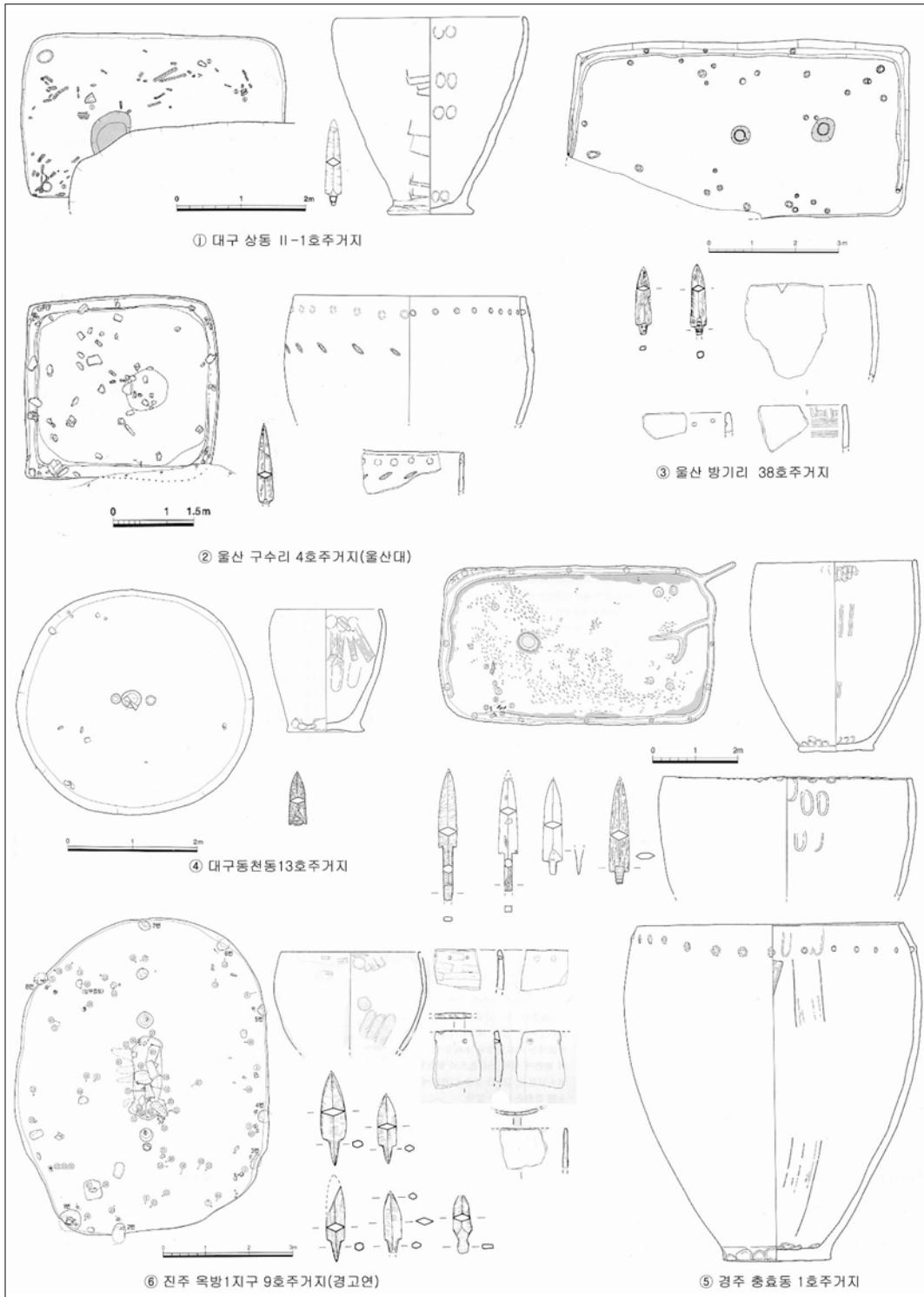
IV期는 IIIA식의 석축의 형식변화에 따라 2단계로 세분할 수 있다. 영남내륙지역에서는 IIIA3b식의 석축이 없어 IV-1期는 보이지 않는다. IV-1期는 IIIA1b식과 IIIA2b식의 석축이 소멸하고, IIIA3b식이 주를 이룬다. 영남동남단지역은 IIIB식이 계속 나타나고, 영남서남단지역에서는 이 단계에 출현한다. 주거지의 형태는 III期와 동일하다. 심발형토기의 문양은 복합문과 무문이 주를 이룬다. IV-2期는 IIIA2c식과 IIIA3b식의 석축이 소멸하고 IIIA3c식이 출현하며, IIIB식은 계속 남아 있다. 주거지의 형태는 영남내륙지역과 영남동남단지역은 IV-1期와 동일하며, 영남서남단지역은 (타)원형이 말각(장)방형주거지가 일정기간 존속하다가 (타)원형으로 대체된다. 심발형토기의 문양은 단순문과 무문이 주를 이루는데, 영남서남단지역은 공열+구순가목문(I b식)이 잔존한다. IV期는 중기후반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상한을 B.C. 8세기로 하한을 B.C. 4세기로 편년할 수 있다. 아래의 표는 영남지역의 단계별 주거지와 출토유물을 나타낸다.

127) 董眞淑, 앞의 논문, 2003, p.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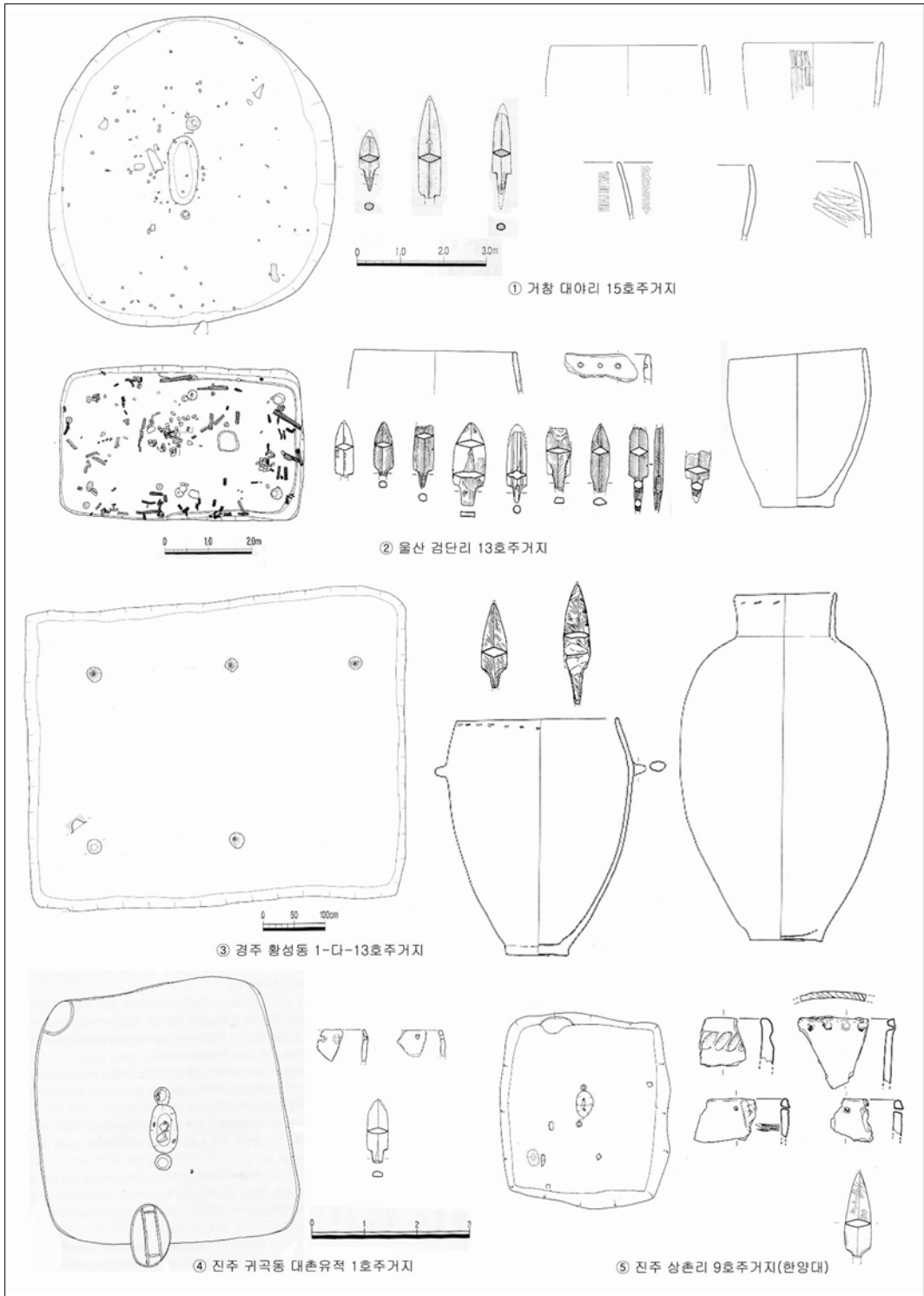
128) 安在晔, 앞의 논문, 2005.



<도 17> 영남지역 I期 주거지 및 출토유물(석촉:1/4, 토기:1/8)  
 (영남내륙-①·②, 영남동남단-③·④·⑤, 영남서남단-⑥·⑦)



<도 18> 영남지역 II·III期 주거지 및 출토유물(석촉:1/4, 토기:1/8)  
 II期(영남내륙-①, 영남동남단-②·③), III期(영남내륙-④, 영남동남단-⑤, 영남서남단-⑥)



<도 19> 영남지역 IV期 주거지 및 출토유물(석축:1/4, 토기:1/8)  
 (영남내륙-①, 영남동남단-②·③, 영남서남단-④·⑤)

## VI. 맏음말

지금까지 영남지역의 청동기시대의 취락을 낙동강 중류를 중심으로 한 영남 내륙지역, 낙동강동안·태화강·형산강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영남동남단지역, 낙동강서안·남강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영남서남단지역으로 크게 3개의 지역군으로 설정한 후, 각 지역의 45개소 유적에서 출토된 272점의 磨製石鏃을 대상으로 鏃身부와 莖部の 形態的, 計測的屬性을 검출하여 型式分類를 통한 형식변화와 편년작업을 시도하였다. 아울러 磨製石鏃의 형식변화에서 나타나는 지역적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논지를 정리하면서 맏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磨製石鏃은 莖部の 유무에 의해 無莖式石鏃과 有莖式石鏃으로 나뉘어지며, 有莖式은 다시 莖段의 有無에 따라 二段莖鏃과 一段莖鏃으로 분류된다. 본고에서는 無莖式을 I類, 二段莖式을 II類, 一段莖式을 III類로 분류하는 일반적인 분류를 따라 분류하였다.

I類는 축신부의 단면형태에 따라 편육각형인 것(A), 능형인 것(B형)으로 나눌 수 있다. IA식은 총길이와 총길이:축신폭의 비율(단형:1, 중형:2, 장형:3), 축신부의 형태(곡선형:a, 굴절형:b, 직선형:c) 등의 속성에 의한 상관관계 검토결과, 총길이와 총길이:축신폭의 비율은 서로 비례적인 변화를 보이고 시간성을 가지는 6개의 型式이 설정되어 IA1a식→IA1b식→IA2b식(IA1c식)→IA2c식→IA3c식순으로 형식변화를 보인다. 즉 I類는 짧고 곡선적인 형태에서 길고 직선적인 형태로의 변화를 보인다.

II類는 경부의 단면형태에 따라 육각형+원형(1)과 육각형+장방형(2)으로 나누고, 鏃身部 下段의 형태에 따라 예각형(a), 직각형(b), 둔각형(c)으로 분류하여 상관관계 검토결과, 시간성을 가지는 5개의 型式이 설정되어 (II1a식)→II1b식·II2a식→II2b식→II2c식의 순서로 형식변화를 보인다.

III類는 축신부의 단면형태가 능형(A)과 편육각형(B)로 나누어진다. IIIA식은 다시 경부의 단면형태에 따라 장방형(1), 육각+장방형(2), 육각형(3)으로 鏃身部の 形態에 따라 直線形(a), 屈折形(b), 曲線形(c)으로 분류하여 상관관계 검토결과, 시간성을 가지는 6개의 型式이 설정되어 IIIA1a식→IIIA1b식→IIIA2b식(IIIA2c식)→IIIA3b식→IIIA3c식의 순서로 형식조열 되었다.

영남지역의 석촉은 위의 형식변화와 주거지 형태, 심발형태기의 문양을 통해 4단계로 구분된다. IIIA1b식, IIIA2b식의 석촉과 원형계의 송국리형주거지

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Ⅲ期부터 청동기시대 중기로 설정할 수 있다.

I 期는 청동기시대 전기중반에 해당되며 I 류·II 류·III 류의 석축이 확인된다. III 류는 이른 형식인 IIIA1a식이 I 류와 공반되거나 단독으로 출토된다. I 期는 상한을 B.C. 13세기로 하한을 B.C. 10세기로 편년할 수 있다.

II 期는 전기후반에 해당되며, I 류·II 류석축이 소멸하고 IIIA1a식만 남게 된다. 영남서남단지역에서는 IIIA1a식의 석축의 출토예가 없어 II 期の 양상은 보이지 않는다. II 期는 상한을 B.C. 10세기로 하한을 B.C. 9세기로 편년할 수 있다.

III 期는 중기전반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IIIA1a식의 석축은 사라지고 IIIA1b 식, IIIA2b식, IIIA2c식이 출현하고, 이때부터 송국리형문화의 확산으로 영남동남단지역을 제외한 영남내륙지역과 영남서남단지역에서는 원형계의 송국리형 주거지가 축조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 시점에 영남동남단지역에서는 전기의 역삼동·혼암리유형의 문화를 계승·변화하여 지역성이 강한 檢丹里類型을 형성하게 된다. III 期는 상한을 B.C. 9세기로 하한을 B.C. 8세기로 편년할 수 있다.

IV 期는 중기후반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IIIA식의 석축의 형식변화에 따라 2 단계로 세분할 수 있다. 영남내륙지역지역에서는 IIIA3b식의 석축이 없어 IV-1期는 보이지 않는다. IV-1期는 앞 단계의 IIIA1b식과 IIIA2b식의 석축이 소멸하고, IIIA3b식이 주를 이룬다. IV-2期는 IIIA2c식과 IIIA3b식의 석축이 소멸하고 IIIA3c식이 출현한다. IV 期는 상한을 B.C. 8세기로 하한을 B.C. 4세기로 편년할 수 있다.

마제석축은 신석기시대의 타제석축의 전통을 계승하여 무경식석축에서 유경식석축으로 발전된다. 영남지역의 마제석축은 무경식, 이단경식, 일단경식으로의 시간성은 기존의 연구성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영남지역에서는 무경식이 유경식보다 먼저 제작된 것은 인정되지만, 무경식→이단경식→일단경식순으로 일률적인 변화를 보이진 않는다. 무경식, 이단경식, 일단경식(III A1a식)이 일정기간 동안 공존하다가 최종적으로 일단경식으로 변화 발전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전기의 이른 시기부터 확인되는 무경식과 이단경식간의 관계와 계통문제는 아직 불분명하다.

석축의 형식변화과정에서 영남서남단지역의 전기후반으로 편년되는 IIIA1a 식 석축의 不在, 영남내륙지역에서는 중기후반으로 편년되는 IIIA3b식의 不在와 IIIA3c식지역적 偏在는 송국리형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영남서남단지역은 I 期の 석축이 전기후반까지 계승되다가 송국리형문화가 확산되면서 원형계주거지와 함께 바로 IIIA1b식의 석축이 출현한다.

영남내륙지역은 전기의 공열토기문화에서 점진적으로 송국리형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동천동형(II B4식)의 독특한 주거지 형태를 형성하며, III 期の IIIA1b 식이 중기후반까지 계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영남서남단지역과 인접한 거창과 합천지역에서는 IIIA1b식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단계의 영남동남단지역에서는 전기의 공열토기문화를 계승하여 지역성이 강한 檢丹里類型 형성으로 송국리형문화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석축은 중기후반까지 단계별로 변화·발전된다.

영남지역에서는 석축의 분포와 변화에 있어서 단절적인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지형, 기존문화와 새로운 문화의 관계, 편중된 발굴조사 등 여러 가지 영향이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자료의 증가를 통한 많은 연구를 기대한다.

본 글은 마제석축의 형식분류와 편년을 통한 지역성을 검토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계통을 고려하지 않은 형식분류, 절대연대에 의존한 편년, 피자의 능력부족 등으로 인해 많은 억측과 오류를 범하였음을 자인하며 선학들의 많은 질책을 기대한다.

## < 참고 문헌 >

### 論文 및 著書

#### <國文>

- 김규정, 「松菊里型住居址內 타원형구덩이 機能 檢討」, 『湖南文化財研究研究論文集』 2, 2002.
- 金吉雄, 「金丈臺 岩刻畫에 대한 考察」, 『新羅文化祭 學술발표회논문집』 제 16집, 1995.
- 김병준, 「[건강에세이] 젓과 독」, 『영남일보』, 2006, 1. 3.
- 김양미, 「진주 대평리 옥방1지구 무문토기시대 환호취락」, 『南江댐 水沒地區의 發掘成果』, 嶺南考古學會, 1998.
- 金榮珉, 「蔚山 蓮岩洞型 住居址 檢討」, 『蔚山研究』, 2, 2000.
- 金元龍, 「蔚州 盤龜臺 岩刻畫에 대하여」, 『韓國考古學報』, 1980.
- 金壯錫, 「혼암리 유형 재고 : 기원과 연대」, 『嶺南考古學』 28, 2001.
- \_\_\_\_\_, 「충청지역 송국리유형 형성과정」, 『韓國考古學報』 51, 2003.
- 김정기, 「韓國堅穴住居址考」, 『考古學』 제3집, 한국고고학회, 1974.
- 李亨求, 『晋州 대평리 玉房 5地區 先史遺蹟』, 鮮文大學校, 2001.
- 董眞淑, 『嶺南地方 靑銅器時代 文化의 變遷』, 慶北大學校文學院 碩士學位論文, 2003.
- 박달석, 「상주 봉룡동유적 발굴조사」, 『통일신라시대의 고고학』, 제28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한국고고학회, 2004.
- 朴辰一, 『圓形粘土帶土器文化研究-湖西 및 湖南地方을 中心으로-』, 釜山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0.
- 朴淳發, 「漢江流域의 靑銅器·初期鐵器文化」, 『한강유역사』, 민음사, 1993.
- \_\_\_\_\_, 「欣岩里類型 形成過程 再檢討」, 『湖西考古學』 創刊號, 1999.
- 朴竣範, 『한강유역 출토 돌화살촉에 대한 연구』, 弘益大學校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8.
- 宋滿榮, 『中期無文土器時代 文化의 編年과 成格-西南韓地方을 中心으로』 崇實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5.
- \_\_\_\_\_, 「嶺南地方 農耕文化形成期 聚落의 構造와 變化」, 『한국농경문화의 형식』, 제25회 한국고고학대회, 韓國考古學會, 2001.
- 安在晧, 『南韓 前期無文土器의 編年』, 慶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1.
- \_\_\_\_\_, 「松菊里類型의 檢討」, 『嶺南考古學』 11, 영남고고학회, 1992.
- \_\_\_\_\_, 「無文土器時代 聚落의 變遷」 『碩晤尹容鎮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1996.
- \_\_\_\_\_, 「韓國 農耕社會의 成立」, 『韓國考古學報』 43, 韓國考古學會, 2000.
- \_\_\_\_\_, 「無文土器時代 聚落研究의 問題點」, 『釜考研』 74, 부산고고학연구회, 2005.
- 유병록, 『大邱 八達洞 靑銅器時代 住居遺蹟에 대하여』, 『嶺南文化財研究』 8집, 1998.
- 尹武炳, 『韓國靑銅器文化研究』, 藝耕産業社, 1991.
- 李健茂, 「松菊里類型住居址分類試論」, 『擇窩許先生停年紀念韓國史學論叢』, 1992.
- 李白圭, 「京畿道 無文土器·磨製石器」, 『考古學』 3, 1974.
- \_\_\_\_\_, 「漢江流域 前半期 민무늬토기의 編年에 대하여」, 『嶺南考古學』 2, 1986.

- 李相吉, 「晉州 大坪 漁隱1地區 發掘調査概要」, 『남강선사문화 세미나 요지』, 東亞大學校博物館, 1999.
- 李錫凡, 「嶺南地域 磨製石鏃의 型式分類」, 『嶺南文化財研究』 제 17집, 2004.
- \_\_\_\_\_, 「慶州 松仙里 青銅器時代 住居遺蹟에 대하여」, 『嶺南文化財研究』 제 17집, 2004, p. 178.
- 李秀鴻, 「檢丹里式土器의 時空間的 位置와 性格에 대한 一考察」, 『嶺南考古學』 36, 2005.
- 李在賢, 『弁·辰韓社會의 考古學的 研究』, 釜山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3.
- 李眞旻, 「중부지역 역삼동 유형과 송국리유형의 관계에 대한 일고찰-역삼동유형의 하한에 주목하여」, 『韓國考古學報』 54, 2004.
- 李清圭, 「南韓地方 無文土器文化的 展開와 孔列土器文化的 位置」, 『韓國上古史學報』, 創刊號, 1988.
- 李炫錫, 「蔚山地域 青銅器時代 住居址 檢討」, 『蔚山文化財研究』, 2001.
- 李亨求, 「晉州 大坪 玉房5地區 先史遺蹟」, 鮮文大學校, 2001.
- 李亨源, 「韓國 青銅器時代 前期 中部地域 無文土器 編年 研究」, 忠南大學校大學院 文學碩士學位論文, 2002.
- 李弘鐘, 「日本 초기수전농경기의 덧띠새김무늬토기-한반도와의 關係를 중심으로」 『史叢』, 33, 1988.
- \_\_\_\_\_, 「松菊里文化的 時空間的 展開」, 『湖西考古學』 第 6·7合輯, 호서고고학, 2002.
- 林炳泰, 「韓國 無文土器의 研究」, 『韓國史學』 7,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69.
- 任世權, 「우리나라의 마제석촉의 연구」, 『韓國史研究』, 17집, 1977.
- 임영규, 『조선의 청동기시대』, 사회과학출판사, 1984.
- 林孝澤 외, 『居昌·陝川 큰돌무덤』, 東義大學校博物館 學術叢書1, 1987.
- 全榮來, 「韓國 磨製石劍·石鏃 編年에 대한 研究」, 『馬韓·百濟文化』, 4·5합집, 馬韓百濟文化研究所, 1982.
- 鄭澄元·申敬澈, 「終末期無文土器에 관한 研究-南部地方을 중심으로 한 예비적 고찰」, 『韓國考古學報』 20, 1987.
- 趙賢庭, 『蔚山型住居址에 대한 一考察』, 慶北大學校文學院 碩士學位論文, 2001
- 찰스마우텔 지음·박광순 옮김, 『무기의 역사』, 2002.
- 최무장, 『晉州 上村里 3~8호 支石墓 및 先史遺蹟』, 건국대학교박물관, 2001.
- 崔盛洛, 「韓半島 磨製石鏃의 考察」 『韓國史研究』 12, 韓國考古學會, 1982.
- \_\_\_\_\_, 「방사성탄소측정 연대문제의 검토」, 『한국고고학보』 13, 한국고고학회, 1982.
- 河仁秀, 『嶺南地方 丹塗磨研土器에 대한 新考察』, 釜山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9.
- 韓永熙, 「角形土器考」, 『韓國考古學報』 14·15, 1983.
- 黃昌漢, 「無文土器時代 磨製石鏃의 製作方法 研究」 『湖南考古學報』 20집, 2004.
- 黃炫眞, 『嶺南地域의 無文土器時代 地域性研究』, 釜山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4.

#### <日文>

- 藤田亮策, 『朝鮮考古學研究』, 東京, 1948.
- 大貫靜夫, 「欣岩里類型土器の系譜論をめぐって」, 『東北アジアの考古學』 第二, 東北亞細亞考古學研究所, 1996.
- 後藤直, 「南朝鮮の無文土器-その變遷について-」, 『考古學研究』, 1973.

## 報告書 및 資料

- 慶南考古學研究所, 『晉州 大坪 玉房1·9地區無文時代聚落』, 2002.
- 慶南考古學研究所, 『梁山 所土里 松菊里文化聚落-京釜高速公路 內 梁山IC建立敷地 發掘調查報告-』, 2005.
- 慶南大學校博物館, 『蔚山 九英里遺蹟』, 2004.
- 慶北大學校博物館, 『慶州 隍城洞遺蹟Ⅲ』, 2000.
- \_\_\_\_\_, 『慶州 隍城洞遺蹟Ⅳ』, 2000.
- 慶北文化財研究院, 『大邱 上洞遺蹟發掘調查報告書』, 2002.
- \_\_\_\_\_, 『대구 수성초등학교 부지내 上洞遺蹟發掘調查報告書』, 2004.
- 慶尙大學校博物館·慶尙南道, 『晉州 大坪里 玉房2地區 先史遺蹟』, 1999.
- \_\_\_\_\_, 『晉州 大坪里 玉房3地區 先史遺蹟』, 2001.
- 啓明大學校博物館, 『慶州 隍城洞遺蹟Ⅴ』, 2000.
- 國立慶州博物館·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慶州市, 『慶州 千軍洞 避幕遺蹟』, 1999.
- 國立慶州博物館, 『慶州 隍城洞遺蹟Ⅰ, Ⅱ』, 1999.
-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慶州 月山里遺蹟』, 2003.
- \_\_\_\_\_, 『慶州 蒜谷洞·勿川里遺蹟』, 2004.
- 국립김해박물관, 『진환기의 선사토기』, 2005.
- 國立晉州博物館·慶尙南道, 『晉州 大坪里 玉房1地區遺蹟』, 2001.
- 國立昌原大學校博物館, 『蔚山 芳基里 青銅器時代聚落』, 2003.
-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 博物館, 『錫杖洞遺蹟Ⅱ』, 1998.
- \_\_\_\_\_, 『大邱 松峴洞遺蹟』 2002.
- \_\_\_\_\_, 『錫杖洞遺蹟Ⅱ·王京遺蹟Ⅰ』, 2002.
- 東亞大學校博物館, 『陝川 鳳溪里遺蹟』, 1989.
- \_\_\_\_\_, 『南江流域文化遺蹟發掘圖錄』, 1999.
- 東義大學校博物館, 『大也里住居址Ⅰ』, 1988.
- \_\_\_\_\_, 『大也里住居址Ⅱ』, 1989.
- \_\_\_\_\_, 『山淸 沙月里遺蹟』 1999.
- 釜慶大學校博物館, 『山淸 沙月里環濠遺蹟』, 1998.
- 釜山廣域市立博物館 福泉分館, 『晉州 貴谷洞 대촌遺蹟』, 1998.
- 釜山大學校博物館, 『陝川 苧浦里 E地區遺蹟』, 1987.
- \_\_\_\_\_, 『釜山 老圃洞遺蹟』, 1988.
- \_\_\_\_\_, 『勒島住居址』, 1989.
- \_\_\_\_\_, 『蔚山 檢丹리마을遺蹟』, 1995.
- \_\_\_\_\_, 『梁山 新平遺蹟』, 2000.
- 安東大學博物館·啓明大學校博物館, 『임하댐수몰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Ⅲ)』, 1989.
- 嶺南大學校博物館, 『蔚山 鳳溪里遺蹟』, 2000.
- \_\_\_\_\_, 『浦項 大蓮里遺蹟』, 2001.
- 嶺南文化財研究院, 『浦項 草谷里遺蹟』, 2000.

- \_\_\_\_\_ 『永川 清亭里遺蹟』, 2001.
- \_\_\_\_\_ 『大邱 東川洞聚落遺蹟』, 2002.
- \_\_\_\_\_ 『大邱 西邊洞聚落遺蹟 I』, 2002.
- \_\_\_\_\_ 『蔚山 川上里遺蹟』, 2002.
- \_\_\_\_\_ 『慶州 奉吉里遺蹟』, 2005.
- \_\_\_\_\_ 『清道 陳羅里遺蹟』, 2005.
- \_\_\_\_\_ 『慶州 松仙里遺蹟』, 2005.
- 蔚山大學校博物館, 『경주봉길리고분군 I』, 2000.
- \_\_\_\_\_ 『울산 연암동유적 부록:울산 화정동유적』, 2001.
- \_\_\_\_\_ 『蔚山 大安里遺蹟 부록:慶州 月山里 II 遺蹟』, 2002.
- \_\_\_\_\_ 『국도24호선(울산-언양)확·포장구간내유적-蔚山 屈火里·栢川·九秀里遺蹟』, 2005.
- 蔚山文化財研究院, 『蔚山 新峴洞 黃土田遺蹟』, 2003.
- \_\_\_\_\_ 『蔚山 華亭洞遺蹟』, 2004.
- \_\_\_\_\_ 『蔚山 芳基里286遺蹟』, 2005.
- \_\_\_\_\_ 『蔚山 梅谷洞遺蹟 I 地區』, 2005.
- \_\_\_\_\_ 『蔚山 梅谷洞遺蹟 II 地區』, 2005.
- \_\_\_\_\_ 『蔚山 梅谷洞遺蹟 III 地區』, 2005.
- \_\_\_\_\_ 『蔚山 山下洞山陰遺蹟 III 地區』, 2005.
- 蔚山發展研究院, 『蔚山 茶雲洞마區域遺蹟』, 2003.
- \_\_\_\_\_ 『蔚山 九秀里 遺蹟』, 2003.
- 中央文化財研究院, 『蔚山 斗旺-無去間 道路擴裝區間內 遺蹟 發掘調查報告書』, 2004.
- \_\_\_\_\_ 『慶州 仁東里遺蹟』, 2004.
- \_\_\_\_\_ 『慶州 九政洞 255-1 蕃地 單獨住宅 新築敷地內 遺蹟 發掘調查報告書』, 2004.
- 昌原大學校博物館, 『蔚山 茶雲洞 雲谷遺蹟』, 1998.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浦項 院洞 第3地區 -文化遺蹟 發掘調查 報告書-』, 2003.
- \_\_\_\_\_ 『慶州 忠孝洞 44-3番地 共同住宅 新築敷地內 文化遺蹟 時·發掘調查 報告書』, 2005.
- \_\_\_\_\_ 『慶州 隍城洞 950-1·7番地 共同住宅 新築敷地 文化遺蹟 發掘調查 報告書』, 2005.
- 漢陽大學校博物館·慶尙南道, 『晉州 上村里 2號 支石墓 및 先史遺蹟』, 1999.

# A Study of the Chronology of the Polished Stone-arrowheads Excavated from Pit-houses in Korean Southeast

Lee, Seok Beom

Department of Cultural Resources Studies  
The Graduate School  
Gyeongj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Chang ho)

(Abstract)

The major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establish the chronology of the polished stone-arrowheads excavated from Korean Bronze Age semi-subterranean pit-houses in the southeastern part of Korea. Some research have been conducted on this subject by both Korean and Japanese archaeologists. Although this issue has been one of important research topics for the study of Korean Bronze Age culture, the research outcome is still sketchy.

The examination of the chronology should not be an end itself in archaeological studies considering today's world archaeological research trend. Yet, it is still important in Korea because a precise chronology can be a starting point for the better understanding of a specific past human society under examination.

Although the entire arrowheads the major objects of this thesis are manufactured with stone, there has been a general consensus that they are produced during the Bronze Age in Korea. It is not uncommon to discover polished stone arrowheads and daggers from Korean Bronze Age pit-houses. This thesis utilized 272 arrowheads excavated from 45 pit-houses located in Korean Southeast (i.e., Daegu, Gyeongju, Ulsan, Busan, and Jinju). All of the arrowheads

used in this thesis was excavated by salvage archaeological programs and most of the sample was extracted from so called 'Gray Literatures' published in the last decades.

The entire sample was divided into four different types and 13 sub-types were created for analytical purpose assuming each type and sub-types were sensitive in time. In addition, pit-house types and pottery types were also analyzed in conjunction with relative dating. Furthermore, a number of <sup>14</sup>C dates were also incorporated to acquire an objective chronometric chronology.

On the basis of the research results of the stylistic changes of the arrowheads, pit-houses, accompanying pottery of deep bowls, and <sup>14</sup>C dates, I ca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Type I can be dated to between the 13th and 10th centuries B.C. Type II can be dated to between the 10th and ninth centuries B.C. Type III can be dated to between the ninth and eighth centuries B.C. Finally, Type IV can be dated to between the eighth and fourth centuries B.C.

It is my wish that this thesis makes a little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Bronze Age culture studies.